금주의 법구-〈법구경〉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7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11월 22일)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2만7천여 사찰 목판 디지털로 기록하다

불교문화재硏 · 문화재청 '사찰 목판 일제조사' 완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국 사찰에 소장된 2만 7천여 목판이 6년간의 일제 조사를 통해 모두 디지털로 기록되고 전통 방식으로 인출됐다. 그간 인식 부족으로 보존 위기에 있었던 사찰 소장 목판에 대한 가치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와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사찰 목판 조사 ·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는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추진한 '전국 사찰 목판 일제조사' 사업의 결과를 정리하는 자리로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들이 전문 연구논문을 통해 발표됐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은 지난 6년 동안 전국 114개 사찰에서 2만 7735판을 정밀기록화 조사를 완료했다. 무엇보다 조사 목판 전체를 '디지털 기록화'한 점이 의미가 크다. 실제 기존 목판 연구는 변상판, 권수판, 권미제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고화소 디지털 촬영을 진행해 이미지 DB를 구축했다.

이에 대해 리송재 불교문화재연구소 팀장은 "사찰 목판에 대한 현황과 조사 내용은 모두 디지털 자료로 구축했으며, 문화재청을 비롯해 목판 소장 사찰에도 자료를 제공해 보존 · 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며 "이 같이 구축된 DB자료는 향후 목판 보존 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사를 통해 목판의 판종을 분류하고 간행기록을 확인한 점은 이번 조사의 주요 성과다. 실제 조사를 통해 △형태에 의한 판종 분류 △형태에 의한 판각시기 추정 △간행기록 재확인 △판종 재구성 등이 이뤄졌다.

또한, 조사대상 목판 가운데 시기 · 완결 · 기록성 등을 기준으로 전국 12개 사찰에서 50종 2,750판을 전통 방법에 따라 제작한 한지와 송연묵 등으로 인출했다. 한지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닥나무와 식물성 점제인 황촉규를 사용해 전통기법으로 제작됐으며, 송연묵은 소나무를 태운 그을음으로 만들어졌다. 인출은 국내 사찰 목판 인견에 인출 경험이 풍부한 전문 장인이 담당했다. 인출된 인경본을 장황해 전체 231책(77책, 각 3부)을 완성한 것도 의미가 크다.

그간 보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사찰 소장 목판들이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됐다는 점도 이번 조사의 성과다. 그간 사찰 소장 목판은 정확한 수량과 내용 등의 파악이 어려워 문화재 지정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사로 사찰 소장 목판들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했다.

실제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8건의 목판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됐으며, 현재에도 서울 · 경상도 지역 목판 12건이 국가지정문화재 추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불교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과제로 남았다. 리송재 팀장은 "일제 조사 사업의 성과로 구축된 목록을 바탕으로 비지정문화재까지 아우르는 모니터링 사업은 필수적"이라며 "목록화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을 구분해 사찰 소장 유물의 보관 현황과 보존 상태를 등급화하면 문화재 관리의 기초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14개 사찰 · 2만 7천여 판
2014년부터 6년 동안 조사
모두 디지털 기록으로 담아
2750판 전통 방식으로 인출
목판 18건 보물 지정 '성과'

'전국 사찰 목판 일제조사 사업'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총 12년간 진행한 '전국 사찰 문화재 일제조사' 사업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향후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수미단, 천개(天蓋, 사찰 천장 장식) 등 사찰 목공예 문화재의 훼손과 멸실에 대비한 '전국 사찰 목공예 일제조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불교문화재연구소는 "그동안 수미단과 천개 등은 불상과 불화에 비해 불교건축 일부로 인식돼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다"면서 "외부 위험에 노출된 수미단 및 불단 장엄용 목공예에 대한 정밀 자료를 조사를 통해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뜻한 '자비심' 배달합니다 서울 상계동의 양지마을에 스님들을 비롯한 불자들로 구성된 아이연탄맨이 자비의 연탄을 배달했다. 아름다운동행(대표 원행, 이하 동행)은 12월 12일 서울 노원구 상계3 · 4동 양지마을에서 연탄지원 캠페인 '아이연탄맨'을 실시했다. 이날 연탄 나눔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스님들과 종무원, 조계사 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골목길을 누비며 따뜻한 겨울을 위한 자비심을 나눴다. 연탄 배달 전 들어 보인 장갑의 빨간색 만큼 참가자들의 마음이 따뜻해 보인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제공=조계종

'나눔 템플스테이' 참가자 2만 명 돌파

공상경찰관 ·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공익 목적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이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전개하는 '나눔 템플스테이'를 올해 2만여 명이 체험하면서 큰 성과를 거뒀다.

문화사업단은 "올해 2만4000여 명에게 공익 템플스테이인 '나눔 템플스테이'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2월 10일 밝혔다.

나눔 템플스테이는 다문화가정, 학교 밖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저소득층, 공상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템플스테이다. 문화사업단은 그동안 단편적으로 실시해온 사회공헌 템플스테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나눔 템플스테이' 사업을 신설해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경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한 계층에 체계적으로 템플스테이를 지원했다. 특히 전국 각지의 템플스테이 운영사찰과 지역 복지시설 네트워크를 구축, 전국적인 나눔 템플스테이 확대를 이끌었다. 그 결과 나눔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지난해 9795명에서 올해 2만4471명으로 늘어났다. 무엇보다 올해는 전국 134개 사찰에서 나눔 템플스테이를 운영, 올해 템플스테이 총 참가자 중 나눔 템플스테이가 8.8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다.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어
연말연시 템플스테이도 운영

문화사업단 측은 나눔 템플스테이 사업의 확대 이유를 "템플스테이 기본 정신은 불교문화 체험을 통한 심신치유와 부처님 자비정신인 나눔에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화사업단은 내년에도 나눔 템플스테이를 강화해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공상경찰 관처럼 정신건강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템플스테이가 큰 도움이 된다"며 "명상과 차담, 108배를 통한 내면 수양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경 스님은 이어 "소외계층별로 맞춤형 나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더 많은 지자체 및 정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템플스테이를 통해 사회공헌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사업단은 내년 2월까지 전국 50여 사찰서 '겨울 특별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여기에는 2020년 새해맞이를 겨냥한 프로그램이 많다. 해돋이 보며 소원 빌기, 새해맞이 타종, 해맞이 포행, 새해 소원을 담은 단주와 연꽃 만들기 등이 있다.

겨울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려면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사찰명이나 프로그램 제목 등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軍지휘관 '종교차별 예방 업무편람'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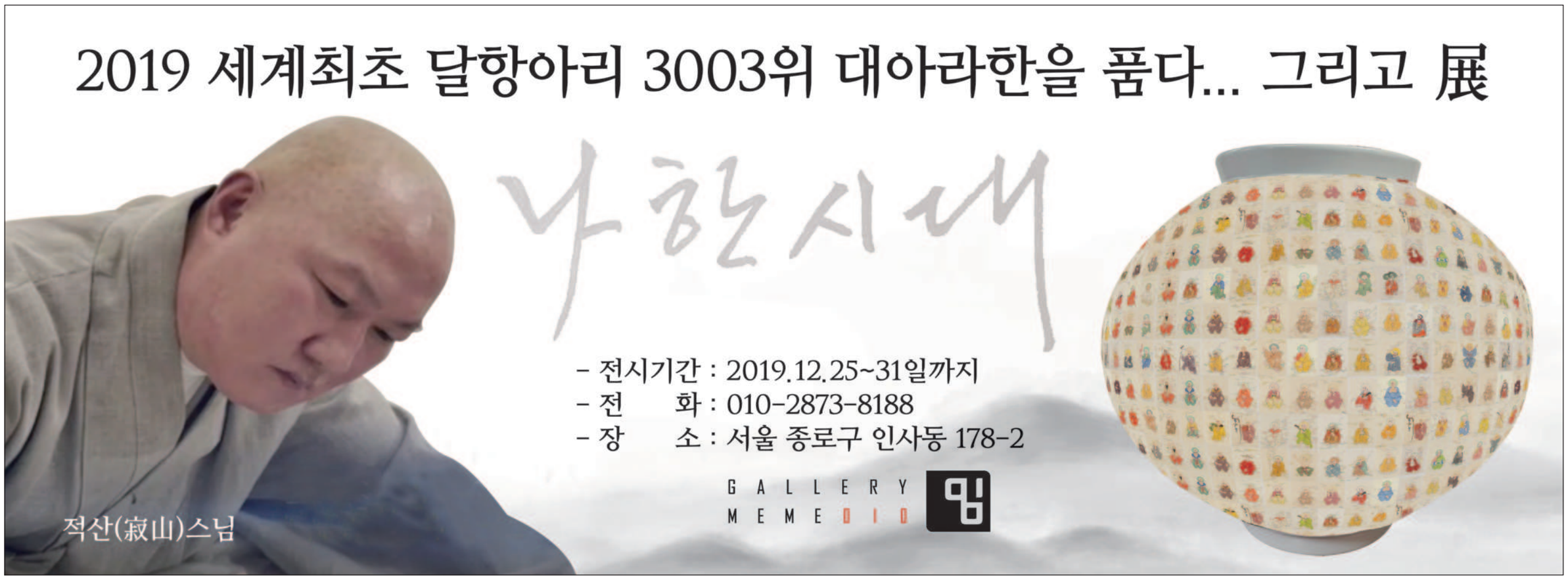
군대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해 군지휘관들이 어떻게 부대 운영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지침서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군대 내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업무편람〉을 군 지휘관용으로 공동 제작해 배포한다"고 12월 10일 밝혔다.

문체부와 국방부는 최근 더욱 높아진 군대 내 종교의 자유에 대한 군 장병들의 눈높이에 부응해 장병들의 종교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번 업무편람을 제작했다. 12월 중순에 전군을 대상으로 총 2만 부를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편람을 통해 군대 내에서 허용되는 종교 활동의 범위 등을 명확히 안내해, 종교차별 예방 노력이 군대 내 종교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편람은 △군대 내 종교차별 예방의 필요성 △종교차별 사례 △국내외 판례 등을 간략하면서도 폭넓게 담았다. 내용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종교차별자문위원회, 종교학자,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등이 감수를 했다.

신성민 기자



평창 월정사 주지에 정념 스님 당선

12월 12일 산중총회서 만장일치로 선출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에 정념 스님<사진>이 다시 당선됐다. 월정사는 12월 12일 경내에서 차기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현 주지 정념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정념 스님은 "한암대종사, 탄허대종사, 만화대선사의 수행과 가람수호 정신을 계승해 한국불교 등불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념 스님은 만화 희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0년 사미계를, 1985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오대산 상원사서 수선안거 이래 49안거를 성만하고, 상원사 주지와 나눔의 집 이사, 제11~13대 중앙종회의원,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장, 강원불교연합회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를 맡고 있다. 2015년에는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백년대계본부장직을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포교부장에 정인 스님 임명

12월 12일, 포교연구실장에는 묘광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12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실에서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에 정인 스님<사진 왼쪽>, 포교연구실장에 묘광 스님<사진 오른쪽>을 임명했다.



신임 포교부장 정인 스님은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걱정과 함께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포교중점 사업을 완수하고 7대 포교원 성과를 정리하는 한해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포교원과 종단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인 스님은 혜창 스님을 은사로 1995년 수계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포교원 포교연구실장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상주 황령사 주지를 맡고 있다.

신임 포교연구실장 묘광 스님은 법타 스님을 은사로 1996년 수계했으며, 2017년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동두천 중화사 주지를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달력사업 국고 횡령 의혹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재가단체 조계종 고발 건 불기소 처분

일부 재가단체들이 조계종출판사 前 대표이사 자승 스님 등을 검찰에 고발한 건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됐다.

달력사업을 관장하는 조계종 ㈜도반H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해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제작 목적으로 지급된 국가보조금을 횡령했다는 고발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를 결정했다.

지난 9월 정의평화불교연대와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1500부를 자승 스님이 개인적으로 편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조계종은 템플스테이 홍보용으로 제작한 2000부의 달력은 템플스테이 주요 관계자들에게 발송하고, 방문 내빈용, 온오프라인 이벤트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계종출판사 자체적으로 공공목적 기금 확보를 위해 판매용으로 제작한 3000부의 달력은, 사업 종료 후 수익금 4000만원을 논산 육군훈련소 군법당 건립기금으로 기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3년도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제작비 1억 원에 대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조계종출판사, 제작업체인 다혜미디어 등에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제작된 달력의 사용처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무원장이 가지는 지위와 대표성을 감안할 때 '총무원장 자승' 로고가 인쇄된 달력을 제작해 무상 배포한 사실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윤호섭 기자**

내년 韓中日·韓日교류대회 국내 개최

한중일 우호교류 통도사·한일대회 금산사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내년 한중일불교 우호교류회의와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가 모두 국내에서 열린다. 사진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2019년도 제3차 이사회.

동북아시아 불교의 우호교류를 위해 각국이 함께하는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와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내년에 국내에서 개최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는 12월 10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2019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내년 국내에서 개최할 제23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일정을 일부 공유했다.

종단협은 내년 한중일 교류회의를 10~11월 중 조계종 제15교구본사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제주도에서 3국 예비회의를 개최, 구체적인 일정과 주제를 확정키로 했다.

아울러 종단협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했다.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20% 증액된 11억4400만원,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172% 증액된 7억5700만원이다. 종단협은 이외에 한국대중불교불이종의 신규가입을 위한 심사위원단 보고를 받고, 만장일치로 가입을 결정했다. 또한 전반적인 정관 검토를 위한 기구인 '정관개정위원회'를 신설해 사무총장 지민 스님을 위원장으로, 조계종·천태종·진각종·관음종·원효종·보문종·원융종·법상종·총화종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2개의 집행부로 양분돼 종무행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태고종에 대해서는 내년

한중일 3월 예비회의 제주도
6월 한일대회 40주년 주제로
종단협 내년 예산 11억4천만
한일협 이사장 회성 정사 추천

2월 종단협 총회 전까지 집행부를 단일화하지 못할 경우 회원 자격을 유보키로 했다. 이날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과 제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이사회에 참석해 각자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회의 말미에는 지난 8월 청와대불자회장에 취임한 김조원 민정수석이 상견례 차 참석했다. 김 수석은 "부처님 말씀이 한반도에 온지 2000년이 넘었으리라 생각한다. 학계서는 다르겠지만 가야의 역사를 보면 그렇다"며 "중생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스님들에게, 국가 태평성대와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교계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종단협에 이어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도 같은 장소에서 2019년도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내년 제4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사업계획을 심의했다. 제40차 대회는 6월 8~10일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에서 '한일불교교류 40년을 되돌아보며'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금산사는 일본에 전해진 백제불교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대회 개최지로 정해졌다. 제40차 대회서는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비롯해 교류 40주년 식수 및 사진전, 학술발표회, 공동선언문 발표 등이 진행된다.

한국과 일본불교의 가교역할을 할 청소년 교류사업은 내년 7월 첫 발을 뗄 전망이다. 양국은 2016년부터 청소년 교류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으나 그동안 실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회원종단 청소년을 추천받아 소규모로 교류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한일불교협의회는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의 후임으로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를 총회에 추천키로 했다. 부이사장 인구 스님(보문종 총무원장)과 사무총장 향운 스님(원효종 총무원장)은 유임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임원진 변경은 내년 2월 열리는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청하문도회, 부다가야 사찰부지 기증

통도사 백만원력결집불사 동참
1억 약정·인도 부지 2000평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사진 왼쪽)이 백만원력 결집불사 기금 1억 원을 약정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기념촬영 하는 모습.

통도사 화엄 산림법회에 동참한 불자들이 각자의 휴대전화를 꺼내 조계종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후원하기 위해 ARS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이후 불자들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일제히 손을 모아 합장하고 부처님의 도량이 곳곳에 세워지고 승가를 공양하는 복지사업이 원만히 이뤄지길 발원했다. 1만 화엄불자들이 종단의 대형불사를 원만회향하기 위한 백만원력으로 거듭났다.

조계종 백만원력 결집위원회(위원장 금곡)는 12월 8일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 '백만원력 결집 대법회'를 봉행했다. 백만원력 결집법회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종단 원력 모으기 일환으로, 조계종 집행부가 전국 각 교구본사를 순회하며 불사의 가치를 알리고 원력 동참을 권유하고 있다.

통도사는 이날 법회에서 1억 원 백만원력 기금을 약정했으며, 청하문도회는 인도 부다가야 사찰 분황사의 건립부지를 기증해 불사의 의미를 더했다. 인도 부다가야 사찰 건립부지는 청하문도회와 붓다팔라 스님이 중심이 돼 인도 마하보디 대탑 남쪽 지역에 마련한 30억 원 상당의 2000평이다. 청하당 성원 스님의 유지를 이어 인도에 한국사찰을 짓기 위해 시작한 불사이며, 불사를 진행하던 가운데 종단의 백만원력결집불사 소식을 접하고 한국불교 세계화에 밑거름이 되고자 기증하게 됐다.

통도사는 이어 백만원력 결집불사 교구추진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교구별 추진위원은 본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 거점 사찰에서 활동하며,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안내하고 함께 동참하도록 앞장선다. 추진위원은 유혜연(보리수) 통도사 관음회장을 비롯해 총 21명이 선정됐다.

추진위원 가운데 이숙례(덕선화) 불자는 대표로 선언문을 낭독하며 보시바라밀 실천으로 부처님 앞에 대승원력 보살로 거듭날 것을 서원했다. 참석한 화엄산림 대중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도 이어졌다. 불자들은 안내에 따라 후원 ARS 번호를 눌러 한마음으로 후원금을 전달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대회사에서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매일 모으는 작은 성금이 한국불교 중흥의 시작이자 큰 힘이 된다"며 "여기 모인 통도사 사부대중이 힘을 모아 함께 지속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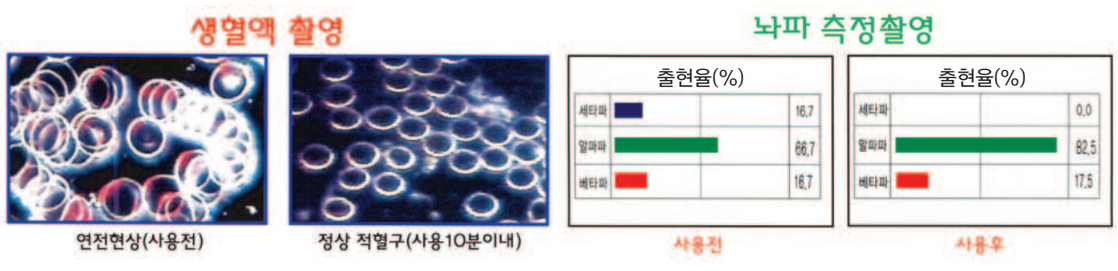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건립,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입상, 계룡대 영외법당 건립, 신도시 포교당 설립, 불교전문요양병원 건립 등 한국불교 과제를 차례로 설명하며 백만원력 결집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 미래와 중흥을 위해 다시 뛰어야 할 때"며 "백년대계를 위해 출발하는 중요한 시점에 함께 하자"고 권선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양치후 먹었더니 식중독·배탈·설사가 없어지는 치약

원래의 세정목적 외에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대장균(식중독균), 포도상구균(화농성세균) 99.9% 정균 감소 가능과 탈취 75%, 음이온 134cc, 원적외선방사 90.2% 의 기능으로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체험수기 개발자인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BLOOD MATE®사용후 6년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단 한번도 몸살, 감기를 앓아누워본 적이 없으며 안경을 써야 신문을 봤는데 현재는 안경없이 신문을 보고 코막힘이 없고 가래나 누런코도 나오지 않습니다.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비듬, 발뒷굼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특히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화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허리, 목, 어깨의 통증을 개선하는 효과

BLOOD MATE® ●강비누:120g 개당 25,000원 ●순비누:120g 개당 10,000원

양치후 뱉어내지않고 먹었더니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지고
숙취에 먹었더니 속이 편안해지며 술이 깨면서 정신이 맑아진다.

ORAL MATE®(치약)는 구강건강(잇몸 붓는것, 피나는것, 아픈것, 이시린것 등)은 기본이고 잇몸이 튼튼하고 치태가 끼지않고 구취가 없으며 하루종일 입안이 개운합니다.
식후에 바로 양치하고 먹었더니 속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ORAL MATE® 치약 120g 할인가 개당 15,000원

위와같이 BLOOD MATE®, ORAL MATE®가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공산품인 세정용 비누가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의약외품인 치약이 배탈, 설사, 식중독이 없어지고 구강건강을 지켜준다면

이는 식약처가 과대, 과잉광고로 단속을 하여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진위를 확인하여 오히려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지원, 보호,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요 국가 산업발전, 해외수출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상월선원, 대중 수행 · 기도처로 '자리매김'

한 달 맞은 위례천막결사 성과와 의미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당신이 보리수 아래서 선정에 들며 맹세하듯 저희도 당신을 따라 맹세합니다. 이 자리에서 내 몸은 말라버려도 좋다. 가죽과 뼈와 살이 녹아버려도 좋다.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

지난 11월 11일, 위례천막결사 상월선원에 방부를 들인 9명의 스님들이 무문관 동안거 정진에 들어가며 부처님에 고한 서원이다.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성곡(용주사) · 호산(수국사) · 무연(해인사) · 심우(고불암) · 진각(봉은사) · 도림(정수사) · 인산(송광사) 스님은 현재 눈과 비, 최소한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상월선원에서 정진을 이어가고 있다.

9명의 스님들은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 △하루 한 끼 공양 △옷 한 벌만 허용 △양치만 허용하고 삭발 · 목욕 금지 △외부인 접촉 금지하고, 천막 벗어나지 않기 △묵언 등을 골자로 한 청규를 정하고 이를 지키며 수행 중이다.

또한 이들 스님들은 규약을 어길 시 조계종 승적에서 제외한다는 각서와 제적원까지 제출했다. 생명과 같은 승적까지 걸고 수행에 들어간 것이다.

'열린 결사'로 외호 나선 대중들

9명 스님들의 안거 입재 이후 한 달. 위례천막결사 상월선원은 9명 스님들의 용맹정진 수행처이자 외호 대중들의 야단법석 기도 · 수행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중들은 '열린 결사'로서 9명 스님들의 외호에 나선 것이다.

상월선원 일정표에 따르면 외호대중들이 천막법당에서 기도와 법회를 시작한 것은 11월 15일부터다. 이후 전국 사찰을 비롯해 동국대 등 종립학교, 포교단체에서 휴일없이 상월선원을 찾아 기도와 정진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상월선원을 찾은 사찰과 단체는 450여 곳으로, 선원 측에 따르면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이 다녀가고 있다. 한 달이 지난 12월 12일 현재 상월선원에 다녀간 전국의 스님, 불자들은 선원 측 추산 5만 명에 달한다.

외호 대중을 천명한 사찰들도 게으름없이 정진 중이다. 조계사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상월선원을 찾아 정진하고 있다. 봉은사는 둘째, 넷째주 목요일에 개최하던 상설음악회 '박범훈의 소리길 여행'의 장소를 상월선원으로 옮겼으며, 매주 토요일마다 봉은사 사부대중들의 정진 동참도 이뤄지고 있다.

12월 7일에는 조계사, 봉은사, 봉국사 대중을 중심으로 첫 철야정진이 봉행됐으며, 12월 14일에는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철야정진으로 9명의 스님들을 외호했다.

자원봉사와 보시도 위례천막결사를 이끄는 힘이다. 용인 대덕사 명선다례원은 매일 자비로 다과 물품을 구입해 선원을 찾은 대중에게 보시하고 있다. 봉은사와 봉국사에서도 대중공양을 올리고 있으며, 화장실 · 법당청소 자원봉사자들도 20여 명에 달한다.

'상월선원천막결사' 유튜브 채널과 밴드 개설도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대의 결사 모습이다. 특히 현재 1300명이 구독 중인 '상월선원천막결사' 유튜브 채널은 선원 일정 공지부터 정진 현장을 생생하게 불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실제 유튜브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 상월선원 정진법회에 참여한 젊은 불자도 있었다. 지난 11월 23일 현장에서 만난 김규리(30, 서울 성북구) 씨는 "상월선원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인데 흥미가 생겨서 직접 상월선원을 찾게 됐다. 오랜만에 교외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소원등도 달아 즐거웠다"고 말했다.

'대중 무문관' 열기 뜨겁다

일반 대중이 스스로 무문관 수행을 체험해보는 체험관 '대중 무문관'도 주목해야 한다.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12월 7일 공식 개원한 '대중 무문관'은 불교오피니언 리더 윤성이 동국대 총장,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선상신 前 불교방송 사장, 임명배 前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가 입방해 1박 2일동안 수행하며 시작을 알렸다.

12월 8~9일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수석부의장 장명 스님, 차석부의장 법원 스님이 '대중 무문관'에서 수행 체험을 진행했으며, 13~15일엔 조계사불교대학 최고위 과정 여성불자 4인이 정진에 동참했다.

범해 스님은 "상월선원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이 천막안거 결사를 시작한 것은 한국불교 수행풍토를 새롭게 일신하고자 하는 원력을 세웠기 때문"이라며 "종회의장단도 한국불교를 위해 새로운 수행문화를 일으키는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동참 취지를 설명했다.

부의장 법원 스님도 "현재 상월선원에서는 전국 각지 대중들이 찾아와 수행 · 기도 정진하며 새로운 수행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수행문화의 변화를 체험해야 종단 종책에도 적용할 수 있다. 종단 사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스스로 열심히 정진해보겠다"고 밝혔다.

대중 무문관에서의 수행 체험은 꾸준히 이어진다. 실제 내년 1월 초에는 중앙종회 분과위원장 각림 · 함결 · 제정 · 만당 스님이 대중 무문관 방부를 들 예정이다.

결사 의미 조명 노력도

유례가 없는 수행 · 기도 · 봉사의 현장이 되고 있는 위례천막결사의 의미를 조명하는 노력도 불교 전문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불교학자 10여 명이 위례천막결사의 의미를 조명하는 학술토론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길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는 "위례천막결사는 이전에 있었던 결사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결사"라면서 "새로운 수행 · 신행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위례천막결사의 의미를 역사적 · 교학적 측면에서 조명하고 논의해야 필요가 있다. 전문학자 2~3명의 주제발표부터 종합토론까지 이어지는 학술토론회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총도감을 맡고 있는 혜일 스님(성남 봉국사 주지)은 이 같은 대중들의 호응에 놀라움을 감추지 않으며, 상월선원의 정진이 한국불교 중흥의 계기가 될 것으로 봤다.

혜일 스님은 "천막법당 정진부터 대중 무문관 체험까지 사부대중의 호응이 이처럼 뜨거울 줄 몰랐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일체 동원 없이 자발적으로 선원을 찾아 정진하는 대중을 보며 이번 결사가 한국불교 수행 · 신행문화를 일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 결사가 원만 회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외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숫자로 보는 위례천막결사 상월선원



- 9명 상월선원 동안거 정진 스님들
- 450여 곳 한 달간 선원을 찾은 사찰 · 단체
- 1000명 이상 하루 평균 선원을 찾은 대중들
- 1300명 '상월선원천막결사' 유튜브 채널 구독자
- 50000명 이상 한 달간 다녀간 사부대중

(12월 12일 현재)

11월 11일 동안거 입재 이후
전국 450여 사찰서 5만명 찾아
기도 · 수행 · 음악 조화 '야단법석'
12월 7일엔 첫 철야정진 진행
'대중 무문관' 운영… 체험 시작
천막결사 의미 학술 조명 시도

"비움서 오는 행복, 금강경 독송 공덕"

법산 스님 금강경 5만 독송
12월 8일 봉은사서 '기념법회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은 〈금강경〉 5만독의 공덕을 회향하며 비움의 행복을 설명했다.

2001년 11월 17일, 한 스님은 부처님 앞에서 〈금강경〉 10만독을 서원했다. 하루에 1독씩 한다면 무려 274년이 걸리는 일이었다. 매일 10독씩 한다 쳐도 28년 가량이 걸리는 대발원이었다.

60세가 넘어 긴 교직생활을 마무리 한 스님은 조용히 지리산의 선원에 들었다. 부처님께 서원한 〈금강경〉 독송을 이어가기 위해서였다. 하루에 많게는 25독까지, 스님의 정진은 이어졌다. 매일 틈틈이 행주좌와 〈금강경〉을 독송한 스님은 일흔이 넘은 나이에 드디어 〈금강경〉 5만독을 이뤘다. 바로 조계종 대종사이자 현재 동국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법산 스님의 이야기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12월 8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금강경 5만독 성만 기념 특별 일요법회'를 열었다. 이 법회서는 법산 스님이 십수년간 이어온 〈금강경〉 독송에서 얻은 깨달음을 대중과 함께 나누는 법석이 펼쳐졌다.

"선(禪)을 아무리 오래해도, 〈금강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한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일어나는 순간, 새벽에 샛별이 빛을 비추며 모든 업식이 딱 떨어진 돈오돈수의 순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비우지 못하면 걱정과 근심의 번뇌에 사로잡힙니다. 모든 시공간을 뛰어넘어 딱 인식이 바뀌는 그 순간이야 말로 행복입니다."

법산 스님은 〈금강경〉은 바로 '비움의 도리'이자 '비움의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벽암록〉에 나오는 덕산 스님과 노파의 일화를 들었다. 이 일화는 '주금강'이라 불릴 만큼 〈금강경〉에 관한 독보적인 덕산 스님이 점심 때 호떡을 팔던 노파를 만나 나눈 대화다.

법산 스님은 "금강경에 이르길 '과거심불가득 현재심불가득 미래심불가득인데 스님은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시렵니까(點心)라는 질문에 덕산 스님이 거기에 콱 막혔다. 결국 한 생각 버릴 줄 알아야 하고 이것이 바로 상을 내려놓는 참회다"며 "이뭣고를 해도 참회가 되고, 〈금강경〉을 읽어도 참회가 되고 끊임없이 나를 비우고 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위상 강화, 대사회 운동서 시작"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12일 포교원 세미나서 주장
전통 위상 높지만 사회위상 낮아
대사회운동 전개 필요성 제시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2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도의 가치관 바로세우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사진〉가 '한국불교에서 조계종단의 위상과 역량' 발표를 통해 조계종 위상을 평가하고 역할에 대해 주문했다.

김 교수는 조계종의 종교적 위상으로 "조계종은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통해 사회적 결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사회적 서비스가 종교가 아닌 공공서비스로 대체되며 종교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당한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종단 차원의 위상 유지를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수행의 위상이 더욱 고양되기 위해서는 수행지도력이 사회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고, 간화선을 바탕으로 한 수행전통과 체계를 확실히 하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종교적 위상 확대를 위해서는 불교운동을 거시적 포교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각과 실천', '문화와 치유', '현대인을 위한 팔정도'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활용한 대사회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덕현 기자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04 무진향 031)470-3118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북한이탈민 증가, 불교계 관심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12월 9일 불교사회복지포럼 개최

장학 · 의료 서비스 지원 요청
공공조직 · 불교 보완 방법 모색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12월 9일 ‘북한이탈주민 관련 활동에서 불교계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불교사회복지포럼.

현재 3만 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불교계가 국내 정착 지원체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학계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은 1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북한이탈주민 관련 활동에서 불교계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불교사회복지포럼을 개최했다. 발제는 조성희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정은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박현숙 강원남부하나센터장,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조성희 교수는 먼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불교계 활동을 짚었다. 조 교수에 따르면 불교계는 하나센터 5개, 종합사회복지관 2개, 케어센터 1개, 북한이탈주민 쉼터 1개, 기타 단체 3개 등 총 12개의 기관 · 단체가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조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의 70%가 여성이다. 이 점을 고려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들은 대부분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해 관계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찰 중심의 자조집단과 지지모임을 운영하는 게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청소년 · 노인 ·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교계가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전망 확보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경제적 자립능력이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북한과 중국 등 가족과 떨어져 산다는 점에서 지원이 절실하다”며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지망을 통해 지속적인 장학금 지원과 의료서비스 제공 등으로 통일시대 가교역할을 불교계가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철 교수는 이 같은 발제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불교계의 역량을 짚으면서 범종단적인 지원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탈북과정에서 이미 많은 주민들이 이웃종교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원 입소 후에도 이들 종교단체와 지속적 관계를 맺는다. 이런 구조적인 환경 때문에 불교계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여건이 있다”며 “또한 이와는 별개로 정착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사업을 위한 사찰의 참여, 사찰신도들의 모집에 어려움이 많다. 불교계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향후 북한이탈주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면서 통일 이후를 대비한 포교정책 마련을 위해 불교계가 적극적인 지원활동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범종단적 지원체계 구축 △각 지역 대표사찰을 북한이탈주민 긴급 지원센터로 지정 △스님과 불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계층별 특성 고려한 전문상담 및 불교체험 센터 개소 △공공지원센터와 유대관계 통한 활용법 모색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불교계는 북한이탈주민 전담 조직이 없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종책에 반영하거나 불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조차 전개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게 현실”이라며 “불교계가 독자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할 순 없다. 불교계가 할 수 있는 장점과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고려해 상호 보완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매년 1000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고 있다.

대불련총동문회 제29대 회장에 홍경희 씨

12월 7일 임시총회서 선출…“부처님 심부름 생각” 소감 밝혀



대불련총동문회 29대 회장에 홍경희(서울대 74학번, 사진) 씨가 선출됐다. 대불련총동문회는 12월 7일 오후 2시 서울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와 송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대의원 115명 중 80명이 참가해 투표했다. 앞서 29대 대불련총동문회 회장 선거에는 홍경희 신임회장과 유선재 씨가 입후보 했으며, 홍 신임회장은 48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홍 신임회장은 “역대 회장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초석을 다져온 전임 회장님의 사업을 물려받아 실행하는 것이 차기 지도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10년을 계획한 플랜들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업 실행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지부와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또 홍 신임회장은 “조직 구성원들의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재정의 안정화를 추진하겠다”며 “동문회는 현재 학번별 지부별 등 씨줄과 날줄로 탄탄한 조직으로 나아가고 있다. 진리의 벗이요 얼이며 빛으로 모인 여러분의 탄탄한 손길을 단단히 잡겠다. 서로서로에게 화엄장이 되어 세상 밝히는 원력 불사의 결실로 후배들에게 희망과 귀감이 되는 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신임회장은 “어느 자리에 서 있거나 어떤 이름을 얻거나 제가 조직위원장 시절 부처님의 심부름이라 생각한 대로 열심히 회장 소임에 임하겠다. 모든 것들의 행복을 위하여 떠나라하신 부처님 말씀을 간직하고 여러분을 믿고 뚜벅뚜벅 가겠다”고 다짐했다.

홍 신임회장은 서울대 국악과 재학시절 서울대 총불교학생회에서 활동했으며 이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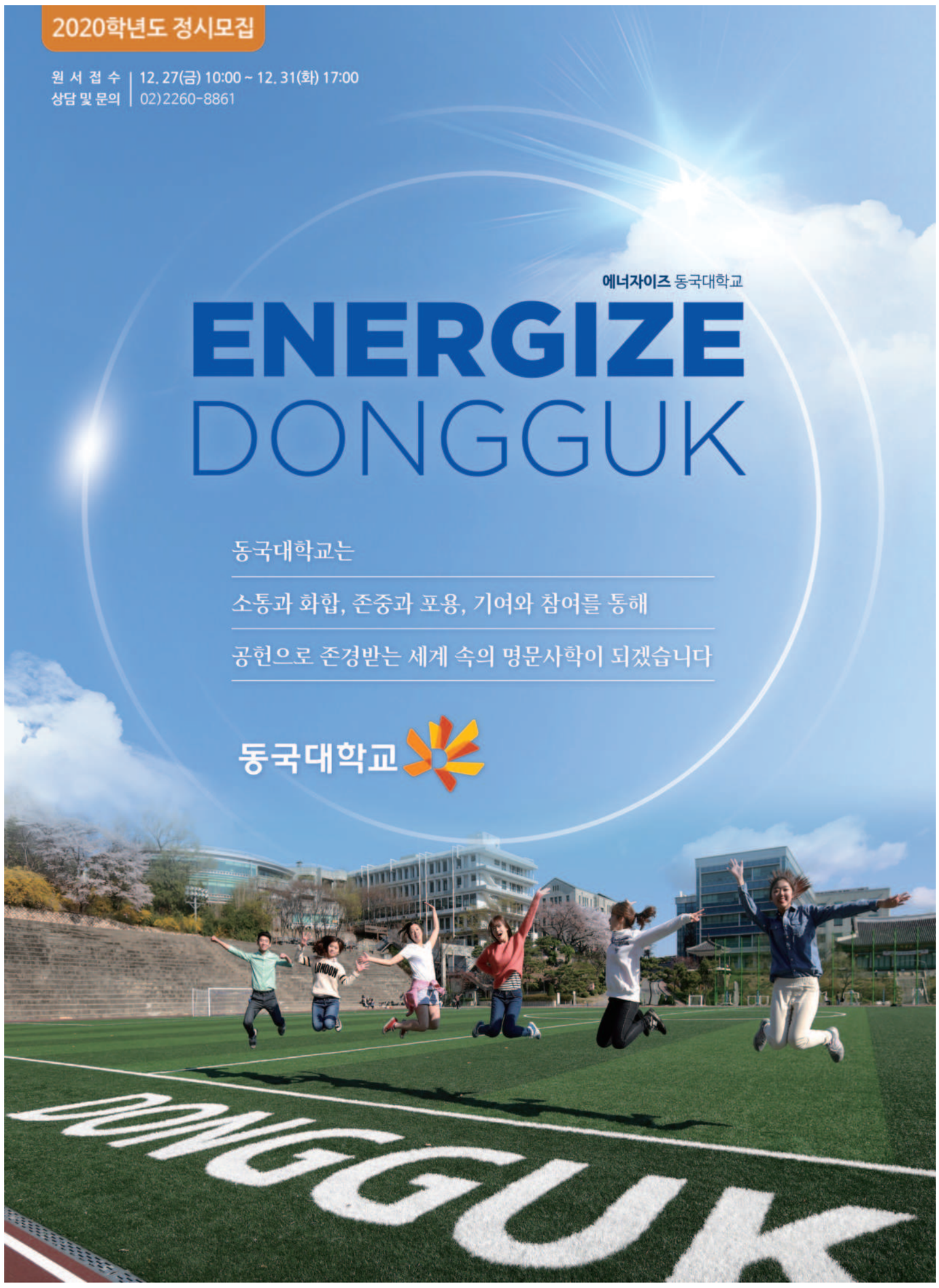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 이어 열린 송년법회에서는 대학전법지원단의 동아리방 리모델링 추진 영상인 ‘불타는 동아리방’ 영상이 공개됐다. 이어 정성룡 서울교대 불연 동문회장이 서울교대 불교동아리 복원사례를 발표했다.

또 올한해 대불련총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정성룡, 최은희, 장혁, 유진우 씨에게 공로상이 수여됐다.

송년법회 2부에서는 윤제철 씨의 만해선사를 기리는 시 낭송을 비롯해, 이화여대 학생들의 한국무용 공연과 서울대 총불교학생회 조수황 전 회장의 판소리, 중앙대 불교학생회원들의 붓붓밴드 공연 등도 펼쳐져 감동을 더했다.

백효흠 28대 대불련 총동문회장은 “대불련총동문회 창립 50주년을 넘어서 처음으로 여법우가 회장에 선출되는 경사”라며 “경선이지만 화합을 통해 선후배가 하나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이 됐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로터스월드, 미얀마 정수시설 6곳 설치

12월 5일 완료, 유명 달리한 후원자 유지 실천



바호시 공립학교 직원들이 정수시설 앞에 서 있다.

국제구호NGO인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가 12월 5일 미얀마 양곤과 바고지역 사원 및 공립학교 6곳에서 정수시설을 설치했다.

이번 정수시설 설치는 10월 유명을 달리한 한 후원자가 미얀마 등 저개발국가에 후원 사업을 펼치고 싶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유족들이 로터스월드에 미얀마 정수시설 준공을 요청해 이뤄졌다.

로터스월드는 후원자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이 후원자의 49재날인 12월 10일 이전에 총 6곳의 정수시설을 완료하기로 결정, 가장 상황이 열악한 ‘양곤 마잉 난나니 사원학교’ 등 6곳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설치에 들어갔다. 이번 정수시설 설치로 6개 학교 총 4516명의 학생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다.

로터스월드가 설치한 정수시설은 활성탄 정화시설과 자외선 살균소독기, 울트라 필터, RO 필터가 결합된 형태로 오염된 물의 정수나 염분 제거,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등에 뛰어난 성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정수시설의 내구성과 수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독일, 미국, 일본, 대만 등 주로 선진국들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하였으며 지속적인 A/S 등을 위해 미얀마 현지에서 수리가 가능한 부품들로 정수시설을 구성했다.

정수시설을 지원 받은 ‘짜이끌럿 난나니 학교’의 교장인 ‘도 유자 나 와티’ 스님은 “학생 350명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신축된 정수시설의 혜택을 보다 많은 아이들이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사를 밝혔다.

한편, 2010년 미얀마 지부를 설치한 로터스월드는 마그웨이주 론하우 마을에서 축분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바이오플랜트를 건립하고, 양곤주 쭝글리마을에서 자야 스웨따웅 사원학교를 신축하는 등 미얀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육해공 장군, 부처님께 진급을 고합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12월 5일 장군 진급 고불식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12월 5일 용산 국방부 호국 원광사에서 ‘2019 장군 진급 불자 고불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고불식에는 11월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불자장군 22명 중 육군 준장 고현석 · 조재식, 공군 준장 류진상 등 18명이 참석했다.

이날 군종특별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선물한 장군 지휘봉을 불자장군들에게 전달했다. 선묵 혜자 스님의 저서 〈평화의 불 수놓다〉와 호신불카드, 파랑새 액자도 전달됐다.

군종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은 “타인이 하는 일에 끌려가지 않고, 의연히 대처하고,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본심으로 주체가 되어있으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행복해질 것”이라며 “국군의 중심 계룡대에선 출입절차로 인해 신행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육해공군 삼군영외법당을 건립불사 원력을 세웠다”고 관심도 당부했다.

군종교구 부교구장 성광 스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지혜와 광명이 온누리에 다하길 축원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장군진급자 대표로 나선 고현석 장군은 “주말과 새벽에도 언제나 법당문이 항상 열려있드시 지휘봉에 적힌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는 말을 깊이 세기고 생활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날 진급한 불자 장성들은 “앞으로 불교를 더욱 더 배우고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며 “군의 발전은 물론, 군불교 발전을 함께 염원하고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원했다.

한편, 올해 장군 진급자는 총 70명으로 이중 육군 17명, 해군 1명, 공군 4명 등 22명이 불자 장군이다.

노덕현 기자

한국비구니 살아있는 역사 명성 스님



명성 스님은… 1930년 경북 상주에서 출생, 1952년 해인사 국일암에서 선행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58년 선암사에서 성능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고, 선암사 강원 강사를 역임했다. 이후 서울 청룡사 강원 강사를 거쳐, 1970년 운문사 승가학원 강사로 취임. 1977년부터 운문사 주지 겸 학장으로 주석하면서 2019년 현재까지 2,100명의 졸업생과 16명의 전강제자를 배출하는 등 비구니 수행과 교육에 헌신하였다. 아울러 40여 동에 이르는 전각과 요사채를 신축, 증축, 보수하여 운문사를 전국 최대 규모의 비구니교육기관인 운문승가대학으로 발전시켰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8 · 9대 회장을 역임하는 한편 현재는 운문사 회주, 한문불전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 · 박사학위 취득. 저서에 〈초능변식의 연구〉 〈삼능변식의 연구〉 〈불교학논문집〉 〈화엄학개론〉, 역서로 〈구사론대강〉 〈유식강요〉 〈아비달마순정리론〉, 편서로는 〈사미니율의〉 〈제경서문〉 등 다수가 있다.

경상북도 청도군 호거산 자락엔 한국을 대표하는 비구니 도량 운문사가 있다. 천년 소나무숲을 비롯해 생태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자연 속에 깃든 운문사는 신라의 원광국사, 고려의 원응국사와 일연 스님 등이 머물렀던 역사적인 도량이다.

1950년대 불교정화 이후 비구니도량으로 혁신됐으며, 1958년 비구니 전문 강원이 개설된 이래로 2천여 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다. 현재 운문사는 승가대학과 한문불전대학원, 그리고 선원 등을 갖춘 명실상부한 한국 최대 비구니교육도량으로 한국불교 미래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운문사가 한국 비구니교육의 큰 마당이 되기까지는 비구니교육의 새로운 틀을 세운 회주 명성 스님의 쉼 없는 원력이 있었다. 남을 가르치려면 자신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남다른 소신과 모든 일에 진심을 다하라는 즉사이진(卽事而眞)의 철학으로 한국불교 비구니교육의 새로운 기틀을 이루어낸 명성 스님의 대작불사라고 할 수 있다. 스님의 대작불사는 운문사는 물론 한국불교 승가교육의 진일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한국불교 비구니역사와 함께 걷고 있는 명성 스님이 사바의 세월로 구순을 맞았다. 한 세기를 향해 걷는 대강백의 생애를 짚어본다.

한국비구니 승가의 혁신가, 위대한 스승

"평범한 스승은 말을 하고, 훌륭한 스승은 설명을 하고, 뛰어난 스승은 모범을 보이고, 위대한 스승은 감화를 준다고 합니다."

명성 스님이 생각하는 '스승'은 그랬다. 오늘에서 바라본 스님의 모습이 또한 그랬다. 위대한 스승이었다. 위대한 스승이 되기 위해 살고 있다.

1970년, 명성 스님이 운문사 강원에 강주로 왔을 당시만 해도 강원 교육은 마을 서당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명성 스님은 고착화된 주입식 교육의 틀을 깨고 모든 수업을 논강식 교육 방법으로 바꾸었다. 또한 절집 공부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외학[外典]과의 연계성을 강조하여 미술, 외국어, 심리학, 철학, 유학, 다도, 꽃꽂이, 피아노, 서예 등 종합적인 학문을 가르쳤다.

"출가자는 모든 면에서 뛰어나야합니다. 그래야 인천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출가자라는 이유로 여성성을 발휘할 수 없었던 시절에서 명성 스님은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을 살려 포교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승가 교육 현장에 신선한 충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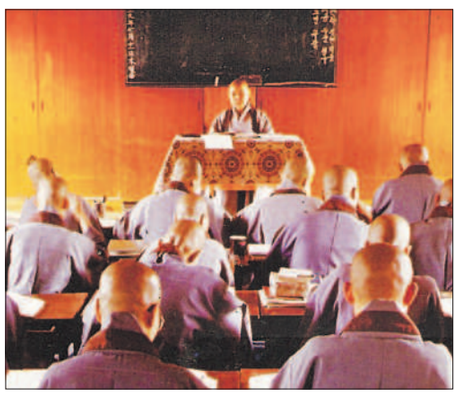
'0.1mm'의 어긋남도 지나치지 않는 엄격한 스승이었지만 그 엄격함 속에는 자유롭고 열린 생각들이 함께 있었다. 외전에도 자유로웠던 명성 스님은 학인들의 기상 시간까지도 새벽 3시에서 4시로 바꿨다. 학인들의 효율적인 공부와 능률을 위한 혁신이었다.



서예도 일가를 이룬 명성 스님.

운문사 1970년 강주 첫 인연
49년 동안 2100여 제자 길러
음악 외국어 등 외전도 교육
운문사 세계적 교육도량으로

비구니가 비구니 전강 새 전통
끊긴 비구니 강맥 다시 이어
이부승(二部僧) 제도 부활 계기
구순 기념 〈법계명성 전집〉 출간



강원에서 강의하는 명성 스님.

"오래 앉아있다고 해서 반드시 공부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 안자고 버티기만 하는 것이 용맹정진이 아니듯 공부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스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의 자유롭고 열린 생각은 새로운 승가교육의 전범이 되기에 충분했다. 형식과 내용 모두 앞선 생각이었다. 그 보다 주목할 것은 새로운 생각을 과감하게 실천에 옮겼다는 것이다. 계율과 청규 등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불가적 삶에서 강원의 틀을 깬 것은 소신이었다. 명성 스님은 시대를 앞선 교수법으로 운문사의 강원을 이끌어 오늘날 세계적인 비구니승가교육의 장으로 일궜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비구니 스님 6000여 명 중 2100여 명이 운문사승가대학을 거쳐간 명성 스님의 제자들이다.

"제가 출가자로 살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2000명이 넘는 제자들이 한국불교를 위해 여러 곳에서 여러 불사를 이어가며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보람은 그 제자들이 이제는 저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한국비구니사의 새 역사, 이부승 제도 부활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힘든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학인들과 대중이 함께 살다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힘든 일이었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힘들어도 오래가지 않았고 말썽피우는 학인이 있을 때는 저도 힘들었겠지만 누구나 근본을 보면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대중을 끝까지 내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스승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성 스님은 우리나라 최초로 비구니가 비구니로부터 전강을 받는 전통을 만들어 한국 비구니사에 새롭고 커다란 역사를 남겼다. 1983년 명성 스님은 평소 존경했던 화산당 수옥 스님에게 법제자로 위패 건당을 하면서 자신의 뿌리를 만들고(수옥 스님은 금룡, 혜옥 스님과 함께 근대의 3대 비구니 강백 중 한 사람이다), 1985년 흥륜, 일진 스님 두 제자에게 전강을 함으로써 기둥을 만들었다.

이 전강 의식은 비구니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으로 한국비구니사에 기록됐다. 비구니 강사가 배출되어 비구니를 직접 가르치는 여법한 비구 · 비구니 '이부승(二部僧) 제도'가 되살아난 것이다. 끊어졌던 강맥이 다시 이어지고 한국비구니의 위상은 달라졌다.

비구니의 위상이 높아지자 종단에서도 비구니가 비구니에게 직접 계를 주는 별소계단(別所戒壇)이 만들어졌다. 2001년부터 다시 구족계 별소계단이 만들어져, 한국불교 교단의 한 축을 이루게 됐다. 이 과정에 수많은 비구니스님들의 노고가 있었고, 그 중심에 명성 스님이 있었다.

"법(法)자는 물 수(氵)변에 갈 거(去)자로 만들어졌습니다. '법(法)'이란 물이 흘러가는 이치를 말합니다. 물은 흘러가면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돌아가고 넘어가고 스며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멈추지 않고 가야 하는 길을 갑니다. 이처럼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쉼 없이 흘러가는 것이 법입니다."

명성 스님은 2007년 조계종 명사 법계에 품서되어 불교계의 큰 어른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UN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탁월한 불교 여성상'(OWBA)을 수상하는 등 세계 불교계의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다.

명성 스님 원력 · 공덕 · 교육불사 담긴 전집 발간

〈법계명성 전집 · 20권〉 발간
다큐 · 애니 · 오디오북 등도

반세기가 넘게 한국불교비구니 역사와 함께했고 49년 동안 운문사의 역사를 이끌어온 스님이 세수로 구순을 맞았다. 구순의 삶은 그 세월 자체만으로도 모든 것들의 표상과 우상이 될 수 있는 큰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그 세월은 한국불교와 한국불교비구니사를 관통하는 생생한 역사라는 점에서 또 한 번 그 가치를 가진다.

그 간단치 않은 개인의 생애와 엄숙한 역사를 낱낱이 20권의 책으로 묶었다. 〈법계명성 전집 · 20권 · 불광출판사〉이다. 〈법계명성 전집〉 편찬위원회(위원장 진광)가 출간한 〈법계명성 전집〉은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의 비구니스님 전집이다.

명성 스님의 구순을 기념하며 출간된 〈법계명성 전집〉은 명성 스님의 저술을 비롯해 연구 논문, 편서와 역서, 법문, 강의, 기고문, 공예 및 서예 작품, 사진집, 제자들이 전해 받은 가르침과 여러 인연 등 흩어져 있는 스님의 소중한 자료들을 묶어 모두 20권으로 구성했다.

이번 전집은 한 개인으로서의 명성 스님 생애와 사상을 총망라하면서도 한국 근현대 불교사와 한국 비구니사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법계명성 전집〉에는 명성 스님의 원력과 공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핵심 키워드는 '즉사이진(卽事而眞, 매사에 진실하라)'이다. 스님은 한평생 청정한 계율과 공심(公心)으로 진실하게 살아왔다.



12월 11일 운문사에서 열린 법계명성 스님 구순 축하 및 전집봉정식. 왼쪽에서 세 번째 명성 스님.

또한 제자들에게 자로 잰 듯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엄하게 교육하는 한편, 허물은 모두 덮어주고 모자람은 소리 없이 지원해주는 등 완벽한 스승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이번 전집 발간은 후학들이 모범으로 삼고 따르고 배워야 할 지남(指南)의 자료를 남기려는 데 가장 큰 뜻이 있다.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해 계승 발전시키고, 한국불교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가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운문사는 12월 11일 오전 10시 대웅보전에서 '법계명성 스님 구순 축하 및 전집봉정식'을 봉행했다.

법계명성 스님 구순 기념 기록물

편찬위원회는 〈법계명성 전집〉과 더불어 명성 스님 구순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등 기록물을 함께 제작했다.

모든 기록물은 유튜브 '운문사 명성 스님' 채널에 업로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목록은 다음과 같다.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다큐멘터리: 즉사이진의 삶-올해 구순을 맞은 명성 스님의 하루 일상을 온전히 기록했다.

△애니메이션(2화): 명성 스님의 일화를 젊은 세대에 친근감 있게 전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1화 〈감나무를 살게요〉, 2화 〈스님과 스마트폰〉

△영문판: 명성 스님의 삶을 평전소설로 엮은 〈구름 속의 큰 별 명성〉, 생애와 사유를 입체적 · 체계적으로 조명한 〈법계명성의 불교관과 비구니승가교육관〉을 영문으로 번역했다.

△오디오북: 평전소설 〈구름 속의 큰 별 명성〉

△법문 및 강의 영상: 아날로그 형태로 보관되었던 명성 스님의 법문 및 강의 자료 100여 개를 디지털로 컨버팅하고, 유튜브 채널(운문사 명성 스님)을 새롭게 개설해 업로드했다.

〈법계명성 전집〉 구성 및 제목

항목	권	책 제목	부제
명성 스님의 생애와 사상	1	후박꽃 향기	트랜스퍼스널 관점에서 본 명성 스님 평전
	2	법계명성의 불교관과 비구니승가교육관	
논문집	3	유식학 연구(唯識學 硏究)	석 · 박사학위 논문집
	4	화엄학개론(華嚴學槪論)	
	5	법계명성 화갑기념 불교학논문집	
	6	법계명성 고희기념 불교학논문집 1	
	7	법계명성 고희기념 불교학논문집 2	
	8	법계명성 구순기념 불교학논문집	
법문 · 강의 및 편서 · 역서	9	즉사이진(卽事而眞)	법문집
	10	사미니율의(沙彌尼律儀) · 제경서문(諸經序文)	편 · 역서 1
	11	구사론대강(俱舍論大綱) · 유식강요(唯識綱要)	편 · 역서 2
	12	아비달마순정리론(阿毘達磨順正理論) 1	편 · 역서 3
	13	아비달마순정리론(阿毘達磨順正理論) 2	편 · 역서 3
문집	14	구름 속의 큰 별 명성	남지심 평전소설
	15	여행일기	
	16	글 모음집	기고문 · 인사말 · 추모사 등
	17	꽃의 웃음처럼 새의 눈물처럼	명성 스님께 보내온 편지글 모음집
	18	스승님, 우리들의 스승님	향심으로 띄우는 제자들의 글 모음
도록 및 사진	19	공예 · 서예 · 수집품 도록	
	20	사진으로 보는 명성 스님의 생애와 운문사	

영축총림 新 역사서 내년 발간

통도사, 〈신편 통도사 사지〉 중간 발표회

통도사 창건부터 현재까지
역사와 신앙 중심사상 정리
총망라한 8편 및 부록 담겨
"문화재 가치 위상 올릴 터"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지난 8월 영축총림 통도사의 역사와 유·무형문화재 가치를 연구하고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문을 연 영축문화연구원이 〈신편 통도사 사지〉 발간에 앞서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방향과 편집 구성 등을 발표했다.

통도사(주지 현문)는 12월 7일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에서 '신편 통도사 사지 발간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신편 통도사 사지〉는 통도사의 역사는 물론 유·무형문화재, 역대 고승 및 재가 신행단체까지 통도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담는다.

편집방향은 먼저 통도사의 역사와 신앙 그리고 그 중심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특히 사리, 계율, 문수, 화엄 등 주요 사상을 정립한다. 아울러 통도사의 현재는 어떻게 구성되고 이루어졌는지 정리하고 역대 조사의 이야기도 담을 예정이다.

중간발표에서 윤영해(영축문화연구원 수석연구원) 교수는 〈신편 통도사 사지〉 내용과 집필자를 소개하고 책의 구성을 안내했다. 신편 통도사지는 총 8편으로 구성된다.

1편은 통도사의 역사다. 내용은 위치와 창건 이념, 사리신앙, 계율신앙, 문수신앙 화엄신앙을 포함한 창건과 사상, 중창과 현재 역사를 설명한다. 2편은 통도사의 전각과 말사다. 이 장에서는 통도사의 가람배치도, 금강계단 등 상(上) 노전영역, 대광명전이 있는 중(中) 노전영역, 영산전 이후 영역인 하(下) 노전영역을 안내한다. 아울러 암자는 산내암자와 말사 모두 담길 예정이다.

3편은 통도사 역대 고승에 대한 내용이다. 신라시대부터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고승의 발자취를 엮어 설명한다. 4편은 통도사 유산이다. 통도사의 유형문화재를 포함해 무형유산까지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통도사의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말사 문화재도 모두 정리하며 특히 일상의례와 예불, 발우공양, 삼보이운과 낙화, 학춤까지 무형문화재가 가진 가치를 알린다. 아울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산지승원인 통도사의 가치도 소개한다.

5편은 통도사의 연중법회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정초 보궁기도와 출가재일, 열반재일, 보살계산림, 부처님오신날, 단오재 등 통도사에서 진행하는 행사와 주요 법회를 설명한다. 6편은 통도사의 신행단체와 관련기관이 담긴다. 통도사에 소속된 신행단체와 전법단체, 학교법인, 복지법인, 재단법인, 영농법인 등을 소개한다.

7편에서는 통도사의 삼보정재인 토지와 경제부분을 소개한다. 토지뿐 아니라 산림, 산물, 갑계 활동까지 상세하게 담는다. 8편은 통도사 기록이다. 사료인 현판과 주련, 기문을 포함하며 역사 기록인 정사와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 야사, 암각까지 총망라한다.

부록은 역사 연표와 고승 법맥 및 중요사진을 담아 안내할 예정이다. 영축문화연구원은 현재 6개월 동안 활동하며 얻은 성과도 소개했다. 먼저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과 중국, 일본 등 각지에 소장된 사적기 판본을 확인했으며, 1900년대 해담치익 스님의 신편 사적기와 1960년대 운허 스님의 사적기도 확인했다.

아울러 고사적기에서 사리 이운 경로와 각 전각의 변천 과정도 확인했으며 해담 스님이 기록한 통도사의 두 가지 율맥도 확보했다. 동국대 학술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필사본 사적기 번역 각주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동시에 연구위원들이 〈신편 통도사 사지〉의 각 내용을 분담해 작성키로 했다. 또한 서울 흥천사, 북한의 태백산 보현사 등 여러 곳에서 통도사 사리가 이운됐음을 왕조실록과 보현사 사리비문을 통해 확인했다.

〈신편 통도사 사지〉 발간 중간 발표회는 연구위원 위촉식도 진행했다. 새 연구위원은 덕문 스님, 영산 스님, 혜일 스님이다. 집필자는 △우현 스님(자장암 한주) △자현 스님(중앙승가대교수) △송천 스님(통도사성보박물관장) △윤영해 교수(동국대) △이철헌 교수(동국대) △한정호 교수(동국대미술사학) △신용철 관장(양산시립박물관) △김순석 연구위원(한국국학진흥원) △최두헌 실장(통도사성보박물관)이다. 발표회에서는 집필자 중 한 명인 자현 스님(중앙승가대교수)이 '통도사의 창건에 얽힌 새로운 사실 규명' 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주지 현문 스님은 "문화재의 가치를 설명하고 특히 중요성이 전달되지 못한 무형문화재를 더욱 가치 있게 조명하고자 한다"며 "통도사 내 삼보이운, 염불 등 보이지 않는 무형문화재가 존재한다. 보완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 연구한다면 큰 성과물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편 통도사 사지〉 1차 발간은 2020년 10월 25일 개산대재일로 예정하고 있다.

생명운동 '낙동강상생포럼' 창립

강서불교연합회장 운암 스님과 윤종현 회장 등 뜻 모아

불교사상을 근본으로 생명상생 실천운동을 전개할 낙동강상생포럼이 탄생했다.

낙동강상생포럼(회장 윤종현)은 12월 5일 부산 명지 농협본점 2층 대강당에서 '낙동강상생포럼'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낙동강상생포럼은 앞으로 생명 가치를 강조하고 지역사회의 뜻과 의견을 수렴하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환경문제 파악 및 해결 방안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생명상생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시민들과 공감하고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맡는다.

창립대회에는 강서구불교연합회장 운암 스님, 범어사 승가대학장 정한 스님, 윤종현 신임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창립대회는 1부 창립총회가 열렸으며 정관심의 및 회장과 임원단 선출이 진행됐다. 회장은 윤종현 신임회장(前 부산시의회 의원)이 선출됐으며 임원 선출은 회장에게 일임됐다. 증명법사는 강서구불교연합회장 운암 스님이 담당하며, 지도법사로는 강서구불교연합회 회원 스님들이 활동할 예정이다. 2부 창립출범식에서는 개회선언 및 내빈 소개가 이어졌으며 신임회장 인사말과 축사 및 격려사가 진행됐다.

윤종현 회장은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포럼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포럼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생명과 환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동강상생포럼 창립대회에 참여한 사부대중이 생명상생운동 실천을 위한 다짐을 하고 있다.

증명법사 운암 스님은 "개인화, 양극화, 전통문화의 상실, 자연환경의 파괴 등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이 무너진 것에 그 원인이 있다"며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은 상생 실천이다. 상생을 위해 앞으로 낙동강상생포럼 회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낙동강상생포럼은 강서구불교연합회장 운암 스님이 제안해 2019년 9월 19일 윤종현 발기인 외 31명이 낙동강상생포럼 발기인을 구성했다. 5차례에 걸쳐 사전 준비회의를 걸쳐 지난 9월 26일 발기인대회를 봉행했으며 (가칭)낙동강상생포럼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창립준비회의를 진행하고 12월 5일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청소년 학업에 차별 없길"

광주 한마음선원, 서구청에 책가방 후원금 기탁

빛고을나눔나무는 12월 10일 광주 서구청(청장 서대석)을 방문해 서구지역 아이들을 위한 드림스타트 아동 책가방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후원금은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의 지정기탁으로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상임이사 보응 스님,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 김용섭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신도회장과 서대석 서구청장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한 기금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등 총 50명을 위해 사용된다.

보응 스님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불교계의 따뜻한 마음이 아이들에게 정성껏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온정 담아 한겨울 덥힌 연탄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연탄 1만장 동구서 나눠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회장 박수관)는 12월 5일 부산 동구 영초윗길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사진〉 신도회는 동구 관내 주민에게 연탄 1만장을 지원했다. 행사에서는 부산총연합신도회 회원 20여 명이 칼바람 부는 산동네를 방문해 직접 연탄 500장을 나르며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박수관 회장을 비롯해 정창교 수석부회장 등 현장에 나온 회원들은 연탄을 서로에게 전해주며 "추운 겨울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어 마음의 훈훈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는 매년 겨울 김장과 연탄나눔으로 소외 이웃을 후원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부산진구와 금정구 일대에 사랑의 연탄 2만7800장을 지원했으며, 김장과 쌀을 정기적으로 나누고 있다. 올해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수관 회장은 "겨울은 사계절 중 하나이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혹독할 수밖에 없다"며 "소외 계층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이 자리에 섰다. 함께 해준 모든 회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29회 향기로운 山海原 문화상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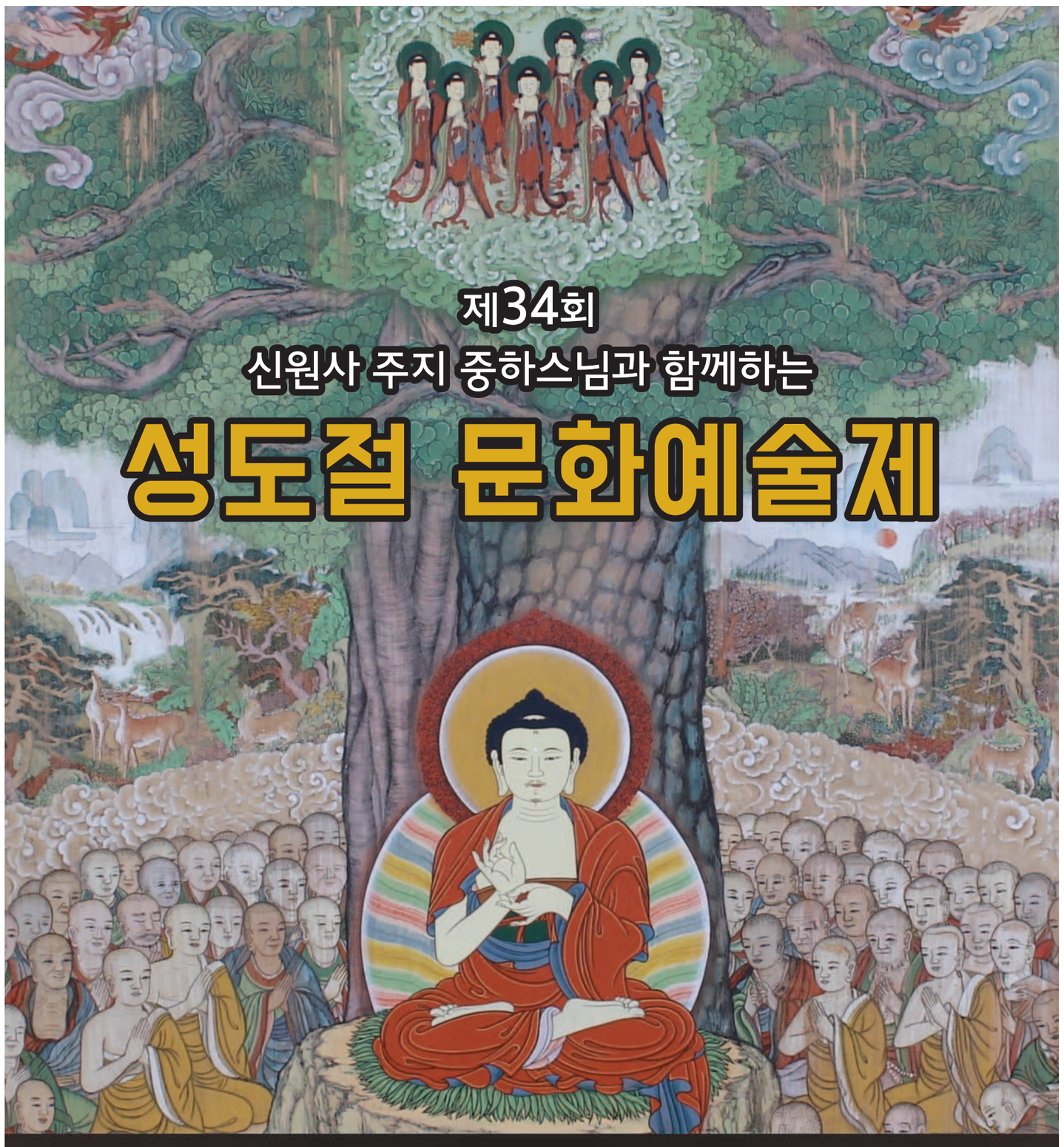
창원시불교연합회 "수상자들, 그늘진 사회 밝혀주길"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월도)는 12월 9일 '제29회 산해원문화상' 시상식을 창원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호텔에서 개최했다.〈사진〉 시상식에는 창원시불교연합회장 월도 스님과 회원스님을 비롯해 허성무 창원시장, 문화예술인, 언론인, 수상자 가족들이 동참해 축하했다.

산해원 문화상은 특별상 최위승 무학그룹 명예회장, 문학상 이상옥 한국디카시 연구소 대표, 예술상 장기홍 지휘자, 언론상 이수경 경남도민일보 자치행정부 국장에게 돌아갔다. 산해원 문화상은 문화예술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1991년 경남지역불교계가 제정한 상이다.

창원시불교연합회장 월도 스님은 "경기침체로 삶에 지친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하나로 화합된 힘을 보태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사회는 믿음과 자비가 필요하다. 그늘진 사회를 밝히는 수상자들의 활동을 높이 평가한다"고 축하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한국미술사연구소
실크로드 조사 30주년 학술대회

“골굴 법당굴 ‘법화사상’ 토대로 조성”

주제 : 골굴석굴과 돈황 285굴

문명대 동국대 미술학과 명예교수



문명대 명예교수는… 1941년 출생으로 경북대 사범대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석굴암 불상 조각 연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 중 울산 천전리, 대곡리 선사 암각화를 발견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면서는 러시아 연해주 발해사원지 발굴, 파키스탄 탁실라 간다라 유적 발굴 등을 진행하는 등 많은 발굴 성과를 냈다. 정년퇴임한 2006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을 맡으며, 왕성한 연구 · 집필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조각사〉〈한국의 불화〉〈한국불교미술사〉 등 50여 편의 저서와 300여 편의 논문을 집필했다.

돈황 285굴은 서위(西魏) 문제(文帝) 대통(大統) 4년인 538년에 조성되었다는 명문이 남아있는 유일한 고대석굴이어서 돈황석굴의 편년과 성격 연구에 가장 중요한 석굴이다.

경주 골굴석굴은 이런 6세기 중엽 전후의 석굴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돈황 285굴의 구조 및 도상들과 비교 고찰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골굴석굴 법당굴의 구조 형식

골굴석굴의 법당굴 구조형식에 대해서는 이미 밝힌 바 있다. 석굴구조는 인도나 중국석굴의 차이티야 석굴을 다소 간명하게 변모시킨 것이 특징이다.

전실은 평면이 4각형이지만 입구가 정면에 없고 측면에 있으며 굴 벽면은 개착하여 조성한 석실의 석벽이지만 지붕은 목조로 가구한 것이 실크로드석굴인 돈황 285굴과는 다른 것이다. 현 지붕과 벽면은 근래에 수지로 새로 가구하여 원모습은 알아볼 수 없다.

주실은 완전 석굴형식으로 평면이 긴 장방형이어서 아쟌타 19 · 26굴에 가깝지만 정4각형의 돈황285굴과는 다른 것이다. 또한 인도 후기 차이티야 석굴의 후진에 있는 탑상이 없고 돈황285굴의 후진의 감실에 새겨진 본존불도 없어 단순화된 구조인 것이 특징이다.

골굴 법당굴에는 각 4벽면이나 탑주 4면에 2층이나 3층으로 구성된 충만한 부조상이 간략화 되어 주실 좌우에 부조상 1구씩만 확인되는 것이 특징인 것이다. 원래 더 많은 불상이 조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인도의 아잔타 26 · 19굴이나 운강 6굴의 화려하고 충만한 조각은 변모되어 보다 간명하게 되었던 것도 사실일 것이다.

골굴 법당굴은 챠이티야굴인 예배굴이지만 돈황 285굴은 비하라굴로 규정하고 있어 차이난다. 다만 골굴 법당굴은 감실형 승방굴을 개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승방굴들을 바로 옆 절벽에 마련하였는데 비해 돈황 285굴은 좌우벽면에 4개씩의 감실을 마련하였으나 승방굴로 보기는 어렵고 탑 · 상을 안치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

돈황석굴 285굴 구조 형식

돈황 285굴의 석굴구조는 전실(前室)과 주실(主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실은 파손이 심하지만 직사각형인 장방형(長方形)이고 주실은 거의 정사각형인 방형(方形 ; 6.4m×5.9m, 굴고 4.3m)의 굴실(窟室)이다. 즉 주실은 좌우 폭이 6.4m이고 길이(동 · 서)가 폭보다 약간(50cm) 작은 5.9m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이른바 방형석굴이다.

굴실 바닥인 굴 평면 중심에 30cm 높이의 사각형 토단(2.60×2.70cm)이 마련되어 있다. 이 토단에는 불상이나 탑을 안치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의식용단이거나 설법용 또는 두 용도 모두 해당하는 단으로 추정된다.

> **경주 골굴석굴 6세기 중엽 조성**
> **돈황 285굴과 비교고찰 의미 커**
> **골굴 주실은 장방 · 돈황은 정방형**
> **골굴은 벽화 없이 조각으로 장엄**
> **사상도 유가유식 · 법화로 차이 有**

굴실의 4벽은 모두 강바닥의 흙으로 마감한 후 채색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주실의 정면벽인 서벽(西壁)에는 3개의 감실이 배치되어 있다. 중앙의 대감실(4.0m× 1.0m)은 큼직한 크기인데 정면 본존 미륵불의상과 좌우 협시보살(대묘상, 법림) 등 삼존상이 배치되어 있다. 좌우의 감실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인데 선정인의 승형(僧形)의 나한상이 좌정하고 있어서 가섭, 아난상일 가능성도 있지만 유가유식파의 창시자인 무착과 세친상일 가능성이 더 농후한 편이다.

유가유식파의 도상성격

돈황 285굴의 도상들은 유가유식파의 주존인 미륵과 미륵삼존, 유가유식파를 세운 미륵 · 무착 · 세친의 3존상, 그리고 미륵 3존을 지극 정성으로 존숭하고 호위하는 인도의 재래신과 실크로드와 중국의 신들, 아미타계 도상과 법화계 도상들의 조합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조합은 인도의 유가유식사상이 중국에 수용되면서 중국적 유가유식사상으로 변화화는 과정 이른바 지론종(地論宗), 섭론종(攝論宗), 법상종(法相宗)으로 승화되면서 도출해낸 도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돈황 285굴의 도상은 인도 유가유식사상이 중국적으로 변화하는 과정, 가령 남북조시대의 북조에서 수용, 변화된 지론종(地論宗) 계열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론종은 보리유지(菩提流支)가 창시하고 늑나마리(勒那摩提), 불타선다(佛陀扇多) 등이 발전시킨 학파이다. 보리유지는 이른바 중국 유가유식파의 종조(宗祖)격이 되며 이들 인도의 유가유식파는 실크로드 상에 그들의 신앙과 도상을 유행시켰고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가 돈황 285굴이라 할 수 있다.

골굴석굴과 돈황 285굴 비교

돈황 285굴과 골굴석굴(법당굴)의 석굴구조는 동일성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첫째, 돈황 185굴은 전실이 사각형으로 생각되지만 파괴가 심하여 잘 알 수 없다. 이에 비해 골굴 법당굴은 전실은 직사각형인데 벽은 석벽이지만 지붕은 목조로 생각된다.

둘째, 주실의 구조이다. 돈황 185굴의 주실 구조는 거의 정사각형(6.4×5.9m)에 가까운 방형인데 비하여 골굴 법당굴은 장방형이어서 다소 다른 편이다.

셋째, 주실의 장식이다. 돈황 285굴은 정벽면에 감실 3기가 있는데 안에는 미륵 3존불과 나한상 2존이 봉안되어 있고, 좌우벽인 북벽과 남벽에는 4기의 감실이 배치되었는데 안에는 탑 또는 불상이 봉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골굴 법당굴은 좌우에 불상이 배치되었던 것은 확인되나 입구의 정면 벽인 후진에는 감실 등을 확인할 수 없는 편이다.

넷째, 천정은 돈황 285굴의 천정은 복두천정(伏斗天井)인데 비해 골굴 법당굴은 평천정이어서 대조된다.

두 석굴의 불화와 도상을 비교하면 이와 같다. 첫째, 돈황 285굴은 정면 벽인 서벽에 감실을 배치하여 감실 안에 본존인 미륵3존불과 좌우에 나한상 2구를 배치하였고 좌우벽면 감실 4기에 각각 탑이나 불상이 안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골굴 법당굴은 좌우벽에 불상을 봉안하였으나 정면벽에는 감실이나 불상이 봉안되지 않아 다소 다른 편이다.

둘째, 돈황 285굴은 4벽면과 천정 등에 전면적으로 벽화가 그려져 화려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골굴 법당굴에는 벽화가 그려진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장엄한 분위기는 서로 다른 것 같다.

셋째, 돈황 185굴은 주존불(미륵불)이 정벽 감실 안에 봉안되어 있고 본존 격의 마애불이 별도로 없지만 골굴 법당굴은 주존불 격인 불상이 굴실 안에 봉안되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 멸실되어 뚜렷하지 않고, 그 대신 바로 옆 암면에 거대한 마애불이 주존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이 서로 다른 점이다.

돈황 285굴은 주존불이 미륵삼존불(미륵불상, 대묘상, 법림보살)이고 좌우 소감실 상이 유가유식 창시자인 무착과 세친일 가능성이 높아 이 굴은 유가유식 사상에 의하여 조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당시 중국의 유가유식파는 섭론종 계통이어서 이 사상에 의하여 285굴이 조형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골굴석굴은 초창기에는 유가유식 사상이 주 신앙이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잘 알 수 없고 통일신라시대는 법화경 사상이 주 신앙인 것으로 생각된다. 없어진 상들이 미륵불 계통인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 따라서 골굴석굴의 조형사상을 단정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법화경 사상에 의하여 조성되었다고 생각된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골굴석굴과 돈황 285굴은 구조와 도상 특징 그리고 조형 사상이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석굴 구조는 전실과 주실로 구성된 구조는 같지만 골굴 법당굴은 주실이 장방형이나 돈황 285굴은 거의 정방형으로 거의 유사하며, 천정은 골굴법당 평천장이나 285굴은 말을 엎은 듯한 복두천정(伏斗天井)이어서 다른 점이다.

돈황 285굴은 정벽 감실에 미륵삼존불을 주존으로 봉안했으나 골굴 법당굴은 좌우에 불상이 봉안되었다. 정벽에 주존불은 확인할 수 없고 통일신라 마애석가불이 옆 벽면에 마련되어 주존불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돈황 285굴의 4벽과 천정은 전체적으로 벽화로 채색되어 있으나 골굴 법당굴은 벽화는 없이 조각으로만 장엄되어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돈황 285굴은 창건 시기에는 유가유식사상에 의하여 조성되었는데 여기에 법화사상과 아미타사상이 가미되어 점차 법화와 아미타 신앙으로 확대되었다고 하겠다. 이에 비해 골굴석굴은 초창기 때는 유가유식사상이 주신앙이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통일신라때는 법화사상이 주신앙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12월 14일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1강의실에서 실크로드 학술조사 30주년을 기념해 ‘골굴석굴과 실크로드 석굴’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1989년 문명대, 조영록, 목정배 등의 조사단을 구성하고 35일 간 한국 최초 실크로드 조사를 진행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장)은 ‘골굴석굴과 돈황 285굴의 석굴’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문 교수의 강연을 발췌 · 정리해 게재한다. **정리=신성민 기자**

2020년 제 35회 불이상 공고

불이상 후보자 추천 접수를 시작합니다. 한국 불교 발전을 이끌어 갈 불교계의 숨은 인재를 발굴하는데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상부문

○ 연구 분야 | 불교학 및 불교학 인접 분야에서 장차 한국 불교학을 선도할 인재
○ 실천 분야 | 신행과 포교,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인류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각 수상자는 상장과 2천만원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후보자 자격

○ 연구 분야 | 박사 학위 취득 이후, 연구원, 시간 강사, 연구 교수, 강의 교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최근 수년 동안 불교학 및 불교학 인접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와 업적을 보여온 자.
○ 실천 분야 | 신행과 포교가 모범이 될 뿐 아니라,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인류사회에 도움이 되는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는 불교인 혹은 불교 단체

구비서류 : 분야별 추천서

○ 추천서 양식은 이메일로 요청 가능합니다. (burisince1986@gmail.com)
○ 후보자는 분야별로 한 분만 추천 가능합니다.
○ 추천서 이외의 업적 증빙자료는,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추천 받은 후보자 분께 별도로 제출 요청 연락을 드립니다.

추천서 접수

○ 접수 기한 | 2020년 2월 3일(월)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 접 수 처 | 불이상 심사위원회
| 이메일 burisince1986@gmail.com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발 표 | 2020년 6월
○ 시 상 | 2020년 7월

기 타

○ 기 타 | 문의는 불이상 심사위원회(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不二會

작품 속 소우주와 사계 無情說法

〈무정설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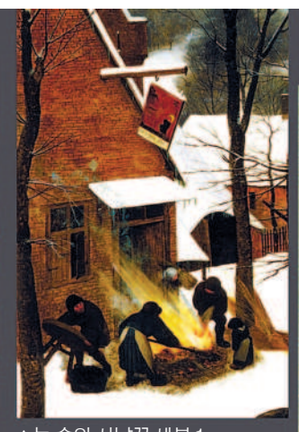


김원숙의
불교와 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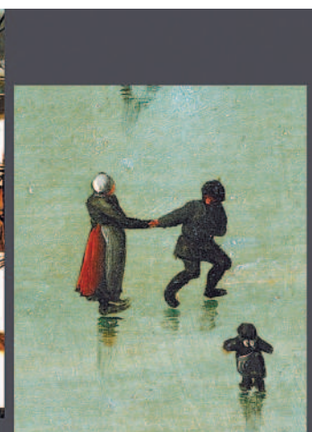
㉓ 페테르 브뤼헐의 〈눈 속의 사냥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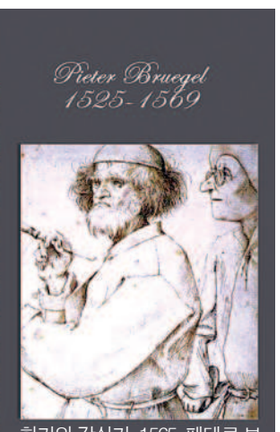


눈 속의 사냥꾼 (Jagers in de Sneeuw), 1565, 페테르 브뤼헐, 목판에 유채, 117 x 162 cm,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



▲눈 속의 사냥꾼 세부 1
눈 속의 사냥꾼 세부 2▶





화가와 감식가, 1565, 페테르 브뤼헐, 소묘, (자화상으로 추정)

고뇌가 길어지면 깨달음도 깊어질까? 가을 깊어 겨울로 이어지듯, 그렇게 조용한 깨달음과 평화에 이르게 될까? 메마른 이마를 유리창에 기대고 내려다 보는 12월의 거리에 하얀 눈이 내린다. 나뭇가지를 떠나 땅에 떨어지고도 여전히 붉은 낙엽 위로 쌓이는 눈꽃으로 인해, 차마 놓지 못하던 가을을 접고 겨울이 피어난다. 어쩌면 겨울은 첫 눈과 함께 시작된다.

'이 곳이 누구의 숲인지 알 것 같다 / 그의 집은 마을에 있어 / 눈 덮인 그의 숲을 보느라 / 내가 여기 멈춰서 있는 것을 그는 모르리라'

호젓이 깊어가는 겨울 저녁,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와 함께 떠오르는 그림 한 점이 있다.

페테르 브뤼헐(Pieter Bruegel the Elder, 네덜란드, 1525-1569)의 〈눈 속의 사냥꾼(Jagers in de Sneeuw, 1565)〉은 겨울 풍경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풍경화로 알려진 그림이다. 이 작품은 1년 동안 변화하는 총 6개의 그림으로 구성한 연작 중 하나로 12월 혹은 1월 무렵의 정경을 표현한 그림으로 추정된다. 이 연작은 안트베르펜의 부유한 은행가 니클라스 용헬링크(Niclaes Jongelinck)라는 사람이 자신의 저택을 장식하기 위해 브뤼헐에게 의뢰했던 작품으로, 애초에 이 시리즈가 모두 12점이었는지 6점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이후 곡절을 겪으며 현재는 5점만 전해진다.

이 그림에서 언덕 위의 사냥꾼들은 저 멀리 흰 눈에 쌓인 마을을 내려다 본다. 앙상하고 검은 나뭇가지들은 하늘을 향해 뻗어 있고, 몇 마리의 까마귀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거나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가르며 날아 오른다. 화가, 혹은 화가가 의도한 감상자의 시점은 언덕 위의 사냥꾼들 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에 그림의 구도에서 사냥꾼 무리들과 언덕 아래 마을은 거의 동일한 수평선 위에 놓여 있다.

페테르 브뤼헐은 플랑드르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로 16~17세기에 4대에 걸쳐 활동한 네덜란드 남부 지역의 중요한 예술가 가문의 일원이다. 그는 네덜란드 북쪽 브라반트주 브레다에서 탄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생의 전반에 걸쳐 주로 안트베르펜에 정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였다. 그는 당시 유명했던 안트베르펜의 히에로니무스 코크(Hieronymus Cock) 공방에서 동판화의 밑그림을 그리면서 화가 수업을 시작하여, 1551년에는 안트베르펜의 화가 조합인 성 루카스 길드에 마이스터로 등록하고, 이듬해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로의 여행길에 오른다.

마을 뒤 개천 너머 원경의 너른 들판 오른쪽에는 정수리가 뾰족한 눈 덮인 산봉우리들이 늘어서 있는데, 마치 알프스의 산맥들과 유사한 느낌을 준다. 네덜란드는 높은 언덕이나 야산이 드물고 험준한 산맥은 없는 평평한 저지대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따라서 이 그림은 실제 존재하는 자연 풍경을 그린 것이 아니라, 당시 네덜란드의 마을의 모습과 브뤼헐이 여행지에서 보았던 자연 풍경을 하나의 화폭에 조합하여 구성한 작품이다. 눈 덮인 평지와 얼어붙은 호수의 풍경이 네덜란드 지형의 특색이라면, 원경으로 보이는 우편 상단의 뾰족한 설산은 브뤼헐이 1550년대에 이탈리아로 여행을 하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던 알프스의 지형을 연상시킨다.

다시 안트베르펜으로 돌아온 브뤼헐은 그의 길지 않은 대부분의 생애 동안 이 곳에서 작품 활동을 하였다. 브뤼헐의 생애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은 그다지 많지 않다. 1551년 성 루카 조합의 입회등록, 1563년에 스승인 피터르 쿠케 반 알스트의 딸 마이켄 쿠케 반 알스트와 결혼할 때 브뤼셀의 노트르담 드라샤펠 성당에 남겨진 결혼기록, 그리고 1569년에 같은 성당에서의 장례기록이 브뤼헐에 관한 공식기록으로 남아있다. 코크의 판화 가게에 출입하던 당시의 저명한 도덕사상가인 D.V.콜른헤르트와의 교류를 통해 브뤼헐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화가로 성장한다. 1559년부터 브뤼헐은 서명을 'Brueghel'에서 'Bruegel'로 바꾸고 본격적인 유채 화가로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다.

브뤼헐은 〈눈 속의 사냥꾼〉을 그린 같은 해에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스케이트와 새 덫이 있는 겨울 풍경 (Winter Landscape with Skaters and a Bird Trap, 1565)〉을 그리고, 이듬해에 또 다시 〈베들레헴에서의 호구조사 (Census at Bethlehem, 1566)〉에서 눈 덮인 겨울 풍경을 그렸다. 르네상스 이전에는 서양 미술사에서 겨울 풍경을 그린 작품은 뜻밖에도 흔하지 않다. 풍경은 회화에서 그 자체로 독자적이고 중심적 소재라기보다는 대체로 인물화의 배경, 역사적 주제, 신화, 종교적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부수적인 차원의 배경으로 사용되었다.

브뤼헐은 계절 연작을 통해서 미술사에서 풍경화를 회화의 장르 중 비중 있는 분야로 끌어올린 작가로 일컬어진다. 그의 풍경화는 특유의 파노라마적인 화면 구성으로 세계에 대한 통찰력 있는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히에로니무스 보슈 Hieronymus Bosch(1450~1516)의 영향으로 파악되는 브뤼헐 작품의 파노라마적 연출은 일종의 '인생극장(theatrum vitae humanae)' 혹은 '세계극장 (theatrum mundi)'으로 제시된다.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은 얼어 붙은 못 위에서 얼음 썰매, 스케이팅, 하키, 컬링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겨울 놀이를 즐기는 모습이 보인다. 그 옆 눈길을 따라 짐마차가 지나가고, 못을 가로지르는 작은 다리 위로 추운 날씨에 따스한 온기를 전해줄 땔감을 지고 가는 사람도 보인다. 하키나 컬링을 올림픽과 같은 행사에서 스포츠 종목으로나 알고 있던 우리들에게는 수백 년 전 그림 속 북유럽의 민속 놀이로 묘사된 이런 모습은 이색적으로 다가온다.

겨울풍경 관한 최초 풍경화
세계 대한 통찰 · 관념 보여
사계 순환의 '다시보기' 작업

브뤼헐은 북유럽 전통의 사실성과 이탈리아에서 배운 엄격한 선(線)의 묘사를 통한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의 화풍을 만들어 내었으며, 네덜란드 특유의 전통적 기법을 발전시키면서도 새로운 관점에서 자연과 인간에 관련된 주제를 작품에 도입한 화가로 평가 받는다.

브뤼헐의 작품세계에서 그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되었던 도시 안트베르펜은 16세기에 접어들어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서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 유럽 문화의 주요 중심지로 부각되었다. 당시 안트베르펜은 출판 산업의 센터로서 유럽 지식인의 주목을 받았다. 안트베르펜이 국제적인 출판 거래 센터가 됨으로써 저술가인 학자나 인문주의자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높은 지적 문화 수준의 환경이 형성되었다. 특히 이 도시는 당시 플랑드르 내의 우의 도상집(emblem books) 출판의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안트베르펜을 중심으로 한 문화, 사회적 배경은 브뤼헐의 작품세계를 꽃피운 풍요로운 토양이었다.

사냥꾼 행렬이 지나가는 길 옆에는 여관이 있다. 화폭을 가득 덮은 하얀 눈과 여관 집 벽돌담의 붉은 색조가 명료한 대조를 이룬다. 여관 앞에서 몇 명의 사람들은 건초를 태워 돼지를 불에 그을리고 테이블을 옮기는 등 추운 날씨에도 일에 열심이다. 건초를 태우는 불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솟구치는 모습을 보면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것 같다. 여관의 간판은 한쪽 고리가 떨어져 기우뚱하게 걸려 있다. 간판에는 'Dit is inden hert'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이것은 사슴 뿔 속에 있다'라는 뜻이다. 사냥꾼의 수호 성자인 성 후베르투스가 사슴 뿔에 나타난 십자가의 형상을 보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이야기가 전해진다. 후베르투스의 개종을 의미하는 간판이 기우뚱하게 걸린 것은 실패한 사냥을 풍자하는 듯하다.

종교가 삶을 지배하는 규범이었던 16세기 네덜란드에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세계관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다소 특이하다. 브뤼헐의 그림에서 인간은 신의 명령에 따라 군림하는 자연의 지배자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자연이라는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조화롭게 어울리고 있다. 어떤 평자들은 브뤼헐의 여러 작품에 나타난 상징, 은유를 통해 신플라톤주의 및 그노시스 주의의 영향을 읽기도 한다. 혹은 북유럽의 이교적인 흔적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 무엇이 되었건 브뤼헐의 이 그림은 기독교적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것은 순수한 기독교 교리의 해석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이라기 보다는 당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선으로서 이해된다. 브뤼헐에게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맹목적 믿음의 반영이 아니라, 일종의 '저항'이었으며, '다시 바라보기'의 작업이었다.

행렬의 주변에 여기저기 흩어진 토끼 발자국은 그들이 토끼 사냥에 실패했음을 알려주고, 사냥이 아니라 오히려 토끼에 의해 조롱 당한듯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여러 마리의 사냥개를 데리고 간 사냥꾼들은 겨우 조그마한 여우 한 마리로 만족하며 지친 발걸음을 마을로 옮기고 있다. 거기에는 명시적인 지배의 이미지는 없으며, 결정적인 허무나 무기력의 상념도 없다. 다만 인간 삶의 조건이 그러할 뿐이고 겨울의 숲이 그러할 뿐,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의 일상적인 삶의 이미지가 존재할 뿐이다.

〈눈 속의 사냥꾼〉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풍경화이지만, 세부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장르화적인 특성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사냥꾼과 사냥개 무리, 얼음 위에서 겨울 놀이를 즐기는 사람들과 아울러 화폭 전체에서 작고 세밀하게 표현된 많은 세부 사항들은 460 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관객들의 경탄을 자아낸다. 작가의 시선을 따라 구성된 화폭 전체에서 천천히 세부로 내려가다 보면, 대자연 속의 자그마한 마을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보인다. 또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다양한 세부 이미지로부터 차츰 물러나서 다시 그림 전체를 보면, 이 작품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의 소우주처럼 느껴진다. 세부의 작은 부분들에 대한 묘사를 찬찬히 살펴 보면, 이 그림은 그 당시 북유럽 화단에 유행했던 '장르화'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브뤼헐의 〈눈 속의 사냥꾼〉이 전해주는 자연의 이치와 더불어 계절의 변화에 배우는 의미를 새겨보게 된다. 당대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Michel De Montaigne, 1533-1592)는 〈수상록 (Essais, 1580)〉에서 '나는 인생의 어린 풀을 보고 꽃을 보았으며, 그리고 지금은 쓸쓸하게 시든 그 겨울철의 모습을 보고 있다. 행복하도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연이기 때문이다. 지금 걸린 병도 와야 할 때 와서 나의 긴 행복을 회상하게 해 주는 것이니, 나는 더욱 조용히 그것을 견디어내고 있다.' 고 썼다. 지금 이 순간, 내게 다가오는 행이든 불행이든 모두 기꺼운 환대로 받아 들이고, 안으로 절로 깊어져 단단해지는 계절, 겨울이다.

브뤼헐의 〈눈 속의 사냥꾼〉은 묵묵한 침묵과 함께 걷는 자이고, 그에게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아직도 가야 할 먼 길이 남아 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의 마디를 통해 '마지막'과 '다시 처음'의 참된 의미를 짚어보고, 혹독한 추위의 겨울을 견뎌야 향기로운 새봄을 맞는 이치를 배운다. 당시 북유럽의 역동적이고 과도기적 시대와 사회에 대한 냉철한 관찰자였던 브뤼헐의 작품 안에서 소우주와 사계의 순환과 겨울 풍경은 그 자체로 '무정설법(無情說法)'이 되어 말을 건넨다.

모든 존재는 온 곳도 없고,
가는 곳도 없으며,
어디로도 생겨난 곳도 없다.
그러므로 분별할 수가 없다.
모든 사물은 온 곳도 없고,
가는 곳도 없고,
생 (生) 한 것이 아니니 멸(滅)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는 여래를 보게 될 것이다.

〈화엄경(華嚴經)〉 제 16장
야마천궁보살설게품(夜摩天宮菩薩說偈品) 중에서

〈끝〉 〈미술학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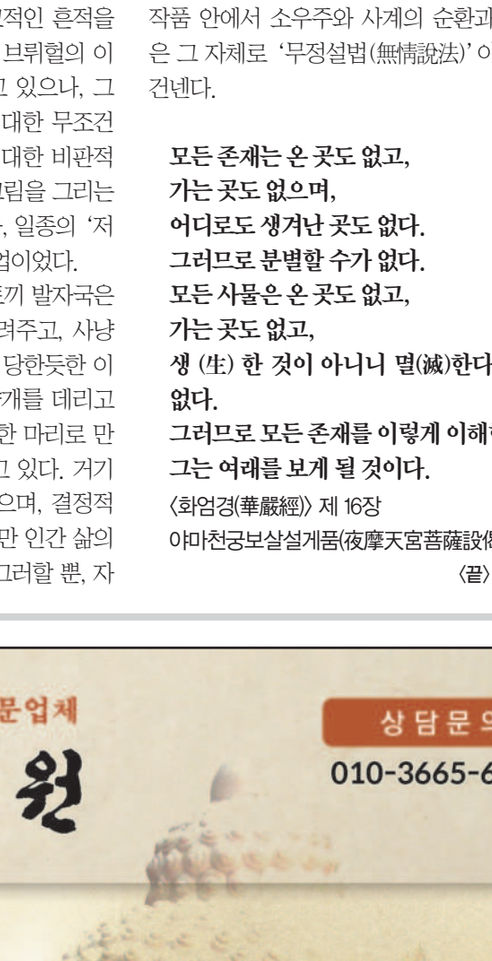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부처님의 마음을 빗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열린 혁신과 개혁은 시대 과제

임종욱의
붓다와 마주한 인생독법

㉓ 남해를 돌아보게 만든 세 사람



그림 · 박구원

잘 알면서도 잘 몰랐던 것들

얼마 전 내가 속한 화전매구보존회 어른 몇 분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오랫동안 매구로 단련된 분들이고, 누구보다 남해와 매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다. 한 해를 마치면서 보존회는 그간 공연을 하느라 고생한 단원들에게 공연비로 받아 적립된 금액을 수고하신 만큼 배분해 주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한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 일이었다.

나는 행사에 빠진 적이 없어 가장 많은 액수를 수령하게 되었다. 올해가 1년 차라 그런 배려가 있는 줄도 몰랐다. 어쨌든 갑자기 거액의 공돈(?)이 생긴 셈이다. 받은 돈을 어떻게 쓸까 함께 궁리했다. 몇 가지 우스개 농담 끝에 조촐한 술자리를 마련해, 나를 위해 마음 써 주신 분들에게 작은 보은(?)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결심했다.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내년이면 벌써 2020년이라는 감회가 흘러나왔다. 자연스럽게 새 천 년이 시작될 즈음의 회상들이 쏟아졌고,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기억할 2002년 월드컵 때의 감격도 술잔 위로 떠돌았다. 그리고 그 시절이 참 좋았다는 야릇한 감상(感傷)의 말도 이어졌다.

그때 내 머릿속에 "가장 좋은 시절은 바로 지금이고, 가장 좋은 사람들은 오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그렇게 말을 꺼내고 보니 나 자신도 수긍이 되었다. 오늘을 막 살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을 홀대하거나 외면한다면, 나는 소중한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남해에서 산 지 7년째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서 만났다. 몇몇을 빼고 모두 좋은 사람들이다. 그 중에는 돌아가신 분도 있고, 병환에 시달리는 분도 있어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서울에 살 때도 잘 알던 분들(그때도 모두 작고한 분들이었지만)이 남해 출신인 것을 알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작곡가 이봉조와 소설가 정을병, 국문학자 정병욱이 그 분들이다.

이봉조(李鳳祚, 1832-1987)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드물 듯하다. 색소폰의 명인으로, 〈안개〉, 〈꽃밭에서〉, 〈무인도〉 등 지금도 애창되는 명곡을 남겼다. 그가 연말 TV무대에 나와 색소폰을 연주하고 자작곡으로 기억되는 "아아, 오늘도 떡국 한 그릇 더 먹어야지"하며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로 노래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런데 그의 고향이 남해였다. 이후 그가 더 좋아졌다. 남해에 이봉조 기념관을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정을병(鄭乙炳, 1934-2009)은 내가 작가를 꿈꾸던 고등학교 시절 가장 즐겨 읽었던 소설가였다. 그는 발표한 작품은 한결같이 비범했고, 진지한 고민거리를 내게 안겨주었다. 〈육조지〉와 〈까토의 자유〉 〈받아들인다는 문제〉 〈개새끼들〉 〈유의촌(有醫村)〉 〈아테나이의 비명(碑銘)〉 〈말세론(末世論)〉 등은 지금 읽어도 신선하다.

특히 〈육조지〉는 법원 주변에서 벌어지는 세태를 시니컬하게 폭로해 당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형사는 때려 조지고, 검사는 불러 조지고, 판사는 미뤄 조지고, 간수는 세어 조지고, 죄수는 먹어 조지고, 집구석은 팔아 조진다"는 소설의 한 구절은, 요즘 검찰과 법원 주위를 망령처럼 떠도는 부조리와 적폐를 떠올리게 만든다.

안타깝게도 정을병은 고향 남해에서 그리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니다.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그가 생전에 고향을 두고 한 발언 때문에 그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그래서 그의 문학관도 남해에 세워지지 못했다. 사람이란 죽으면 고향에 와서 휴식하는 법인데,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정병욱(鄭炳昱, 1922-1982)은 내가 막 대학에 들어와 문학과 관련된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을 때 눈을 번쩍 뜨게 만든 저술의 저자였다. 그때 내가 읽은 그의 저서는 〈한국고전시가론〉을 비롯해 〈한국고전의 재인식〉 〈한국의 판소리〉 등이었다. 당시 정병욱은 서울대 교수로 있었는데, 대학 2학년 때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훗날 대학원에 들어가 고전문학을 전공하고 공부하면서 나는 정병욱과 같은 학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정병욱은 시인 윤동주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육필 원고를 보존해 시인 윤동주를 있게 만든 장본인으로도 유명하다. 만약 그 원고가 분실되었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다. 정병욱은 여섯 살 무렵 남해를 떠나 하동에서 살아, 지금도 어떤 글에는 그의 고향을 하동이라 표기하는 오류가 보인다. 그는 고작 60년을 살다 갔지만, 국문학에 남긴 업적은 천 년의 세월에 견줄 만하다.

내가 좋아했던 사람의 고향이 남해라니, 그들이 남긴 훈김이 지금도 남해를 떠돌고 있을 것 같아 더욱 크게 심호흡을 해본다.

그들은 정말 요승(妖僧)일까?

우리나라 불교의 역사를 살피다 보면 잘못된 편견이 정설인 것처럼 알려진 경우를 더러 보게 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요승(妖僧)'이라는 해괴한 지칭이다. 사전 상의 뜻으로 보면 요승은 '정도(正道)를 어지럽히는 요사스러운 승려'로 되어 있다. 그런 요승이 물론 있긴 할 것이다. 역사와 세상을 망가뜨린 요유(妖儒)만큼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 역사에서 요승으로 불린 스님은 셋이다. 고려시대의 묘청(妙淸, ?-1135)과 신돈(辛旽, ?-1371), 조선시대의 보우(普雨, ?-1565)가 그들이다.

불교주도개혁의 반발
불교 '요승' 오해 생겨
새로운 혁신 인식 필요

묘청은 수도를 개경에서 평양으로 옮겨 국정을 쇄신하자고 하면서 칭제건원(稱帝建元)과 금국정벌(金國征伐)을 내세워 고려가 자주국임을 선포하고자 했다. 개혁에 앞장섰고 국왕도 찬동했지만, 김부식을 비롯한 보수적인 유가 세력의 반대에 밀려 좌절되었다. 이에 평양에서 의거를 일으켰는데, 김부식이 앞장서 이를 진압했다.

김부식은 반란의 싹을 뽑는다면서 고구려나 발해와 관련된 사료들을 깡그리 없앴고, 자기 입맛에 맞는 역사서 〈삼국사기〉를 편찬했다. 이 책에서 발해와 가야의 역사는 찾을 길이 없다. 그리고 묘청은 세상을 어지럽힌 '요승'으로 낙인이 찍혔다.

신돈 역시 공민왕과 함께 고려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불태웠다. 그는 승려이면서도 성균관 재건에 힘을 실었고, 외세에 의존하려는 썩은 유림(儒林) 권력자들과 당당히 맞섰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오래 가지 못했고, 권모술수에 능란했던 유림들의 농간으로 공민왕의 신임마저 잃고 말았다.

결국 신돈은 역모를 꾸몄다는 얼토당토않은 누명을 쓰고 수원으로 쫓겨났고, 거기서 살해 당했다. 왕의 심기를 흐리게 한 '요승'이라는 굴레는 당연히 씌었다. 유림들의 모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공민왕 사후 등극한 우왕과 창왕이 모두 신돈의 자식이라면서 퇴위시키더니 둘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다.

조선은 철저하게 불교를 배척했다. 그 결과 조선의 불교는 쑥대밭이 되었다. 씨가 말라가는 조선 불교에 소생의 비를 뿌린 이가 보우였다. 어린 명종의 섭정을 맡은 문정왕후가 병 때문에 경기도 천보산 회암사에 머물러 있던 그를 불러 불교 융성의 임무를 맡겼다. 보우는 뜻을 받들어 3백여 개의 사찰을 국가가 공인한 정찰(淨刹)로 정했고, 도첩제를 실시해 2년 동안 4천여 명의 승려를 선발하는 한편, 승과시(僧科試)를 부활시켜 휴정(休靜)과 유정(惟政) 같은 인재들을 발탁했다.

그렇게 꽃을 피우나 했던 불교는 문정왕후가 죽자 다시 철퇴를 맞았다. 유신(儒臣)들의 상소로 제주도로 귀양을 간 그는 제주목사 변협(邊協)에 의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당연히 보우는 '요승'의 반열에 올랐다. 승과에서 뽑았던 승려들이 주축이 되어 임진왜란 때 승의군(僧義軍)을 조직해 나라를 구한 일을 생각하면, 보우를 '요승'이라 비난했던 유신들이야말로 '요유'였음이 자명해진다.

이렇게 '요승'으로 지목된 세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 유가들에게는 눈엣가시 같던 인물이었다. 그들은 변화와 개혁을 꿈꾸었고, 기득권이었던 유가들에게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존재였다. 오로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대의를 저버리고도, 그 죄악을 면하고자 세 스님에게 '요승'이라는 고깔을 씌웠다.

지금도 이 세 스님을 두고 '요승' 운운하는 사례가 없지 않다. 이들을 복권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청백리를 우대했던 조선?

500년 넘게 이어진 조선시대를 한 마디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에게 일언이폐지(一言以蔽之)하라고 묻는다면 조선시대는 '우리 역사의 암흑기'였다고 말하는 데 주저할 생각은 없다.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전후해 망했어야 했다. 억지로 목숨을 연장하더니 나라를 이민족에게 빼앗기는 참상을 빚어냈다. 조선 후기 실학(實學) 운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개살구'의 빛만 보고 떠드는 상찬(賞讚)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실천은 없이 한문(漢文) 제일주의에 눈이 멀어 탁상공론을 펼쳤다고 나는 본다.

조선시대 때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올곧은 자세로 백성들을 돌본 관리들을 일컫는 말이 있다. 이들을 뭉뚱그려 '청백리(淸白吏)'라 부른다. 청백리라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여럿 있다. 〈전고대방(典故大方)〉이란 책에는 조선시대에 표창된 청백리 218명이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와! 그렇게나 많나! 놀랄지도 모르겠고, 이 숫자보다 더 많았다고 여겨지지만, 5백 년 역사에 2백 명이 조금 넘으면 2년에 한 명 꼴로 나왔다는 소리다. 쉽게 말해 조선시대 청백리는 아주 희귀한 존재였다.

청백리에 대척되는 자리에 선 관리를 우리는 '탐관오리(貪官汚吏)'라 부른다. 이도저도 아닌 관리도 있었겠지만, 조선은 탐관오리의 나라였다. 노자(老子)는 "세상에 불효가 판을 치자 효자(孝子)란 말이 나왔고, 역적들이 바글거리자 충신(忠臣)이란 말이 나왔다"고 갈파했다. 얼마나 탐관오리가 많았으면 청백리를 떠받들었겠는가.

명나라 태조 주원장(朱元璋)은 개고생 끝에 나라를 열고 황제가 되었다. 평민 시절 탐관오리의 만행을 목격한 그는 자기 왕조에서는 그림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작정해 발각 되는대로 처형을 시켜버렸다. 그러나 그래도 끝없이 탐관오리들이 창궐하자 결국 포기했다고 한다.

오늘날 우리의 공무원들이 청백리인지 탐관오리인지는 판단을 보류하자. 그러나 정직하지 못하고 제 구실을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가까운 곳에 항상 있는 소중한 사람, 성실한 '머슴' 들까지 잊어서는 안 될 듯하다. 〈끝〉

〈소설가〉

제10회 원효학술상 공모

(재)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에서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등의 분야에서
현대 사회, 문화에 대한 불교적 조명과 한국 철학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는 불교사상 연구 학자를 격려하고,
인류 문명의 창조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0회 원효학술상을 공모합니다.

○ 공모 주제
「불교의 현대화와 국제화」 전제하에 다음 각 부문 중 자유 선택 · 1인 1편 응모
- 현대 사회, 문화에 대한 불교적 조명과 한국 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불교사상 연구 부문
- 서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과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서양사상 연구 부문
- 동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과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동양사상 연구 부문

○ 시상 부문 및 상금
- 학자 부문 논저(약간 명) : 2,000만원
- 석 · 박사 과정 학생 부문 논저(약간 명) : 300만원 ~ 500만원
[모든 부문 공통 : 국내 및 재외국민, 외국인 포함(영어에 한함)]

○ 제출 자료
1) 지원서 1부[양식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저서 2부, 논문(별쇄본) 3부
① 학생 논문의 경우 교수(조교수 이상 및 그에 준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것.
② 심사 대상 작품은 최근 5년 이내
(2015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까지)에 발표된 것에 한함(저서는 ISBN 등록본).
3) 외국인 또는 외국어 저술의 경우 영어에 한하며, 한국어본 초록(A4 3매 내외)을 제출해야 함.

○ 접수
1) 접수 기간 : 2020년 2월 3일(월)~2020년 2월 28일(금)까지
2)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 유효)
3) 접수처 : 주소_0417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15층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원효학술상 담당자 전화_(02) 719-2606
*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로 문의하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kbpf@chol.com).

○ 수상자 선정 및 시상식
1) 심사 후 선정 및 통보 : 2020년 4월 중(선정자에 한해서 개별 통보)
*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부문 또는 상금 내용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음.
2) 시상식 : 2020년 4월 중(추후 공지)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

종교상담사 자격 교육

수강생 귀장술비법 모집안내

찾아온 (시간 · 일진)으로 왜 왔는지?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내방자의 사주만 가지고 궁금증을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육임보다 쉽고 더 확실한 점술학...
(명리학을 잘 몰라도 됩니다)

제1기 종교상담학과 개설
☆ 개강 2020년 1월 6일(화) 오후2시~4시
☆ 강의일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선착순 30명 접수 ☆ 강사 : 도호스님

3개월완성으로 상담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완벽한 과학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강특전 해동불교대학원 종교상담과 수료증 수여 (총장 명의)

해동불교대학원 서울 종로구 종로17번길45

문의안내 02)741-0495~6

얽매임 없이 오롯이 정진만…



정운 스님의
禪 르네상스 이끈 선지식

㉓ 불교사에 귀감된 선사들



중국 호남성 류양 석상사 도량 뒤편에 위치한 무문관. 중국에서는 폐관(閉關)이라고 한다.

근자에 종교 인구가 줄고 있고, 출가자 또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1600여년 한국불교사에 찬란한 고려불교도 있지만, 조선 500년 통한의 불교사는 매우 심각했다. 그런데도 한국사회에 그 무엇이 불교를 존속되게 한 것인가?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 반만년 동안, 지구상에 불교가 존속함은 지극한 수행자가 배출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중국 르네상스 시대 참수행자의 면모를 남긴 몇 명의 선사를 만나 보자.

남악산에 나잔(懶殘)이라는 선사가 살았다. 이 선사는 누더기를 걸치고 노쇠해서 비틀비틀 걷는 노인이라는 뜻이다. 나잔은 북종선 3세에 해당한다. 즉 대통 신수(大通神秀, 606~706) 문하에 당시 화엄학자이자 선사인 보적(普寂, 651~739)이 있는데, 나잔은 바로 보적의 제자다.(5조 홍인-신수-보적-나잔) 당나라 현종(재위 712 ~ 756년)이 나잔의 덕을 칭송해 그를 관직에 기용할 생각으로 칙사를 보내어 나잔을 장안으로 모셔오라고 하였다.

칙사는 나잔이 머물고 있는 산골을 겨우 찾아갔건만 선사는 칙사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 칙사가 황제의 말을 전하자, 나잔은 칙사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구운 감자를 맛있게 먹고 있었다. 선사는 평소에 씻지도 않아 침과 콧물이 목덜미 근처까지 드리워진 모습이었다. 이때가 마침 추운 겨울인데다 초라한 행색의 노승이 감자를 먹고 있으니, 칙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사에게 물었다.

"스님, 무엇이든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나잔이 고개를 들어 말했다. "그래, 내가 부탁을 하나 하지요. 자네가 아까부터 내 앞을 가로막고 서 있어 햇볕이 들지 않으니 그 서 있는 자리 좀 비켜 주시오"

이렇게 나잔처럼 명예에 얽매이지 않은 선사들이 많았다. 여섯 조사 가운데 4번째인 도신(四祖道信, 580~651)은 당나라 태종이 세 차례나 입궐할 것을 권했으나 한사코 거절했다. 화가 난 태종이 네 번째 입궐할 것을 권하며 '이번에 입궐하지 않으면, 목을 베어오라' 는 명을 내렸다. 그런데도 도신은 이에 굴하지 않고, 쌍봉산을 벗어나지 않은 선사였다.

분주 무업(汾州無業, 760~821)은 마조의 제자이다. 당시 대학자로서 강사 출신으로 유명하다. 무업은 스승에게 법을 얻은 뒤 깊은 산속에서 홀로 두타행을 하였다. 만년에 제자들을 지도하며 법을 펼칠 때, 당시 헌종(재위 805~819년)이 무업에게 몇 번이고 궁중에 들어와 설법해줄 것을 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다음 재위한 목종이 또 다시 황궁에 들기를 요청하자, 신하를 통해 이런 말을 전했다. "가 보아야 될 일을 못 가보지만, 길은 반드시 다르지 않네." 다음날 무업은 입적했는데, 목종이 무업에게 대달국사(大達國師) 시호를 내렸다.

당나라 중기~말기에는 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말 그대로 선의 르네상스이다. 수행자들이 많다보니, 수백여 대중이 함께 거주했다. 그러면서 지방관의 보시를 받으며, 지역 발전을 이루기도 하였다.

반면 그 반대의 선자들이 있는데, 대중과 함께 거주하는 것보다 깊은 산속에서 홀로 은둔하며 시를 읊는 시승들도 많았다. 선시가 발달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인데, 이 또한 르네상스 시대 선풍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당말 오대에 접어드는 10세기 무렵, 남악 현태(南嶽玄泰)스님이 그런 경우이다. 이 현태 선사는 입적하기 직전, 이런 게송(遺偈)을 남겼다.

이제 나는 65세,
지수화풍 4대는 허공으로 산산이 흩어지려고 한다.
도는 그윽하고 현묘하나니
거기에는 부처도 없고, 조사도 없으며
머리 깎는 귀찮은 일도 없고, 목욕하는 수고로움도 없다.
이제는 한 덩어리 사나운 불길만이 남아 있을 뿐이니,
나는 이것으로 충분히 만족한다네.

–〈전당시(全唐詩)〉

"목 베겠다"는 황제 엄명에도
수행에 전념했던 唐代 선사들
'선 르네상스 시대' 개화 시켜
"가난해야 더 정진" 되새겨야

위의 게송을 남긴 현태 선사는 평소 고고한 생활에 제자 한사람도 없이 홀로 수행하다가 열반했다. 열반에 들기 전날, 한 수행자를 불러 그가 머무는 토굴 앞에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게 한 뒤 다음 날 앞의 게송을 남긴 후, 불 속에 뛰어들어 열반에 든 것이다.

현태 선사는 후배 승려들이 장례식을 치르는 수고로움을 덜게 하기 위해 평소처럼 죽음도 고요히 맞아들였다. 옛날에 스님들은 율무염주를 많이 지니고 다녔다. 그런데 인적이 드문 깊은 산골에 율무열매가 맺힌 나무를 보면, 그 곳에는 한 수행자가 홀로 죽음을 맞이한 곳이라고 한다. 즉, 스님의 법신은 썩어 사라졌지만 평소에 목에 걸었던 율무염주가 싹이 트고 자라 열매를 맺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우리나라 경허(1846~1912)선사는 홀연히 자취를 감춘 뒤 삼수갑산에서 서당선생을 하다가 입적했다. 또한 경허 선사의 제자인 수월도 그러하다.

수월은 제자가 없었고, 법문을 남기지 않아 선사의 어록이 전하지 않는다. 수월은 금강산 마하연 선방에서 조실을 지내다 홀연히 자취를 감춘 뒤 중국 간도 지방에 살았다. 스님은 만년에 북간도 왕청현 나자구 화엄사 작은 암자에 주석했다.

만년에 수월은 목욕해 마치고, 스스로 쌓아놓은 장작더미에 올라 입적했다. 입적한 날부터 7일 동안 스님의 법신에서 방광이 있었고 다비한 뒤에도 많은 사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수행자가 평생을 수행한 뒤에 홀로 가는 거야 당연하지만 인간에게 남은 마지막 연민, 그 고독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떠난 선사가 많았다.

또 송대 초, 법창 의우(法昌倚遇, 1005~1081) 선사를 소개한다. 의우는 임장(臨漳) 고정(高亭) 사람으로 운문종계 선사이다. 어려서 출가하여 큰 뜻을 품고 사방을 행각하며 수행함으로서 총림에 이름을 날렸다. 부산법원(浮山法遠, 991~1067) 선사는 의우 선사를 두고, '발초첨풍의 진정한 수행자로서 후학들의 귀감' 이라고 칭찬하였다.

의우는 만년에 분령(分寧) 북쪽 천봉만학(千峰萬壑) 가운데 담이 무너진 옛 집에 은거했다. 간혹 수행납자들이 선사에게 공부를 배우고자 깊은 산골까지 찾아왔다. 그런데 의우 선사는 제자를 친절히 지도하거나 자상하게 이끌지 않았다.

결국 제자들이 선사의 무뚝뚝함과 무성의에 원망만 잔뜩하고 선사 곁을 떠났다. 당연히 선사는 제자 없이 사찰에 홀로 머물 때가 더 많았다. 그런데도 선사는 새벽에 향을 피우고 홀로 예불하며, 저녁에 등불을 밝히고 법당에 올라 아무도 없는 데 설법하는 일을 늙어 죽을 때까지 하였다. 곧 총림에서 하는 청규를 홀로 여실하게 지켜 나갔다.

이런 선사의 모습을 알고 있던 용도각(龍圖閣) 학사(學士) 서희(徐禧, 1035~1082)는 대중이 없는데도 대중과 함께 사는 것처럼 여법하게 사셨던 선사의 위의에 감탄을 받았다. 의우는 이런 유게를 남겼다.

금년 내 나이 일흔일곱
길 떠날 날을 받아야겠기에
어젯밤 거북점을 쳐 보니
내일 아침이 좋다고 하더라.

–〈인천보감〉

생사(生死)조차 자유자재로웠던 선사의 모습이다. 근자에 어느 사찰이 '총림' 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에서 해제되었다. 그 사찰은 총림으로서의 격상에 맞지 않다는 여론에 밀려 총림에서 해제된 것인데, 다시 그 명예를 되찾을 수 없을 것 같다. 안타깝지만 현실은 현실이다. 다음은 당나라 말기의 광혜 원련(廣慧元璉, 951~1036)선사의 설법을 소개한다.

원련은 임제종계 선사로서 당시 선자들의 귀감이 되었던 인물이다. 이 법문을 통해 승려로서의 면모를 새기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선사는 대중에게 법을 설할 때면, '늘 재물과 이익을 멀리하고 먹고 입는 것을 간소하게 하라' 고 했고, 또 한번은 "만약 도를 배우려거든 먼저 배고프고 가난해야 더 열심히 정진한다. 그렇지 못하면, 도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원련 선사가 입적하기 전 대중에게 이런 마지막 말씀을 남겼다.

"내가 평소 그대들에게 재물과 이익을 멀리하고 먹고 입는 것을 소박하게 하면 반드시 도업(道業)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쳤다. 모든 죄업은 재물 때문에 발생하고, 좋지 못한 불명예는 입과 몸에서 일어난다. 나는 일생 동안 재물을 모으지 않았고, 대중에 살며 스님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이는 내 분수 밖의 일이어서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어버이를 작별하고 출가했다. 그러니 마음을 알고 근원을 통달해 무위법(無爲法)을 깨닫고자 한다면 세간의 재물을 버리고 걸식으로 만족하며, 하루 한 끼 먹고 나무 밑에서 하룻밤을 자야 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늘 어찌 그것을 어기는가! 혹 수행자가 잘 먹고 잘 입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부처님의 형상과 옷을 빌려 입고 불법문중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미 불자가 되었다면 불자다운 행동을 해야 한다. '나는 복이 많고, 인연도 많으니, 마음대로 업을 지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이들은 재물이나 명예를 얻는데 피를 본 파리처럼 결코 포기할 줄 모른다. 또 어떤 수행자들은 '나는 선을 알고 도를 깨쳤다'고 하면서 방(棒)을 쓰고 할(喝)도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대들은 반드시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인천보감〉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목사의 설교는 강한 카리스마와
고음으로 설교하며 1년 설교 내용 중 한 번만 재탕해도 교인들의 시비가 있어 늘 새로운 설교작성에 심혈을 쏟음!

염불은 청아하고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음율에 염불을 실려야 하며 천수경을 수 천번 반복해도 절대로 재탕 시비 안하는 원인은 오직! 소리 가락에만 심취하기 때문!

중·대형 사찰들의 치명적 실수 : 고가의 바가지 음향시설에 복잡, 불필요한 엉터리 부속을 잔뜩 채움으로 1.사용불편 2.고장많음 3.저질소리 4.원인은 산사 스님들의 어두운 정보력을 이용한 업자들의 농간 때문!

이런 말 하는 당신은 누구? 40년 종교음악과 소리연구로 보낸 산증인

최신 디지털시스템의 장점 : 1.기존시설과 현장소리 비교시 장난감 차이! 2.가격 $\frac{1}{3}$, 3.원하는 소리만드는 기능 내재, 4.설법은 성우소리! 5.염불은 마이크와 2m에서 장엄하고 은은한 소리, 6.최신 간편 간단시스템으로 앰프다루기 1초! 고장없음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완벽시설, 290만원 (방문시 방생용, 각종 마이크 구경, 장기할부 가능)

▣ **소리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HITEC 하이텍 미디어 **하이텍사운드전자 대표 박 공 희**

동국대학교 미래융합 대학
정행스님의 융합명상 가족세우기

– 불교의 새로운 상담기법과 실천법 –

각 사찰에서 신도분들과 운영할 수 있고 정확하게
작동하는 융합명상 치유상담기법

■**대상** : 누구나 관심있는 분
■**장소** : 서울 동국대 미래융합 대학 학술관 279호
■**시간** : 지도자과정 – 매주 화요일 19시 ~ 21시
집중수업 – 매월 둘째 일요일 10시 ~ 17시
(내담자 접수순 참여)
■**문의** : 010-8634-7851 (정행스님)

융합명상 가족세우기 특강

교육내용	· 부모 자녀 관계 회복 · 부부 관계 회복 · 가족 관계 회복 상담치료
강의기간	12월 21일(토) ~ 2020년 1월 18일(토) (5주)
강의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8시간)
강 사	가족세우기 15년, 상담 30년 정행스님
접 수	동국대 미래융합대학 학술관 010-8634-7851

융합명상 아카데미(학마을) 정행 합장

일심이 만법, 만물의 발원지



新 불교사자성어

㊺ 만법귀일(萬法歸一)

천 년 전 일이다. 어떤 수행승이 조주선사에게 질문했다.

"선사, 만법(모든 존재)은 하나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萬法歸一, 一歸何處)?" (이 수행승은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것이 만법귀일의 발단이다. 이 날카로운 수행승의 질문에 조주선사는 엉뚱하게도 "내가 청주에 있을 때 베옷 한 벌을 만들어 입었는데, 그 무게가 일곱 근이더라."라고 대답했다. 만법귀일, 일귀하처도 어려운데, 조주선사의 답은 난해하기 이를 데 없다. 솔직히 말해 해석은 커녕 추측도 불가능하다. 정답 없는 정답.

'만법귀일(萬法歸一)' 은 '모든 존재는 하나로 돌아간다' 는 뜻이다. 선불교의 세계를 드러낸 선어(禪語)로 '일귀하처(一歸何處)',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와 환상의 세트를 이루고 있는 사자성어이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필자가 20세 때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쿵했다. 무언가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주제나 질문 같은 것을 던져 주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결국 죽게 되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내 나름대로는 기막히게 풀이하고 나서 오랜 시간 그 말이 가슴에 맴돌았다.

'만법귀일' 은 어떤 식으로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은 '일귀하처' 였다.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것일까?' 물론 그에 대한 답은 아직도 모른다. 하나는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알려고 덤벼들지 않는다. 영원한 주제로 문제의식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뿐이다.

만법(萬法)은 '모든 것, 모든 존재' 를 가리킨다. 만(萬)이란 꼭 1만 개라는 숫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많다' 는 의미로 '모든 것' 을 가리킨다. 만수무강, 만사형통도 '만세를 살라' 는 말이라기보다는 죽지 말고 오래 무한하게 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삼라만상(森羅萬象)의 만상도 그런 뜻이다. 만법 속에는 유형무형의 모든 것, 모든 존재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귀일(歸一)은 귀결처, 종착점이다.

'모든 존재는 결국 하나로 돌아간다' 는 것은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평소 철학적 사색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던 주제일 것이다. 인간, 모든 존재(萬法)는 결국 어디로 돌아가는 것일까(歸一)? 존재의 귀착처. 그것은 곧 존재에 대한 탐구인 동시에 모든 철학의 주제이며 시작이다. 선(禪)도 사실은 존재, 실존에 대한 탐구이다. 그 주제가 바로 만법귀일, 일귀하처이다.

선은 무심, 무념이다. 생각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뜻이다. 고타마 싯다르타도 모든 존재를 관찰한 끝에 제행무상이라고 했다. 제행무상은 부처님이 발견한 존재론인데, 이 '제행무상' 의 진리처럼 형체를 가진 존재는 영원하지 않다. 어린 아이가 70년 흐르면 백발이 되고 그 백발은 무(無)로 변하고 공(空)으로 변한다. 일체는 모두 공이다.

〈대승기신론〉에 따른다면 '만법귀일' 은 '일심(一心)' 즉 마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일심이 만법, 만물의 발원지이다. 일심에서 존재, 비존재가 탄생한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삼계유심(三界唯心), 만법유식(萬法唯識), 일체유심조라고 했다. 만법 즉 이 현상세계는 모두 우리의 의식, 인식 세계의 작품인 것이다. 결국 일귀하처의 귀결처도 마음, 즉 일심(一心)일 수밖에 없다. '진공은 공이 아니고 유(有)' 라고 하는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이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일체는 마음으로 귀착하고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고, 만물, 삼라만상이 생성한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덕산은 두 번 쉬고, 설두는 제자리



격절록 강설

㊺ 제17칙 덕산작마(德山作麼) 1

[古則과 着語]

擧, 僧問德山 "從上諸聖 向什麼處去" (何不與本分草料) 山云 "作麼作麼" (賺殺一船人) 僧云 "敕點飛龍馬 跛鱉出頭來" (已是落他繠縷了也) 山便休去 (此機最毒) 至來日 山出浴 其僧過茶與山 山撫僧背一下 (且道 他意作麼生) 僧云 "這老漢方始瞥地" (前箭猶輕後箭深)

어떤 스님이 덕산(德山, 덕산선감)에게 물었다. "모든 옛 성인은 어디로 갔습니까?" [어째서 본분초료(本分草料)를 주지 않는가?]

덕산이 말했다. "뭐? 뭐?" [사람을 몹시도 속이는구나!]

스님이 말했다. "칙명으로 비룡마를 점검하려 했는데, 절름발이 자라가 나왔군." [이미 그의 올가미에 걸려들었다.]

덕산이 바로 쉬었다(=그만 두었다). [이 기봉(機)이 가장 독하다.]

다음날 덕산이 목욕하고 나오는데 그 스님이 덕산에게 차를 건네자, 덕산이 스님의 등을 한 번 어루만졌다. [자, 말해보라! 그의 뜻이 무엇인가?]

스님이 말했다.

"이 노장이 이제야 막 눈치를 챘군." [앞의 화살은 가벼웠지만, 뒤의 화살은 깊이 박혔다.]

덕산이 또 쉬었다(=그만 두었다). 〈이 말은 원문에는 없으나, 문맥 상 역자가 첨가하였다.〉

[拈古와 着語]

雪竇拈云 "然精金百煉 須要本分鉗鎚 (錯 下名言) 德山既以己方人 這僧還同受屈" (一狀領過) 以拄杖一畫云 "適來公案且置 (看雪竇有什麼伎倆) 從上諸聖 向什麼處去" (或有箇掀倒禪牀 又作麼生) 大眾擬議 雪竇一時打趁 (打云 你替大眾喫)

설두가 염(拈)해서 말했다.

"쇠를 충분히 단련하려면 모름지기 본분의 집게와 쇠망치가 있어야 한다. [틀렸다! 하지만 명언을 했다.] 덕산은 자기 자신에 비추어 남을 평가했으니, 이 스님도 함께 굴욕을 받아야 한다." [한 장(판결문)에 처리해버려라.]

(그리고는) 주장자로 한 획을 그리며 말했다.

"좀 전의 공안은 놔두고, [설두에게 무슨 기량이 있는가를 보라!] 모든 옛 성인은 어디로 갔는가?" [혹 선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또 뭐하는 거야?]

대중이 머뭇거리자, 설두가 한꺼번에 쳐서 아버렸다. [(선상을) 치고 말했다. "그대(설두)가 대중을 대신해서 방망이를 맞아야 한다."]

[評唱 1]

師云. 德山尋常打風打雨 為什却不打這僧. 且道 這僧如何. 可謂三級浪高魚化龍 癡人猶戽夜塘水. 你道這老漢肯做 這般去就麼.

덕산은 평소에 (방을 하기를) 바람을 치듯 비를 치듯 했는데, 어째서 이 스님은 치지 않았는가?

자, 말해보라! 이 스님은 어떤 사람인가? 가이 "삼단 물결을 뛰어오른 물고기는 용이 되어 갔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아직도 두레박으로 밤 연못의 물만 퍼내고 있다(설두 스님이 게송 구절로 자주 쓴다)"고 할만하다. (그런데도) 그대들은 이 노장이 긍정했기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말하겠는가?

這僧却道 "敕點飛龍馬 跛鱉出頭來" 這裏合打. 且道 為什麼德山不打 便休去. 是以殺人不用刀 這箇全無傷鋒犯手處. 若是活漢方可見得 若不是頂門具眼底 直下卒難摸索.

이 스님이 말하기를 "칙명으로 비룡마가를 점검하려 했는데, 눈 먼 자라가 나왔다"고 했는데, 여기서 마땅히 쳤어야 했다. 자, 말해보라! (그런데) 어째서 덕산이 치지 않고, 바로 쉬었는가(그만 두었는가)?

이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데 칼을 쓰지 않았던 것이고, 이렇게 전혀 칼끝도 상하지 않고 손도 범하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 활발발한 사람(活漢)이라면 볼 수 있겠지만, 만약 정수에 안목을 갖추지 못한 자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내 더듬어 찾지 못할 것이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㊺ 이해의 길 25

대승에서는 번뇌가 보리?

불교에 입문하여 처음으로 사찰 수련회에 참여하였다. 명상 시간이 돌아왔는데, 지도법사는 5분 동안 호흡에 집중하기도 힘들 것이라 했다. 온갖 번뇌, 망상이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깟 5분 집중하는 일이 뭐가 힘들지 하는 생각으로 명상에 들었다. 정말 그랬다. 호흡에 집중하려 했는데, 어제 먹은 짜장면이 생각나더니 갑자기 어린 시절 친구와 말다툼했던 장면이 떠올랐다. 명상하는 동안 수많은 망상들이 떠올랐다 사라진 것 같다. 그때 알게 되었다. 나란 존재가 번뇌, 망상 덩어리라는 사실을.

번뇌, 망상은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이나 절, 염불 등의 수행을 통해 이를 제거해야 열반, 마음의 평화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부파불교에서는 번뇌를 끊고 진리를 깨친다는 단혹증리론(斷惑證理論)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 같은데, 대승에서는 심하게 태클을 걸었다. 번뇌는 끊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자리가 보리(菩提), 곧 진리라고 했기 때문이다. 어찌 된 것일까?

대승불교는 중생이 아니라 붓다의 관점에서 설한다는 특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번뇌를 끊고 깨달음으로 향해가는 것이 아니라, 깨친 자리에서 바라본 세계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번뇌가 곧 보리(煩惱卽菩提)' 라는 것도 바로 이를 보여주고 있다. '생사가 곧 열반(生死卽涅槃)' 이라는 입장이나 '중생이 곧 부처' 라는 시선 역시 마찬가지다. 생사와 중생은 버리거나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본래 열반, 부처와 '하나' 인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상에 눈뜨는 것이 대승의 목표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연꽃이다. 연꽃은 결코 허공에서는 필 수 없다. 그 청정하고 아름다운 꽃이 서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진흙 밭이다. 사람들은 더럽다고 생각하여 피하려고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열반, 보리, 붓다라는 맑고 향기로운 꽃이 피는 것이다. 처염상정(處染常淨)이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이처럼 번뇌와 보리, 생사와 열반, 중생과 부처가 본래 다르지 않다는 것이 대승적 사유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내가 서있는 자리를 버리려는 소승적 태도를 대승에서는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개봉해 큰 화제를 모았던 영화 〈달마야 놀자〉는 이러한 대승적 사유를 유쾌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이야기는 세속적으로 가장 오염된 깡패들이 성스럽고 청정한 사찰에 들어가면서 시작된다. 그곳 승려들은 주먹패들이 수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쫓아내려 한다. 이를 위해 다섯 번에 걸친 내기를 하지만, 결국 3대 2로 승려들이 지고 만다. 어쩔 수 없이 함께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을 내보내려는 시도는 계속된다. 이러한 수행승들의 모습은 번뇌를 버리고 진리를 깨치려는 소승불교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눈뜬 스승의 가르침으로 제자들은 번뇌, 세속의 공간에 살고 있는 깡패들 역시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품고 가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성(聖)과 속(俗)은 본래 '하나' 이기 때문이다. 후속 편인 〈달마야 서울 가자〉 역시 내용만 다를 뿐 동일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영화는 절을 지키려는 승려와 절을 허물고 빌딩을 세우려는 깡패 사이의 치열한 대결과 갈등을 보여준다. 이들 간의 극적인 화해는 마지막 한 장면으로 압축되는데, 바로 높은 빌딩 위에 절을 짓는 것이었다. 이로써 세속, 번뇌를 상징하는 빌딩과 열반, 보리를 상징하는 사찰이 한 몸이 되었다.

우리들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거나, 힘든 일이 닥치면 피할 생각부터 한다. 그래서 '꽃길만 걸으세요.' 라는 인사가 유행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대승의 눈뜬 선지식들은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진리와 붓다라는 꽃이 핀다고 역설하였다. 구상 시인도 '우음(偶吟) 2장' 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였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그러니 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내가 걷는 지금 이 길이 바로 꽃길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2020 경자년 신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현대불교신문에 깊은 애정과 물심양면 도움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지면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불기 2564년(2020) 경자년 새해를 맞아 온 누리에 부처님의 법 향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신년 특집 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밝아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법을 수호하고, 진리의 길로 대중을 이끄는 신문으로 거듭 발전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연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사	T. 02)2004-8216	F. 02)737-0696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제 목
불기2564년(2020년) 경자년 신년 축하광고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마감
2019년 12월 23일 월요일
jabi2018@naver.com

현대불교신문

종교인과세 신고대행 안내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우리 사찰에서 신도에게 받는 시주금(기부금)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고,
스님이 사찰에서 매월 받는 보시금(급여, 개인적인 생활비)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처럼 회사에서 월급받고 세금을 납부하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연말정산하고, 관련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가 신설된 것입니다.
스님이 한 분 계시는 단위 사찰도 해당이 되며, 세무서에서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관련 신고 납부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우리 사찰에서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셔서 세법상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 2019년 종교인 과세 신고 납부일정

- **2019년 7월 10일까지** : 2019년 상반기 종교인 과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2020년 1월 10일까지** : 2019년 하반기 종교인 과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2020년 2월** : 종교인 연말정산 실시
- **2020년 2월말** : 지급명세서 제출

※ 공익법인출연자산보고, 세무조사대행,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등 사찰관련 세무신고대행하고 있습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서 "박성욱 세무사"를 검색하시면 사찰 종교인 과세관련 동영상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전화 : 051-996-0308 / 010-9878-5716 박성욱 세무사**
*** 주소 : 부산 동래구 동래로 3, 태림빌딩 3층(온천동)**
※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합니다.



세무사 박성욱 사무소

신임 박물관교육학회장에 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



박물관 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술단체인 '한국박물관교육학회' 차기회장에 한선학 원주 고판화박물관장<사진>이 선출됐다.

한국박물관교육학회는 12월 7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학회 정기총회 겸 학술세미나를 열어 한선학 관장을 제9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한선학 신임회장의 임기는 2020년 1월부터 시작한다. 한선학 제9대 회장은 국내 최초로 한양대 대학원에서 박물관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30여 년간 동아시아 고판화 유물을 수집해 2003년 고판화박물관을 설립했다. 이후 박물관교육을 통해 박물관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인사 **BBS불교방송**

△류재호 법무감사팀장 △김형준 광고사업국 마케팅부장 △전영신 보도국 정치외교부장 △신두식 보도국 경제산업부장 △전경윤 보도국 문화부장 겸 보도제작부장 △박광열 라디오제작국 라디오편성부장 △한지윤 라디오제작국 라디오제작부장 △한희권 TV제작국 TV편성부장 △김현성 TV제작국 TV제작부장 △권윤정 광고사업국 기획사업팀장 △박민희 전법후원국 전법팀장 △안해성 전법후원국 후원팀장 △박현수 전법후원국 후원상담팀장 이상 12월 12일자



군산사암聯 자비의 연탄 나눔

저소득 이웃에 연탄 5,000장 전달

군산사암연합회(회장 도연)가 연탄으로 겨울난방을 해결하는 홀몸어르신과 저소득계층을 위해 자비의 연탄 나눔행사를 열었다. 연합회 스님과 군산자원봉사연합회 불자들은 12월 8일 군산시 선양동 일대서 저소득층 17가구에 자비의 연탄 5,000장과 라면을 전달했다.

이번 자비의 연탄 나눔행사에는 군산사암연합회장 도연 스님, 수도암 주지 무진 스님, 보천사 주지 의종 스님, 성흥사 주지 보위 스님, 군산 공군부대 호국 군성사 혜준 법사를 비롯해 공군부대 호국 군성사 불자장병, 군산불교자원봉사자 불자 등 50여 명이 동참했다.

도연 스님은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추위를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에 연탄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동참한 군산불교자원봉사단 불자들은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며 "부처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겠다"고 입을 모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도서 벽지 의료봉사로 부처님 수행정신 전파"

Interview

'진료 4만 명 돌파' 반갑다연우야 황채운 단장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06년 주부신도 주축 발족
각 불자의료봉사단 · 기업 동참
진료인원만 4만 153명 달해
어촌 이어 농촌 등 봉사 확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의료봉사를 위해 발족한 봉사단 '반갑다연우야'가 12월 5일 진료인원 4만 명 돌파 기념 축하자리를 AW컨벤션센터서 마련했다. '반갑다연우야'는 2006년 4월 13일 발족한 후 불교계 복지관과 이주노동자 시설, 농어촌 등에서 무료진료 봉사를 진행해왔다. 중앙신도회가 추진하는 '불교의 사회화 운동' 일환으로 종합검진버스 1대와 치과진료버스 1대를 운영하며 찾아가는 의료봉사를 진행해 호평을 받아왔다. 출범 첫해 김천 청암사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현재 국내외 진료횟수 306회, 진료인원 4만153명이다.

창단 때부터 봉사단을 맡아 봉사를 이어온 황채운 단장은 "그동안 300여 명의 정기후원자를 비롯해 각계의 봉사 참여 덕분에 반갑다연우야가 활동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반갑다연우야라는 자비의 나무가 300회를 넘어 500회, 1000회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드리나무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황 단장은 봉은사 신도로 봉은사 주부 봉사자들과 함께 반갑다연우야를 시작했다. 동국대 의료원 연우회 등이 가세하며 점점 봉사조직을 키웠다. 한의사불자연합회, 전국병원불자연합회, 마하의료회 등 불자 의료봉사단도 동참했다.

황 단장은 "의사가 아닌 일반신도여서 의료봉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도움이 있었다. 하지만 중앙신도회에서 각 의료봉사단과의 연계를 신경써줘 봉사 폭을 넓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반갑다연우야는 매주 셋째 주 일요일 한의사불자연합회와 한방의료봉사를, 월 1회 수협과 어촌마을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황 단장은 "양 · 한방 의료봉사에서 최근 한방의료봉사만 진행해 아쉬움이 있다. 어촌마을 의료봉사와 함께 농촌과 도서 벽지에서 양 · 한방 의료봉사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 단장은 "부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신 의왕으로 아픈 이들을 보살피는 봉사 자체가 바로 수행이라고 생각한다. 보다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통해 불교의료봉사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앙신도회는 황채운 반갑다연우야 봉사단장을 비롯해 한의사불자연합회 역대회장, 전국병원불자연합회, 마하의료회와 후원기업, 이주민법당 주지, 지도법사스님 등 총 43명에게 공로 · 감사패를 수여하며 격려했다. 반갑다연우야 지도법사 연곡사 주지 원묵 스님과 법상 스님,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비롯해 16명이 감사패를, 봉사단장을 포함한 봉사단원과 한의사불자연하회, 전국병원불자연합회, 마하의료회원 등 27명이 공로패를 수상했다.

지역복지 살리는 자비의 김장

전주불교연합회 김장 행사로 불교복지시설에 2,000㎏ 전달



전주불교연합회 공동대표 덕산 스님이 행사로 마련된 김장을 생명평화밥상 이승한 국장에게 전달하는 모습.

전주불교연합회가 불교계 지역 복지기관을 위해 '자비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전주불교연합회(공동대표 덕산, 금선암 주지)는 12월 9일 전북생명평화센터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비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통해 2,000㎏의 김장을 담가 불교계 복지기관과 아동센터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전주불교연합회 소속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전북불교네트워크 오종근 공동대표, 안준아 전북불교룸비니산악회장, 유지원 자연음식문화원장, 전북불교대학 최을순 합창단장을 비롯해 금선암, 전북불교룸비산악회, 전북불교대학, 전북불교네트워크, 대불련전북지부, 대불련총동문회 전북지부, 자비공덕회 회원 30여 명이 함께했다.

금선암 등 지역사찰과 회원단체, 시민들이 십시일반 후원으로 마련된 자비의 김장김치는 송광 정심원, 금산백련마을, 전주서원노인복지센터, 전북생명평화밥상, 전주아동센터 등에 전달됐다.

전주불교연합회 공동대표 덕산 스님은 "전주불교연합회는 창립취지에 맞춰 지역불교 발전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회원들의 힘을 합쳐 정진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상황에도 많은 단체와 회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김장 나눔을 실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생명평화밥상 이승한 국장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매년 김장김치를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정성껏 담은 김치로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제공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사 회향, 동국대 장학금으로"

법륜사 주지 경봉 스님, 동국대에 1억원



용인 수지 법륜사 주지 경봉 스님은 12월 10일 법륜사에서 동국대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에게 장학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경봉 스님은 "법륜사 40년 불사를 회향하며 동국대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종호 스님은 "스님께서 희사하신 기부금은 '금장 장학' 이라는 장학기금으로, 학생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김장으로 전한 훈훈한 마음

범어사, 배추 4000포기 담가 복지시설 전달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는 12월 5일 공양간 앞마당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범어사는 매년 겨울 사부대중이 모여 김장 행사를 진행하고 이웃에게 회향하고 있다. 올해는 김장 4000포기 총 500박스를 사회복지법인 범어에 전달했다. 범어는 소속 복지기관에 김장을 나눠 소외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환자 건강 돕는 곰탕 기부

㈜국제식품, 1000만원 상당 미소원에 기탁



㈜국제식품(회장 정창교)은 12월 5일 1000만원 상당 곰탕을 사단법인 미소원에 전달했다. 국제식품이 후원한 곰탕은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전달되며, 특히 국립마산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의 보양식으로 회향된다.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은 "국제식품 후원 덕에 결핵환자들에게 건강식을 대접할 수 있어 기쁘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KBS 과학카페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73호 | A13 | 전면광고

구하는 것이 있으면 다 괴롭고,
구하는 것이 없어야 비로소 즐겁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속고승전》에서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 • •

창원 문수사 공양주,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사찰운영 및
운전가능 하신분

• • •

창원시 합포구 교방남4길
95-8 문수사
010-3132-9666

찰라지간에 성불하는 비법안내!!

- 해인삼매를 터득하면 즉신성불한다.
- 믿음은 법신불에 대한 믿음이다.
- 발 보리심은 법신불로부터 받는 것이다.
- 시공을 초월한 신통력자가 된다.

•• 안내서를 보내겠습니다. ••

010-7131-7084

★책-검색★

①**인생최고의 깨달음**(참불교)
②**천기소설 예언자**(현존불)
③**기도와 명상**(최상수행법)
④**천등산**(신통해탈기도비법)
⑤**출세의 기술**(성공출세술)
⑥**운타이밍재테크**(평생부자)

위 책이름검색 / 1권 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아는소리 공개강좌

(3개월 단기교육 완성)

"스님의 말씀이 곧 법문이
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3개월 교육비 : 5백만원**
-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 영점이나 점성술이 아니고 정확한 명리학 통계 데이터(공식)입니다.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84번길 48 공단상가 4층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 석지성 합장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재의식 속성 지도도량

49재 천도재 속성지도합니다.

사찰 포교원 암자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없이 염불소리로 재의식을 여법하게 진행할수 있게 속성으로 지도합니다. 관심있는분 연락바람.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까지 (4주완성)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204
중앙시장내 법공스님
010-4382-3448

충북 감곡 봉은사 공양주 모십니다

60세이상 가족같이 지내실분

봉은사에서는 스님분들 염불, 음치교정, 전통가요, 민요, 관음시식, 체계적으로 강의

문의 010-5883-2255
010-5893-3705

• • •

부 전 스 님
모 십 니 다

• • •

010-2078-9595

• • •

부산 도심 산에있는
암자입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 •

010-2168-2800

전문 상담사 양성 무료교육

◎ 대상 : 종교인, 장애인, 극빈자 ◎
◈ 출장전문 무료교육내용 ◈

철학, 한의학, 심리학, 점술,
신경성질환, 성문제, 부부문제
암, 우울증 극복, 성격분석

◒ 본원 : 서울, 경기양주, 심리철학관 ◒

正翰 李東起 010-4078-7810

비법

구하는 게 틀림없이 얻어진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단원 정통 명리학

- 교육 : 수시접수 | 초급, 중급, 연구(격국)반 접수 | 1년 과정 — 수강료 : 360만원
- 단원 정통 명리학 : 실증철학 정규과정 수강생 접수 — 단원역리학협회 법인 자격증 제도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 학문

지현명리연구원 : 역학전문교육처 志晛 : 韓 基子(恩炅)
명리학 / 작명학 / 육효학 / 간지체성론과 육십갑자론(특허)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명륜4가 54-1 3층 웹사이트 cafe.daum.net/3332han cafe.naver.com/3332han

단원역리학협회 010-4470-6314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 매주 화요일, 수요일 주 2일 [월 8일]
- 수강료 : 월10만원

◈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 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

청곡 이한동 화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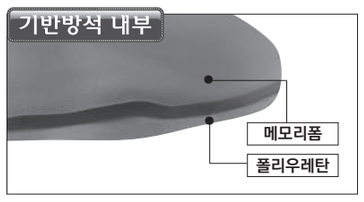
02)2004-8216 / 010-3747-8692

세 계 최 초

기반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TEL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매듭으로 뭘 만들까요?

모던하고 멋있는 장신구는 물론, **108염주**, 인테리어 소품, 단주, 묵주도 만듭니다.

◈ 매듭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드립니다. ◈

지도 성낙윤 010-5282-8431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 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 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의 한 종류로,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 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희담석 108염주 세트 40,800원(무료배송)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계좌 안내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02)2004-8216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2004-8216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명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 때 꼭 필요해요.



다보명차 (유기농 야생녹차)

최고의 향, 맛, 빛깔, 효능으로 머리 시원, 몸 따뜻
수행 짱! 아랫배 단전에 기운 모여 손발 따뜻!
우수한 제조 비법 100℃ 물에 차잎 생생~ 떫은 맛 NO!



氣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 힐링베개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 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 불기 2563년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

불자정보

1273호 | A14 | 전면광고

큰 바다는 널리
온갖 물을 받아들이지만
차는 일이 없고 넘치는 일이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대승장엄경론》에서

삼보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34평
◎ 요사 : 34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대지 : 196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8천

❖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절대 비밀보장 ●
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포교원 전세 안내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루원시티(인천전철2호선 5분거리, 서울7호선 연말개통)교통편리
- 주변재래시장 인근 유동인구 최다, 20년 운영중인 포교원
- 3층건물 : 반지하 1층 요사채(방2개, 공양간, 야외화장실), 2층 주지실, 상담실겸 서재, 거실. 3층 법당, 제반시설 완벽하고(삼존불, 신중탱화, 칠성, 산신, 소불, 인등)
- 주차장 및 도시가스 시설 완벽, 몸만 오세요
- 전세 사신 후 저렴하게 양도가능, 투자가치 확실
- 전세보증금 : 2억(절충가능)

문의전화 010-5002-7392

강남건물 안내

- 가액 : 41억
- 위치 : 서울 서초구 논현역 1분, 신사역 5분
- 대지 : 78평 • 연면적 : 165평
- 규모 : 지상1층 ~ 5층 2009년식, 승강기

010-5334-9814

광진불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00평
◎ 법당 : 50평
◎ 요사 : 60평 외
◎ 매가 : 27억 5천

◎ 위치 : 강원도
◎ 부지 : 7000평
◎ 법당 : 30평,외
◎ 요사 : 60평,외풍광보장
◎ 매가 : 20억 5천만원정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채권 채무상담 받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 임대합니다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근처에 있는 사찰
- 대지 700평 : 대웅전. 지장전. 관음전. 산신각. 요사채
- 전세 5천만원 / 월 50만원
- 공양주가 있어야 함

010-3636-6477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산청군
-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부속건물: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4층 건물에 3층, 40평
- 법당, 상담실, 방2, 주방, 화장실, 주차장, 옥상에 창고사용, 도시가스
- 보증금 1500만원 / 월세 50만원 (시설비 협의)

010-8695-6537

별장같은 토굴

- 위치 : 경북지역 일월산자락 아담한 현대식 목조건물
- 앞마당에 계곡물 흐르고 스님 공부하시는데 아주 좋은 도량
- 대지500평.농지500평.건평 30평.법당은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2억3천(가격 절충 가능)

010-5424-4969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 종무소.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2층 공양간 / 3 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 38평 • 요사 : 65평
- 대지 : 1천평 • 임야 : 4천평
- 가액 : 11억

010-4547-499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 4층건물 2층, 30평, 법당, 삼존불, 방3개, 식당, 화장실2개
- 보증금 1천만 / 월 60만
- 시설비 500만
- 스님 건강때문에 급매

010-3884-0122

포교원 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4층 건물 내 2층(45평). 시설 특A급
- 법당 : 칠보 삼존불(석가, 관음, 지장) 천수천안. 신중단. 영단. 수미단 3단
- 소불 : 550불. 법당, 요사, 공양간, 창고
- 촛대, 향로, 불기, 다기(전체 방자) 등 320개
- 보증금 1천만원 / 월 35만원
- 시설비 : 3천 5백만원

010-8424-0042

사찰·기도(터)안내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주록리 148-2번지, 북여주IC. 동곤지암IC에서 10분거리 기도터로 좋은 대지.전답(650평)
- 토지 : 2148m²
- 건축물면적 : 135.49m²
- 가액 : 4억5천

010-9506-2549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하동군(지리산 청학동)
- 부동산 양도
  1. 한옥: 건평 155평, 대지 1,180평 / 15억 5천만원.
  2. 유스호스텔: 건평 230평, 대지 600평 / 9억원
  3. 전답: 700평 / 평당 35만원
- 블로그: https://blog.naver.com/ree3101

010-3835-713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 2층건물에 2층, 약 80평 쑥뜸방 약 20평 겸업, 고정수입 있음.
- 삼존불 봉안, 호신불, 108불
- 보증금 250만 / 월 35만
- 시설비 4000만
- 역학하시는 분이나 법사 환영

010-9422-1233

사찰·터(암자,포교당)상담전문

살 분 ⟷ 팔 분

- 전문 중개한 경력이 많음
- 전국 보유하고있는 정보 많음
- 비밀보장, 일 처리가 원만합니다.
- 성심성의로 상담합니다.

(불자업소)공신공인중개사

010-3382-0555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010-5421-1536

스님을 모십니다

- 부산북구 재래시장 근처 신협~농협중간
- 건물2층 60평 냉온난방, 보안, 주차시설
- 포교원을 운영하실 스님 연락 주세요!
- 월세30만/관리비10만

010-4535-2568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익산 부근
- 평수 : 절터 900여평, 법당1, 요차채2, 종각, 종중땅, 전450평, 답 2400평, 국유지대지 250평, 승계 • 타인에게 농사 맡겨서 쌀80kg 20가마 수입
- 가액 3천 9백만원

010-7182-7646

사찰 안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사찰(급)다용도 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 대지173평, 임야(밭)39평
- 건축 : 1층식당 7평(32평6홉) 방5개, 거실1, 실내화장실3개, 실외2개, 2층다용도(삼존불)외 논17평5홉
- 상수도, 용천수, 산천수(풍족)
- 가액 : 2억9천만원(절충가능)
- 농협은행 1억7천만원 담보대출

010-9612-1022

토굴 안내

- 위치 : 영덕군 창수면 소재 토굴양도
- 법당, 산신각, 요사채 각 1동
- 가액 : 3천8백만원
- 문중땅 도지세 1년 20만원

010-5714-787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경관 수려하고 아늑한 모든것이 완벽한 사찰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 대지 1천평, 임야 1천평, 법당 35평,산신각, 종각 육송소재, 주지실 14평, 요사채 60평
- 지하창고12평,화장실,욕실,차고 25평
- 가액 : 7억 5천만원(대출4~5억 가능)

011-9324-4461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 3층건물중 3층(약70평)
- 삼존불, 원불280불, 산신각
- 보증금 1천만 / 월 60만
- 시설비 : 협의후 결정

010-2125-4684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 2층건물에 2층, 약 80평 쑥뜸방 약 20평 겸업, 고정수입 있음.
- 삼존불 봉안, 호신불, 108불
- 보증금 250만 / 월 35만
- 시설비 3천5백만(조정가능)
- 역학하시는 분이나 법사 환영

010-9422-1233

포교당 안내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전세5천만원/월세50만원
- 시설비 1천 5백만원
- 도로변 상가건물 2층
- 132m²(40평) 법당, 접견실, 방1, 주방, 화장실

010-2535-9910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금사동 2층 포교원 (시장옆)
- 30평, 법당 15평
- 보증금 : 1천만원 월세 : 37만원

010-9048-6188

사찰건물 안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동 등산로 접함
- 주차가능, 공기맑고 텃밭있음
- 건평 : 30평, 국유지 90평
- 보증금3천5백 / 월50

010-3885-8989

◑ 입종 안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불교조계종대학림 02)511-1080

불교조계종(총무원) Tel 02)511-2026~7 | Fax 02)511-2028

멋진 2층상가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 대지 : 총 217평

1층 : 상가 약 45평(방6개)
2층 : 주택 약 35평(방3개.거실. 화장실)잔디마당 및 조경좋음

- 가액 : 3억에서 5천 빼드림(조정가능)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암자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 시설비 4,850만원
- 월 20만원

010-7289-0059

토굴(급)안내

- 위치 : 부산금정구 지하철2분,버스2분 거리
- 골프장옆, 법당.요사,주방50평, 산신각3평
- 대형마트 은행 병원 시장 전부 다 있음
- 오르막 없는 평지에 주차 공간 넉넉함
- 전월세 가능(보3천/월35만, 시설비無)
- 인연 닿는 스님께서 먼저 전월세로 살아 보신 후 양도도 가능 합니다.

010-7121-3030
010-3574-3303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평범한 여성들이 출가한 이유는?

캐나다 공영방송, 비구니 출가 일화 등 소개

박정현 객원기자

"부모님과 남자친구에겐 충격이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단 한 순간도 내 결정을 후회한 적 없다." 올해로 출가한 지 15년째인 비구니 이본 스님의 얘기다. 평범하기 그지없던 20대 여대생이 불교에 발을 디딘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캐나다 공영 방송 CBC가 캐나다의 비구니 연수 기관 'Great Wisdom Buddha Institute'에서 수행 중인 비구니 이본 · 사브리나 · 조아나 · 엘레나 스님 등과 인터뷰를 했다.

이본 스님은 대만에서 태어나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성인이 되면서 미국으로 이민, 퍼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그때만 해도 남자친구와 풋풋한 사랑을 하는 여느 여대생과 다름없었다.

"내 꿈은 현모양처이자 성공한 사업가였다"고 밝힌 이본 스님은 출가하는데 있어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한다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관계에 문제가 있어 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고, 그에게 출가에 대해 입을 뗄 때마다 우리는 함께 울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15년이 흐른 지금, 이본 스님은 당시 선택에 대해 단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본 스님에게는 이성에 대한 욕구보다 더 큰 삶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말한 '가치'는 바로 자신의 인생. 그는 "퍼듀 대학에 다닐 당시 교수님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

이본 · 사브리나 · 조아나 스님
캐나다 비구니 연수기관 수행
'삶의 가치' '타인 위해' 출가해
스님들 "불교에서 답 찾았다"

엇인가' 라고 물었는데 600명의 학생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순간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나는 출가했다. 그리고 지금도 탐구한다"고 했다.

출가한 지 13년이 된 사브리나 스님도 마찬가지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성장



왼쪽부터 사브리나 · 조아나 · 이본 · 엘레나 스님. 사진출처=CBC

한 그는 LA다저스와 인기 팝 그룹이었던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열성팬이었다. "아주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가족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그다.

그러던 사브리나 스님이 출가한 계기는 바로 '타인'이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니며, 누구나 인생에서 희(喜)와 고(苦)를 함께 겪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심리학 전공을 선택했고, 이후 동남아시아 불교국가로 '불교 유학' 길에 올랐다.

남다른 에너지의 소유자이자 치장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던 조아나 스님도 "어린 시절 가장 친한 친구가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그를 도울 방법을 고심하면서, 세상에는 그 친구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 속에 허덕인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자신보다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해 고행을 택한 비구니 스님들. 이들은 인간의 고통과 번뇌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지금도 부처님 지혜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항상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과 같은 행복만 누렸다. 그런데 내가 수행자가 되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불교에서 그 대답을 찾았다."(엘레나 스님)

"달라이라마 후계에 中 개입 말라"

히말라야 불교지도자들
티베트 종교회담서 결의
중국정부 주장 강력 거부



티베트 종교회담에 참석한 불교지도자들과 함께한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달라이라마의 후계를 둘러싸고 중국정부의 주장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가운데, 히말라야 지역 불교도들이 중국정부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12월 4일 '라디오 프리 아시아(RFA)'는 중국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결의안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인도 다람살라에서는 '티베트 종교회담'이 개최됐다. 이 회담은 인도 · 네팔 · 라다크를 비롯한 히말라야 문화권과 티베트 불교권의 종교지도자, 지역대표들이 모인 회담으로 올해 제14회를 맞았다.

회담에 참석한 불교지도자들은 "달라이라마의 후계와 계승에 대한 중국의 주도권 주장을 거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 공식 발표했다. 달라이라마의 후계 주도권이 베이징 중국정부에 있다는 주장은 티베트불교계와 중국정부간의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회담에 참석한 티베트의 고승 간댄 샤르쩨 켄수르 린뽀체는 "히말라야 지역과 달라이라마는 문화적으로나 영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켄수르 린뽀체는 "달라이라마가 히말라야 · 티베트 불교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력은 헤아릴 수 없다. 그만큼 환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달라이라마의 환생과 후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린뽀체는 PFA 티베트어판 인터뷰에서 "이번 결의안 채택은 히말라야권 불교도들이 달라이라마의 후계권에 대한 중국정부의 월권행위를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27일 개회사를 위해 회담장에 방문한 달라이라마는 결의안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결의안은 "그 어떤 정부도 (후계에 대한)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고 선언하며 "달라이라마의 전통을 이어가길 바라는 티베트인들의 강한 희망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선택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만약 중국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을 이유로 달라이라마의 후계를 선출한다면, 티베트인들은 결코 그 후계자를 인정하거나 존중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티베트 종교회담 측은 결의안의 기본 골자는 유지한 채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어 인도정부의 결의안 지지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히말라야권 불교문화협회장을 맡고 있는 라마 최펠 쇠빠 린뽀체는 "만약 가능하다면 달라이라마의 환생자가 인도-히말라야 지역에 태어나길 바란다"고 표명했다. 린뽀체는 "이 바람은 중국정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으며, 또 달라이라마에게 신심이 깊은 히말라야 문화권의 사람들의 소망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역대 달라이라마 중 4대 달라이라마와 7대 달라이라마는 각각 몽골과 인도에서 태어났다.

박영빈 객원기자

동부티베트서 13세기 불교 벽화 발견

팔라왕조 양식, 인도-티베트 미술 교류 사료



유적에서 발견된 보살도 벽화의 파편. 사진출처=AFP통신

동부티베트의 산속에서 귀중한 불교미술품이 발견됐다. 12월 4일 중국의 '신화통신'과 'AFP 뉴스' 등은 800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고대의 불교 벽화를 특별 보도했다.

벽화가 발견된 곳은 메콩강의 상류인 난창강(瀾滄江) 수원지구가 소재한, 암도 지역 율쑬주(現 칭하이성 위쑤 장족자지주) 낭첸현 사원유적이다. 유적은 지난 6월경 같은 현의 싸르다 지구의 다창 마을에서 도로개설을 위한 공사 중 계곡에서 발견됐다.

발견당시 유적은 5개의 석벽이 서있는 건물의 유구가 남아있었고, 이 중 내벽의 3곳에서 벽화가 발견됐다. 벽화는 내벽에 바른 흙 위에 프레스코화 기법으로 그려졌으며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했다.

유적의 조사를 실시한 베이징 고궁박물원 티베트불교 문물연구소의 뤄원화 소장은 "벽화의 화풍은 8세기 후반에서 12세기 후반까지 동북 인도를 지배한 팔라왕조의 미술양식을 따르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팔라왕조의 영향이 뚜렷이 보이지만, 그림 아래에 남은 티베트어 화제 등으로 보아 13세기경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했다. 뤄 소장은 "연대적으로는 해당지역에서 발견된 벽화 중 가장 오래된 벽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첨언했다.

이번 벽화의 발견은 기존에 팔라왕조의 불교미술이 티베트불교와 중국에 영향을 미쳤던 11~13세기 불교미술연구의 주요한 사료가 될 전망이다. 낭첸현 문화관광국은 "사료가 적은 고대 불교 벽화가 발견됨에 따라 암도 지역 선주민들의 문화적 활동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박영빈 객원기자

호류지 새해맞이 '불상청소'

1994년 세계문화유산 지정 이후 매년 봉행



불상에 1년간 쌓인 먼지를 터는 스님들. 사진출처=산케이신문

세계문화유산 일본 천년고찰 호류지(法隆寺)에서 특별한 행사가 봉행됐다. 매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 법당의 불상을 청소하는 '오미 누구이(お身拭い)' 법요다. 12월 9일 일본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닛폰 텔레비전' 등 주요 언론들은 호류지의 오미 누구이를 보도했다.

'오미 누구이'란 우리말로 몸을 닦아낸다는 뜻이다. 불상에 쌓인 먼지나 때를 털고 닦는 이 행사는 일본의 여러 고찰에서 연례행사로 전해온다. 일반적으로 유명한 오미 누구이는 나라 토다이지(東大寺)의 대불을 청소하는 오미 누구이다. 호류지는 사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다음 해인 1994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12월 중에 봉행하고 있다.

12월 9일 오전 10시, 호류지의 대중스님들이 오미 누구이를 위해 사찰의 중심전각인 금당에 모였다. 먼저 호류지를 대표하는 오노 켄묘 관장스님을 법주로 발견식(撥遣式)이 봉행됐다. 청소 중에 신앙의 대상인 불상을 대한 악업을 피하기 위해서, 점안의 반대인 발견의식을 통해 불상을 보통의 조각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관장스님을 비롯해 9인의 스님들이 독경을 이어가는 가운데 청소가 시작됐다.

길이 3m 가량의 대나무 장대 끝에 부드러운 일본지를 붙여 만든 먼지떨이와 작은 붓 등을 사용해 1년간의 먼지를 공들여 털어냈다. 청소가 끝난 후에는 다시 점안식을 거쳐 여법한 불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날 오미 누구이는 금당의 본존불을 비롯해 호류지 내의 국보급 불상들이 모셔진 법당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됐다.

호류지 측은 "호류지의 오미 누구이는 새해준비의 첫 시작"이라며 본격적으로 새해를 맞이할 준비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멀리 도쿄근교에서 관광차 왔다가 오미 누구이를 보았다는 한 회사원은 "스님들이 정중하게 불상의 먼지를 털어내는 모습을 보니 절로 몸이 시원해지는 듯하다"고 감상을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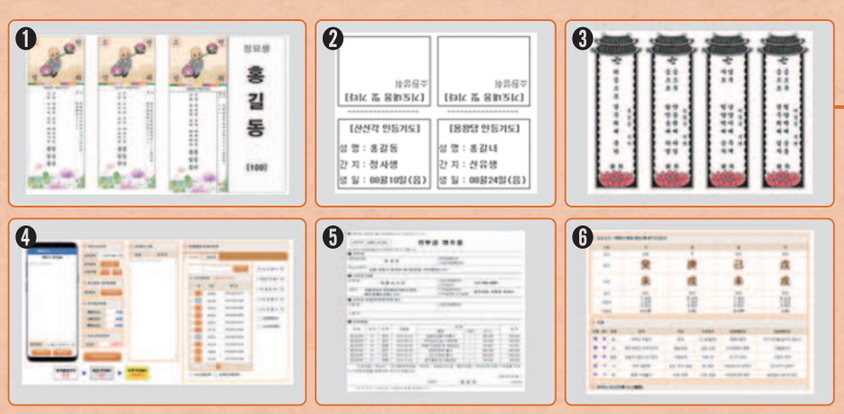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GM since 2015 GMSOFT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통찰명상

조셉 골드스타인

〈4〉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마음 장애, 손님일 뿐 주인 아니다

명상 수련회를 시작할 때 대개 삼보에 대한 귀의로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불(佛), 법(法), 승(僧) 삼보에 대한 귀의는 각각 깨달은 마음, 깨달음에 이르는 길, 깨달음의 길을 가는 수행 공동체에 귀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의례적 행위로 삼보에 귀의하기도 하며 그것 역시 나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보에 대한 귀의는 그보다 깊고 직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괴로움이 끝난 경지에 이르려면 괴로움을 정면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괴로움을 피해 가는 길은 없습니다. 열심히 수행의 길을 가면 붓다가 말한 마음의 해탈을 확실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황홀한 축복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수행은 많은 부분 우리 마음의 닫혀 있고 불편한 곳을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수행을 통해 닫히고 불편한 마음자리에 대한 저항이 사라질 때 자유가 생겨납니다. 마음이 훌쩍 넓어지고 크게 명료해집니다. 이렇게 그간 닫혀 있고 불편했던 마음자리가 녹아 사라질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치유와 벗어남의 과정이 언제나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면의 불편한 마음자리가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편해하는 마음자리 중 하나가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이러한 자기혐오의 마음으로부터 해롭고 파괴적인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삼보에 대한 귀의는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해로운 마음 습관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안과 자기 의심, 무가치한 존재라는 생각이 가득할 때 붓다에 대한 귀의를 통해 우리 내면의 불성(佛性)과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온갖 불편하고 힘든 감정을 느낄 때에도 붓다에 귀의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가진 깨달음의 잠재력과 역사적 인물인 붓다의 지혜에서 안식처를 발견합니다. 이 깊은 안식처에 있을 때 우리는 자기 거부와 불안이 우리의 본래적 속성이 아니라 마음의 일시적 현상임을 알아보는 힘을 갖습니다.

한번은 달라이 라마가 매사추세츠 바(Barre)에 있는 우리의 명상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무가치함과 자기 의심이라는 뿌리 깊은 느낌에 관하여 달라이 라마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달라이 라마는 멋지게 응대했습니다. 내 경험으로 볼 때 그는 언제나 놀라울 정도의 자비심을 체현해 보입니다.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보내는 달라이 라마의 사랑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강렬한 순간이었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대답은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마음 상태를 '나'로 동일시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에 부드럽게, 그러나 강력하게 틈을 냈습니다. 이 훌륭한 스승은 우리가 마음 깊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에 대한 의심과 불안, 두려움의 아래에서 우리 마음의 본성은 여전히 순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혐오로 마음 불편한 현대인
마음의 본성은 여전히 순수하다
스스로 무가치하다는 생각 들 때
조용히 생각 바라보면 사라진다

마음에는 여러 가지 장애와 오염물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장애와 오염물이 한동안 우리의 마음을 물들이는 때도 있지만 그들은 '손님'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동했든, 어떤 일이 일어났든, 또 현재와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는 누구나 지혜와 연민심이라는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다르마가 펼쳐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르마를 깨닫기 위해 거기에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 거기에 열리면 됩니다.

불안과 자기 의심, 나는 무가치하다는 생각에 잘못 이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이 감정들을 부정하거나 없는 듯 덮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엄연히 존재하며 우리 마음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감정을 부정하거나 없다고 치부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감정들이 갖지 않은 의미와 중요성을 거기에 보탤 필요는 없습니다.

삼보에 귀의하십시오. 달라이 라마는 다음과 같은 따뜻한 조언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머리를 붓다의 무릎에 누이십시오." 바로 지금 당신의 불성에, 다르마의 본성에, 그리고 깨어남의 길을 걸어간 수많은 존재들의 공동체에 귀의하십시오. 귀의처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본래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 내면의 가장 안전하고 성스러운 귀의처입니다.

죄책감을 대하는 법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생각과 자주 짝을 이루어 일어나는 감정이 있다면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라는 마음 상태 또는 감정은 자신과 타인에게 괴로움을 가져오는 잘못된 말과 행동을 했을 때 흔히 고개를 내밉니다.

그런데 잘못된 말과 행동을 했을 때라도 나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말과 행동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흔히 습관적으로 자신을 질책합니다.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혹한 자기 평가는 자아의 속임수입니다. 마음 또는 자아는 우리를 속여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나'라는 자아 감각이 더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자아 감각은 한 번 제거하면 그만인 고정적인 마음의 구조물이 아닙니다. 마음이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나'로 동일시할 때마다 자아 감각은 매번 새롭게 일어납니다. 한편, 마음이 깨어 있는 순간에는 지혜가 생겨 자아의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자아가 존재한다는 망상도 모든 현상처럼 지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입니다. 깨어있음의 지혜와 자아가 존재한다는 망상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있을 때는 망상이 없어지고, 망상이 생기면 지혜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몰아냅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죄책감을 나로 동일시하고 '자아'로 여길 때 죄책감은 더 커집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관찰하지 못하면 죄책감은 더 불어납니다. 다음번에 마음에 죄책감이 일어나는 때가 오면 죄책감 자체를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삼아 보십시오. 죄책감을 관찰하고 알아보고 받아들이며 '나'로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책감이라는 질긴 마음의 힘이 실은 엉성한 '종이호랑이'에 불과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죄책감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관찰하십시오. 관찰하는 순간 더 이상 죄책감을 '나'로 동일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죄책감은 떨어져나갈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우리는 죄책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응대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돌이킴(wise remorse)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행동에 일정한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지혜롭게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앞으로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힘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해 자아를 강화시키는 술수를 씁니다. 우리는 현명한 돌이킴을 통해 죄책감의 이런 술수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돌이킬 때는 용서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용서는 무엇이든 고정적이지 않고 변화할 수 있다는 진실을 알아보는 마음입니다. 용서의 마음은 한번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또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진실을 압니다. 반면 죄책감에는 용서의 마음이 없습니다. 죄책감은 부정적 자기 평가를 통해 자아 감각을 불변의 고정 상태로 만듭니다. 죄책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나쁘면 영원히 나쁜 거야."

한번은 명상 수련회에서 나의 어떤 행동에 죄책감이 크게 일어나 매우 불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책감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지금 죄책감에 어떻게 얽혀 있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이 죄책감은 도대체 뭐지? 이 괴로움은 무엇 때문이지?" 마침내 나는 그때의 죄책감이 '나'라는 자아 감각을 만들어내기 위한 에고의 술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불교에는 수행자를 유혹하고 수행을 방해하는 마라(Mara)라는 악마가 있습니다. 사실 마라는 우리를 벗어남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온갖 생각과 욕망, 무지와 미망을 상징적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장차 붓다가 될 보살이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마지막으로 기울일 때 보리수나무 아래 정좌한 그를 위협하며 집중을 깨트린 너석도 마라였습니다.

나는 당시 내가 느끼던 죄책감이 마라의 계략임을 알고는 마라를 향해 손가락을 좌우로 흔드는 수행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붓다가 마라를 향해 "마라여, 나는 너를 보았다"고 말한 것처럼 나도 마라에게 손가락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마라여, 나는 너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마음으로 마라에게 거부의 뜻을 전하는 것만으로 죄책감을 '나'로 동일시하는 속임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내가 느끼던 죄책감도 즉시 사라졌습니다.

그 뒤에는 위에 말한 현명한 돌이킴의 참된 느낌이 일어났습니다. 현명한 돌이킴으로 "나는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의 수렁에서 벗어났습니다. 현명한 돌이킴을 통해 기억에서 나를 괴롭히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깨닫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노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죄책감에 걸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음에 죄책감이 당신의 마음에 고개를 내밀면 위에 말한 '손가락 흔들기 명상'을 해보십시오. 죄책감은 여전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 넌 당해도 싸. 이따위 행동을 하다니 넌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야." 당신은 죄책감이 하는 말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죄책감의 이런 생각을 '나'로 동일시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마라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한편 마라의 계략을 알아보고 손가락을 흔들며 "마라여, 나는 너를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죄책감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나'로 동일시하면서 거기에 힘을 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돌이킴의 느낌에 필요한 마음 공간이 마련됩니다. 이제 잘못된 행동을 했더라도 당신은 그 행동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열린 채로 그것을 똑바로 보면서 그로부터 배움을 얻습니다. 그런 다음 용서의 마음으로 그 행동 역시 고정불변하지 않음을 이해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에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널따란 공간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내면에 일어나는 죄책감에 대하여 나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알 때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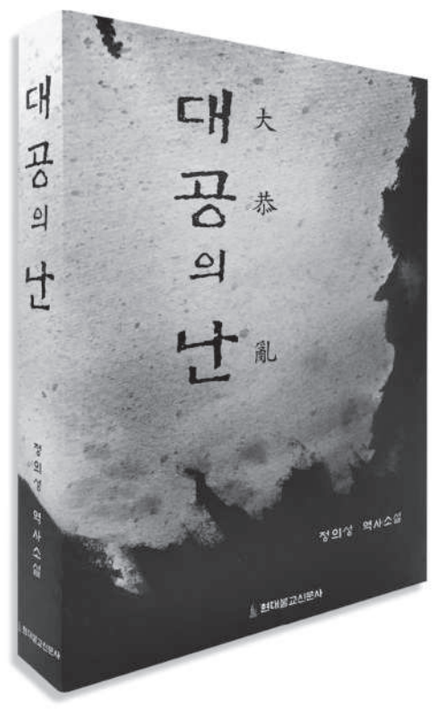
이 글은 조셉 골드스타인의 〈통찰명상〉(마음친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대행 스님

일체 만물만생의 마음을 한마음에 넣는다면 그게 부처예요

남들은 불사를 해서 신도분들을 춥지 않게 하는데,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추운데도 저 바깥에 서 있어야 하고 애들은 울고 그럴 때 보면 아주 제가 부족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여러분이 추운데 저기 서 있는 걸 보니까요. 허허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로 다 한 자리에 앉아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도반이 돼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걸 볼 때 참 감개무량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체 만물만생을 볼 때 동물이든 또 고등 동물인 사람이든 누구나가 차원은 다르고 모습은 다를지언정 모두가 특기 하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비하게, 어떻게 그렇게 골고루, 말은 뒷발을 주고 소는 앞 뿔을 주고 이러듯이 말입니다. 생긴 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자연의 법칙으로 그렇게 된 것을 생각하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인간은 인간대로 모든 일체 만법을 객관으로 들여서 주관에서 소화하고 또 배출시키고 하는 그 능력이 인간에게는 주어졌죠. 이 모두가 고등 동물인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99%는 부처라고 이렇게 일컬어 말합니다. 그 기능을 모두 소화시킬 수 있고 모두 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으로 그런 걸 그렇게 능히 소화시켜서 배출시킬 수 있으련만, 그거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물론 인간도 천차만별의 차원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로보트를 작동시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컴퓨터가 없으면 그 로보트는 운영을 못 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자라지 못하듯. 그거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인간의 두뇌가 컴퓨터라면, 몸은 바로 로보트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간의 두뇌가 전체를 다 흡수해서 배출시키는 그 영향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안 그렇다고 그래야 나도 배우죠. 허허허.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믿는 것을 어디다가 중심을 두고 믿습니까?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누구가 가엾은 나를 도와줄까요? 누구가 내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줄까요? 누구가 내 가난을 알아서 해결해 줄까요? 누구가 내가 병이 들어서 죽어 갈 때에 어루만져 줄까요? 이 모두가 바로 머리, 두뇌가 컴퓨터라면 내 몸을 작용시키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림 · 최주현

을 다 송두리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그 두뇌 컴퓨터를, 즉 오신통(五神通)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컴퓨터라고 이름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섯 가지의 문제를 통틀어서 원자라고 한다면 그 원자 속에서 다 소화시켜서 배출시키는 그 영향력을 가진 게 바로 자기 두뇌 컴퓨터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누구를, 부처님께서도 누구를 믿느냐. 허허. "너 먼저 찾아라. 본래 있는 것이니 찾는 게 아니라 바로 발견하는 것이니라." 이 모두 여러분이 믿고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거는 가상한데, 어떻게 해야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고, 이렇게 바쁜데 그거 찾을 사이가 어딨어? 또 이렇게 큰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주인공 이름 부르고 있을 사이가 어디 있느냐.' 이러겠지만, 본래 그렇게 다섯 가지의 오신통이 한데 합쳐져서 그거를 컴퓨터라고 이름을 짓는다면, 모든 일체를 내부에서 받아들여서, 외부의 모든 것을 일체 받아들여서 소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컴퓨터는 입력된 것만 해결해서 로보트가 움죽거리겠지만, 우리는 자동적인 컴퓨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떠한 것이 들어와도 소화시킬 수 있고 어떠한 것이 들어와도 배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두뇌는 첨단을 요한다. 여러분 자신으로서는 '나는 못나서, 나는 죄가 많아서 이래.' 이러겠지만, 그거를 아예 무시하고 들어가라는 얘깁니다. 왜? 이 두뇌의 기능은 천 년을 걸어가든 하루를 걸어가든 일 초를 걸어가든 똑같다는 얘깁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그 경우에 우리가 '이거는 길어서 못한다, 이거는 짧아서 잘 된다, 이거는 커서 들 수가 없다' 는 둥 이런 건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이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가 없단 얘깁니다. 이 체가 없는 내 마음은 바로 그림자와 같고 빛과 같아서 어디에 붙어서 돌아가지 못하고 어디에 붙어서 돌아가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천지에 끝 간 데 없이 불기둥이 있다면, 그 불기둥을 끼고 수레가 중간에서 돌아간다면, 그 기능이 다 거기에 소유돼서 배출이 되고 또 들고 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생각에서 이건 멈추고 구르고 그러는 거지, 그 수레는 여전히 누가 이러든 저러든 말없이 그냥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그냥 놓고 그냥 더불어 같이 돌아갔으면 좋으련만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수레는, 수레는 그냥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체가 없는 마음이요,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요, 마음대로 응용할 수 있는 마음이요, 마음대로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는 마음이요, 마음이 천차만별로 할 수 있건만, 뭐가 그렇게 걸려서 그렇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마음대로,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을 막습니다, 자꾸. '이건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그것이 바로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차근차근 쌓여 있는 바로 의식이라는 거죠. 번뇌 망상이, 망상이라고 그거를 일컬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컴퓨터에 쌓이고 쌓여서 자꾸 나오니 말입니다. 차근차근 차례차례로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것을 없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훌렁 마음이 뛰어야 될 텐데 뛰질 못해요, 마음이.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건만 마음을 마음대로 못 하니 그거 무슨 연고냐 이겁니다.

옛날에 어느 사람이 한번 이런 예가 있었죠. 남한테 보증을 서고서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음 받은 거를 쥐고서 불불불불 떨고 병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당한 사람들도 아마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네들 거지 당신 게 아니다."라는 얘기요. 마음으로 다 버릴 수도 있고 다 가질 수도 있는 마음이 있는데, 어차피 버려진 거라면 그냥 버렸으면 마음이나 편안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생기지, 버리지 않고는 도저히 몸을 살릴 수도 없거니와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차피 없어진 거, 아니 본래부터 자기가 그렇게 없애 놓고 뭘 그렇게 애원합니까? 자기가 한 일이라면 뒤끝이 맑아야죠. 어차피 자기가 해 놓은 거니까, 자기가 버린 거니깐 자기가 버린 걸로 그냥 놔야죠. 어차피 버려진 거를 그걸 마음으로 붙들고 늘어진다면 그건 벌써 이 컴퓨터에 이 붙잡고 있는 입력이 들어가선 이 몸뚱이의 모든 의식들을 침체시킵니다. 이게 알고 보면 인간 중세계에서 아주 무서운 도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깐 인간 기능을 모두 마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잘해라. 생각을 잘해서 입력이 된다면 앞서 잘못한 입력이 없어진다. 이 생각 한 번을 잘하면 대뇌를 통해서, 즉 말하자면 소뇌와 대뇌와 이렇게 서로 맞먹으면서 중뇌에서 그걸 책정해 가지고 명령과 더불어 사대(四大)로다가 통신을 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만 알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려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남이 다 해 줄 때를 바랍니까? 남의 손을 빌릴 때는 빌려야 하지만, 남의 손은 20%나 30%밖에는 빌릴 수가 없으니 내가 하는 게 70%, 80%가 돼야 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 앞에서 좀 웃기고 즐거운 말은 안 하고 만날 저런 말만 한다고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시급한 게 그거니깐 할 수 없습니다. 시급하니까요. 우리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 얼마나 지탱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명령을 조달해서 받고 움죽거리는 로보트라면, 바로 명령을 내리는 사람

☞ A18면으로 계속

빛나는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 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盛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문화재수리기능 8826호 양학모.양희곤 父子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탁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

우리몸 막힌혈관을 뻥!뻥!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루 2회 공복에
막힌 혈관을 뻥!뻥! 뚫어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혈관관리
혈통으로
맑은물에 희석해서 마십니다
혈관나이를 젊게하여 100세 건강실현
피가 깨끗해지면 정신도 깨어납니다
010-9003-6767 농협 : 010-9003-6767-29

실천을 해보지 않는다면 내 마음의 발전도 생활의 발전도 없을 겁니다

☞ A17면에서 계속

한테 기대야죠. 그죠? 명령을 내리는 그 근본에 의지해야지. 그래서 그 근본에서 그냥 거기에 의지하면 정확하게 '어, 여기 의지하는구나.' 하고선 거기 입력이 돼 가지고 그대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딴 데로, 이 수레가 돌아가면서 딴 데로, 자꾸 바깥으로 의지한다면 아무것도 근본에 입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입력이 되지를 않는 걸요. 거기다 입력을 안 했는데 어떻게 입력이 됩니까? 그러니까 허사무사가 되죠. 그러니까 공덕이 없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리 네가 그렇게 했어도 공덕은 하나도 없느니라." 하신 이치가 그러합니다.

속가인들은 "왜 부처님의 공부를 해서 해탈을 못 하느냐?" 이런 말들은 잘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살림에만 얽매여서 그렇게 하시니까 못 한다고 하죠. 절 살림이든 바깥의 살림이든 뭐가 다릅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게 남의 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생산해서 쓸 수 있는 대로 해야죠. 행복을 누가 갖다 주나요?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거를 누가 갖다 주나요? 또 뺏어 갈 수 있나요? 뺏어 갈 수도 없고 갖다 줄 수도 없는 겁니다.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죽으나 사나 내가 해서 내가 낫고, 내가 하고 내가 살고, 내가 이렇게 작용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살아생전에 그렇게 하고 살던 그 사람들이 자기가…. 왜, 탤런트들이 자기 소임을 맡아 가지고 탤런트 노릇 하다가 막이 내리고 이러면 탤런트들은 자기가 탤런트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자기 분수를 알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게 소임을 맡아서 잘합니다. 해 가지고 끝이 납니다. 막이 내립니다. 그러면 아주 다 벗어난 듯이 좋아서 집으로 또 돌아갑니다. 거기 탤런트들은 죽었다고 하는데 그냥 거기서만, 무대에서만 죽었지 도로 자기네 집에 와서는 아주 그냥 한잔하면서 좋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십시오.

우린 지금 탤런트들이 그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소임의 행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소임을 맡은 거를 잘, 어떤 차원의 소임을 맡아서 잘하나 그걸 봐서, 그다음에 또 소임을 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죽는 역할을 잘하면 죽는 역할의 소임을 주고, 거지 노릇을 잘하면 거지의 소임을 주고, 왕의 소임을 잘하면 왕의 소임을 주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림자처럼 모두 펼쳐져서 돌아가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현재 보고 듣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못 느끼십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느니라. 너희가 소임을 그렇게 맡아 가지고 너희 차원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소임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네 모습은 다시 주어지느니라." 오간지옥이니 또 그 왜, 그림으로 보여주는 영화에 독사지옥이 있고 그렇잖습니까? 독사 굴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모두?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그림으로만 볼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우리가 컴퓨터에서 로보트를 시키듯이 정확하게, 그렇게 그 혼백을 그냥 독사 굴에다가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독사가 돼서 나오지 딴 게 돼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한순간에 그냥 독사로 변해 가지고 이 세상에 출현을 한단 말입니다.

천차만별로 그렇게 변하고 모습이 바뀌지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업신여기고 어떠한 것을 귀중하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생명만 중하고 저 하(下)의 동물들의 생명은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명이요, 우리들의 모습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천차만별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감옥이 따로 있어서 죄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생시처럼 그냥 독사지옥으로 넣으면 독사로 모습을 가지고 나오게 돼 있고, 소로 넣으면 소가 돼서 나오고, 곤충에 넣으면 곤충이 돼서 나오고 이럴 뿐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모두가 역행을 하고 돌아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일체 법계의 모든 바다와 같은 그 속에서, 티끌마저도 전부 윤회가 돼서, 즉 바퀴로 돌아가서 바퀴의 굴림을 굴린다. 모든 보살(菩薩)들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명령만 하는 거지, 명령을 하되 보살들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이 원자가 부처님이라면, 예를 들어서 입자들이 전부 보살들입니다. 그런데 입자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원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자가 돼서 나가서 그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것이 입자가 원자가 돼서 크게 또 이루고 이루고 이루고…. 지금 현재 우주 상태가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한 말 되하고 한 말 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세상만사가,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가, 과거 현재 미래가 한데 합쳐져서 지금 같이 돌아가고 있는 이 상태가 그렇게 혼란하고,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그렇게 천차만별로 돈다 이겁니다. 이렇게 천차만별로 돌아가는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공덕이 될 수 있느냐. 즉 한마음으로, 한 손으로, 한 몸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러죠. 수많은 빗방울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바다에 넣으면 한바다니라. 한 몸이 되려면 이렇게 되죠. 이 일체 만물만생의 마음을 한마음에 넣는다면 그게 부처예요. 한마음에 넣었다가 거기에서 또 입자로 배출을 하면 그냥 보살들이 전체 이 공간 안에, 허공에 꽉 차 있죠.

그런데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원을 하면 거기서 그냥, 지금 전력이 들어와서 불 들어오듯이 그대로 그냥 가설이 되는 거예요. 가설이 돼서 그냥 쭉쭉 나가요. 그래서 보살은 일체 평등한 이름이지만 그 보살 중에서 배출되는 거는 또 이름을 바꾸어서 나갑니다. 아버지가 남편 노릇을 하려면 남편으로 금방 화(化)하고 금방 아들로 화하고 이러듯이 그 보살이라는 평등한 이름 속에서 약사(藥師)도 되고 관세음(觀世音)도 되고…. 그 이름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이름을 수없이 다 몽땅 가졌으니까 바로 금강좌(金剛座)라고 합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냥 얘기하면 받아들이면서 그냥 이렇게 가지만, 오늘도 혜수 스님이 떡을 몇 개 가지고 올라왔어요. 내가 "너 나 대신 맛 좀 봐라. 맛있나 맛이 없나." 그랬어요. 그러니깐 혜수 스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요, "내가 맛을 봐서 맛이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맛이 나쁘다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스님이 맛을 보셔야죠." 이러는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 그것을 자기가 진짜 실행을 하고 진짜 자기가 그렇게 해 봐야, 진실하게 해 봐야 그 떡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감지할 수가 있단 얘깁니다.

말만 듣고 이름만 듣고 이론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론만 알고 '내가 이만큼 알았으면 됐지.' 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난 그냥 묵묵히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있죠. 어떻게 뭐, 말을 할 수가 없죠. 말없이 한 발짝 떼어 놓는 것이 우주 전체를 한 바퀴 돌고도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애가 아프든지 어른이 아프든지 아파서 한번 이렇게 응할 때는 벌써 주인공에 관하면서 할 때, 그게 업으로 만약에 병이 됐다거나 인과성으로 됐다거나 이런다면 반드시 과거를 들러야 이게 되거든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과거로 들러서 이게 오는 겁니다. 과거에서 이게 없어져야 현실에 이게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그냥 이름만, 그거를 모르고 그냥 이름만 부른다면 그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주인공 찾았는데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와서 공부할 땐 참 잘됐는데 아, 가다가 안되더라. 세상에, 중학교를 졸업했으면 고등학교에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중학교에서 배우던 것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전이 됩니까? 차를 무난히 타고 가다가 아, 내릴 때가 되면 내려야죠. 내려서 또 탈 때까지 그게 아, 그러면 차에서 내려진다, 안 된다…. 안 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안 되는 걸로 되어 버리는 게 아니라 되게끔 하느라고 안 되는 거다. 한 번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아무것도 걱정이 없어요. 볼일 볼 거 보고선, 차 도로 타면 되니까. 이게 한생각의 마음인데요, 한 찰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며칠을 고민 고민 하다가 도로 타는 사람이 있고, 몇 달을 그냥 돌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찰나에 그냥 돌아서 금방 차를 타는 사람이 있거든요.

> 사람의 생각이 그냥 놀고 더불어 같이 돌아갔으면 좋으련만
>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 수레는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데
> 뭐가 그렇게 걸려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도 법, 안 되는 것도 법" 이런 소리를 왜 했겠습니까? 싸움터에 가면 후퇴하는 거는 왜 있으며 전진하는 거는 왜 있겠습니까? 후퇴하는 것도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후퇴하는 거지, 죽이기 위해서 후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이렇게 복잡다단한데, 우리 몸뚱이의 생김생김도 그렇게 복잡하고 다단하게 생겼습니다. 명주 고름 같은 실에 그 가설돼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이 두뇌에 다 담겨 있는지 그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그 근본 자체에서 모두 하달을 하고 움죽거리게 하니깐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정신세계, 즉 무(無)의 세계에서 그 한마음으로 입력이 돼서 나가는 배출은 뭐, 말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보고 듣고, 행하고 알고, 그래서 이런 거 (가슴의 핀 마이크를 가리키시며) 하나를 보더라도요, 우리가 해 보지 않는다면 이게 잘못 떨어지는 건지 이게 잘 떨어지는 건지 잘 들리는 건지 모릅니다, 아주 안 해 보면. 이거를 그래도 잘못되든 잘되든 그냥 꽂아 보니까, 이게 안 된 것도 알고 된 것도 알죠. 그러니 우리 모두가 실천을 해 보지 않는 사람에게 한해서는 나의 마음의 발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발전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생각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런 게 있죠. '야! 이게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이 사람네 없애 봤자야 그쪽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아이그, 내버려 두자.' 그냥 자기네들이 짓고 자기네들이 모두 하는 거니까, 그건 참견할 게 없죠. 왜냐하면 뺏어 올 수도 없고 넣어 줄 수도 없는 거니까요. 자기 스스로들 알아야 하는 문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모두 그렇게 잘못되는 거를 잘되게끔 하신다 이러면, 그저 당시에만 좀 빤했다가 도루묵이 돼 버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네들 근본 자체가 그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생활을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죠.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남이 좀 돈을 갖다가 보태 주고 난 뒤에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도로 그 생활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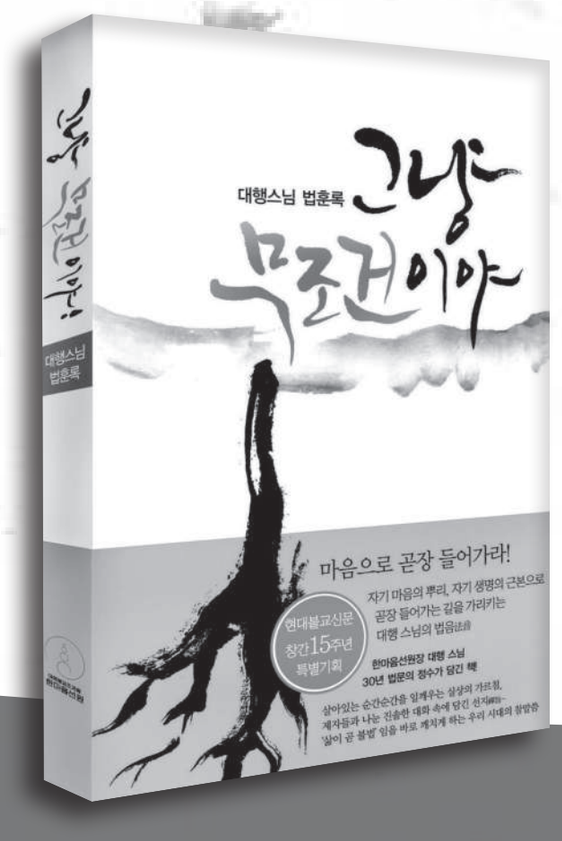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모두 여러분 각자한테 그냥 맡겨 버렸습니다, 다. "그냥 너희들이 잘하면 선의 인과를 가질 것이고, 악으로 저지른다면 악인이 될 것이고, 또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악과 선을 다 버리는 것도 너희 마음에 다 달아 있느니라. 악과 선을 다 버리지 않는다면, 선으로만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악이 범해지고, 악으로 가는 사람은 선이 범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둘이 아니다. 이 둘 아닌 도리를 다 버렸을 때에 비로소 보살의 역할을 하며 부처라는 이름을 바로 떨치느니라." 그건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누구가 갖다 준 게 아닙니다. 누가 빼앗아 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똥 누는 거 대신 똥 눠 주는 사람 봤습니까?

온 근본 속에서 모두가 이뤄지는 것이 바로 근본 능력은 몽땅 거기에 다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도 물질적인 컴퓨터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입력을 한 것만 나오지, 인간의 두뇌의 컴퓨터처럼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고 나고 아주 그 천차만별로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못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자동적인 컴퓨터가 얼마나 광대하고 이거 무변한 겁니까? 이 세상을 다 집어삼켜도 손색이 없으리만큼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4년 12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자살예방 속 명상의 가치



선업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OECD 자살률 1위 되찾는 한국
자살예방 활동에 다시 비상등 켜
사회 · 구조적 원인 점차 늘어나

정부부처 · 지자체 예방활동 지원
자살예방 프로그램 다수 공모해
정신적 지지체계 확립에 큰 도움

그 중 명상 활용 프로그램 눈길
자기연민 지수 유의미하게 올라
충분히 살기 좋은 세상 인식되길

명상을 활용한 대표적 자살예방 프로그램으로 마샤 리네한이 개발한 변증법적 행동치료가 있다. "여러 번 자살을 기도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자"는 의도에서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마음챙김 명상을 기반으로 인간의 삶에서 필연적인 고통이나 아픔을 수용하고 감내하는 고통 감내기술과 강렬한 정서상태의 강도 · 지속시간 · 빈도를 감소시키는 감정조절 기술, 그리고 구체적인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는 대인관계기술 등을 내담자에게 훈련시킴으로써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타이틀을 다시 찾아오면서 자살예방 활동에 비상이 켜진 상황이다. 여기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국회의 입법 및 정책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한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3호의 내용은 안타까움을 더한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한국 노인의 소득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 행복과 거리가 먼 노후 삶을 연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회 · 구조적 원인으로 인한 자살률의 증가는 충격적인 수준이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각 시도 등에서 다양한 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기획은 시의적절하다.

이런 적절한 조치에 힘입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에서는 2019년 생명존중 · 자살예방 '몸 · 마음 · 쉼 프로젝트(문화체육관광부)'의 일환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모한 바 있다. 그 결과 10여 편에 이르는 다양한 관점의 좋은 자살예방용 명상 프로그램들이 접수, 그 중 4편이 최종 선정돼 지금은 프로그램 운영이 마무리되었다. 결과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선정된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실시된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 · 사회적 지지체계형성 및 자기보호 생활기술 강화를 비롯하여 위험요인의 감소와 보호요인의 증가라는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명상으로 구조화한 프로그램의 경우 자살예방 지킴이 활동을 하는 게이트키퍼들을 대상으로 8주간 실시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연민 지수가 유의미하게 올라가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점은 위험이나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적응능력을 주어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생각, 자살밖에 없다는 두 극단적인 생각을 이겨내게 하는 보호요인의 강화에 유효한 프로그램이 등장한 것이라 반가운 결과라 하겠다.

현재 변증법적 행동치료를 비롯하여 명상을 활용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서구적 모델은 대학의 심리학과와 상담학과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교육되고 있다. 반면에 국내에서 개발된 명상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은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분명한 것은, 대상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상에 맞는 개입 프로그램을 기술적으로 구조화하여 그 대상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거나 보호요인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된 프로그램만이 학계와 현장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명상을 활용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 실시를 통해 개인의 심리나 행동의 문제 발생을 완화시키는 요인이 증가하여 자살이 예방되고, 사회적 충격이 감소되는 선순환이 계속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동시에 새해에는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가장 존귀한 존재인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차린 이들로 인해 지금 이곳이 충분히 살기 괜찮은 행복한 곳이었으면 한다.



천미희의 **환경칼럼**

녹색 패션으로 겨울나기

겨울이 왔다.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는 나는 서둘러 겨울옷으로 갈아입었다. 오리털 파카나 밍크코트 등 보온성이 높다고 알려진 겉옷이 없기 때문에 나는 늘 옷을 여러 겹으로 겹쳐 입는다. 겹겹이 입은 나의 옷차림은 때론 거추장스럽다. 실외활동이 많지 않고 실내 난방이 잘 되어 있다 보니 더욱 그렇다. 추위를 유난히도 많이 타는 나 같은 사람이 모피 한 벌 없어도, 오리털이나 거위털 패딩 없어도 겨울나기는 거뜬할 정도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우리나라 모피 시장은 점점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중년들이나 입는 것으로 생각했던 모피가 젊은 층까지 공략하면서 우리나라는 모피 생산과 소비에서 세계 1위라는 기록을 유지중이다. 그런데 밍크코트 한 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면 그 기록이 얼마나 불편한 수치인지 알게 된다.

한 벌의 밍크코트를 위해 밍크 50여 마리에서 많게는 400여 마리가 희생당한다. 또한 여우 가죽을 얻기 위해 사육되는 여우는 0.5㎡의 공간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는 야생여우 활동 공간의 25만분의 1이다. 게다가 여우는 모피를 위해 도살될 때까지 그 좁은 공간 안에서 7년이라는 기간을 지내게 된다고 하니 가히 상상 초월의 고통이 가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엔 도살의 고통 속에 생명을 내어 놓고야 만다. 심지어 윤기가 좋다는 이유로 산 채로 가죽을 벗긴다니 상상조차 싫어지는 현실이다.

모피를 위해 희생되는 동물을 찍은 영상 앞에서는 절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죽을 얻기 위해 도살되는 동물들을 보면서, 또 털을 깎이고 뽑히며 고통받는 양과 오리들의 처참한 영상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지 않을 이 몇이나 될까? 수많은 양들은 털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 기온이 맞지 않는 지역에서 대량 사육되고 배변조차 곤란할 만큼 살아간다. 오리털을 얻기 위해 수많은 오리들로부터 강제로 털을 뽑는 장면은 생지옥과 다름없었다. 그 이후로 오리털 파카는 내 구매목록에서 삭제됐다. 여전히 신발장이나 옷장에 오래전 선물 받았던 양털 부츠가 놓여 있고 오리털 조끼가 걸려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생명체의 고통으로 내 추위를 피하고 싶지 않다는 원칙은 확고하다.

모피도 안 되고 오리털도 안 되고 양털도 안 되면 뭘 입으라고?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겠다. 그러나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동물 학대 없는 재료로 만든 패션을 만날 수 있다. 또한 폴리에스터 충전재나 웰론 소재로 된 안감의 옷은 동물 털만큼의 보온성을 준다. 이왕 구입한 옷은 다른 생명에게 감사하며 고맙게 입더라도 동물 털 소재 옷을 사는 일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모피 옷을 입고 싶게 만들 때 그것을 참아준다면 생명들을 덜 괴롭게 하는 좋은 일이다.

우리는 모피코트 없이 살 수 있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다는 걸 잊지 않는다면 올 겨울, 모피 코트를 구입목록에 올렸더라도 지울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이 가진 최고의 덕목인 연민과 공감을 포기해선 안 될 일이다. 우리의 패션을 위해 고통 받는 동물들을 향한 연민과 공감, 그리고 생명들을 위한 따스한 마음내기로 올 겨울 한파를 이겨냈으면 한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

社 說

보존 사각지대 성보에 관심을

전국 사찰에 소장된 2만 7천여 목판이 6년간의 일제 조사를 통해 모두 디지털로 기록되고 전통 방식으로 인출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재)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추진한 '전국 사찰 목판 일제조사' 사업의 결과를 정리하는 학술대회를 12월 13일 개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은 지난 6년 동안 전국 114개 사찰에서 2만 7735판을 정밀기록화 조사를 완료했다. 이들 단체는 조사 내용을 통해 모두 디지털 자료로 구축했으며, 문화재청을 비롯해 목판 소장 사찰에도 자료를 제공해 보존 · 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조사대상 목판 가운데 시기 · 완결 · 기록성 등을 기준으로 전국 12개 사찰에서 50종 2,750판을 전통 방법에 따라 제작한 한지와 송연묵 등으로 인출했으며, 인출된 인경본을 장황해 전체 231책을 완성했다.

조사를 통해 18건의 목판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해 보존 · 관리 체계로 편입시킨 점도 의미가 있다.

이제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한 불교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특히 보존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 불교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부터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이 진행하는 '전국 사찰 목공예 일제조사' 사업도 기대를 모은다. 불교건축의 일부로 인식돼 관심이 부족했던 수미단, 천개 등 사찰 목공예 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보존 사각지대에 있는 불교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이를 통한 관심이 지속되길 바란다.

템플스테이가 만든 '공익사회'

한국불교의 전통문화를 국내외로 알리기 위해 시작된 템플스테이가 공익사회 구현에 일조하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기획한 '나눔 템플스테이'가 올해 2만 명이 넘는 소외계층에게 제공됐다.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문화트렌드에 맞춰 불교만의 색깔로 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나눔 템플스테이는 2017년 3월, 전국적으로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가 잇달아 열리던 시기에 기획됐다. 당시 신입생 환영회에서 과도한 음주강요 등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대학가의 건전한 MT문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된 MT 템플스테이는 여러 대학의 MT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이듬해 본격적인 '나눔 템플스테이'로 재탄생했다.

나눔 템플스테이의 지원 대상은 그 폭이 실로 넓다. △북한이탈주민 △공상경찰관 △한부모가정 △소방대원 △도박중독자 △자살자 유가족 △사회복지사 △보호관찰 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셀 수 없이 다양하다. 참가비 대부분은 무료이거나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해 세간의 호평을 받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경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체계적인 템플스테이를 지원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 결과 2018년 9795명이었던 나눔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올해 2만4471명까지 늘어났다. 템플스테이가 만든 작은 공익사회다. 출가자 감소와 불자들의 이탈을 겪는 불교계. 나눔 템플스테이가 이 같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탈종공고

• 사찰명 : 지장사
• 법 명 : 혜 주
• 주 소 : 충북 영동군 황간면 황간동로 284-28 (난곡리 523-1)

본 사찰과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대한불교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은불사
• 주 지 : 설 산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광격윗길 28-17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세계불교법륜종 총무원장 법하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세계불교敎皇 대관식 부처님 탄생지 네팔 룸비니 동산에서 봉행



△ 세계불교교황 대관식 식전행사에 참석한 사부대중 모습

한국대표단 30여명 스님, 세계각국 대표 500여 스님들과 1천명 불자들 동참

네팔 룸비니와 한국에 세계불교교황청 설립, 세계불교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

세계불교교황 대관식이 12월 3일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동산에서 성대하게 봉행 되었다. 이 대관식은 세계불교승가재단 주최 행사로 세계 각국 대표 500여 스님들과 1천명의 불자들, 한국대표단 30명 스님 외 4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하여 원만 회향 되었다. 세계불교교황 선출은 세계 각국 고승 33인의 추천을 받아 최종적으로 덕망과 지혜가 남달리 뛰어난 한국 석가산스님을 세계불교 교황으로 추대하게 된 것이다. 이는 부처님의 정법이 세계로 널리 펼쳐지고 세계불교중흥과 원융화합이 되는 기틀이 되어 불국토가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불교 초대교황으로 등극한 석가산스님은 기미년 3월 1일 독립운동의 민족대표로 건국훈장을 받은 백용성 조사의 은·법·강·율맥을 이어 받은 손상좌이다. 기사년 11월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선구자로 독립유공자 표창을 받은 봉암개사의 은·법·강·율맥을 이어 받았다. 또한 스님은 1994년 1월 30일 스리랑카(Sri Lanka) 불치사에서 스리랑카 삼개 종파 만장일치로 성인으로 추대되기도 하였다. 석가산스님의 수행정진은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불교 최초로 대방광불화엄경 80권을 두 번 사경하여 원만 회향 하였고, 근래에는 세 번째 대방광불화엄경 80권을 사경 정진 중에 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삼 천년 만에 처음으로 네팔 룸비니에서 2019년 12월 3일 세계불교 초대 교황 대관 대전에서 초대 교황으로 석가산스님이 등극하게 된 것은 세계 불교사의 새로운 역사의 장이며 한국 불교사에 길이 남을 큰 법연일 것이다.

세계불교 초대 교황 석가산스님은 축하메시지에서 "평화와 행복은 하루아침에 창조되는 것은 아니나, 하루아침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한사람의 신념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함께할 때 인류문명의 발달과 세계인류 평화는 시작 될 것입니다"라며 사바세계의 갈등과 전쟁이 없는 불국 정토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초대교황 추대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부처님탄생지인 네팔 룸비니와 한국에 세계불교 교황청을 설립하여 세계각국의 불교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향후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현재 룸비니에 세계불교교황청을 세우기로 네팔정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이번 대관식에 세계불교교황 석가산스님으로부터 석능인대종사가 교황청장 임명을 받고 임시 내각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날 세계불교교황 대관식법회에는 각국 대표와 많은 스님 불자들이 참석하였다. 네팔에서는 룸비니 장관 상카 포크렐, 국회의원 크리쉬나 고팔, 쉬레스비나 쉬레스타, 케삽 프나사드 포카렐, 룸비니 개발관광부 부회장 벤 마타야스님, 룸비니 시청 시장 마나몬 조다리, 룸비니불교협회회장 반테비베카난다, 세계불교승가재단 이사장 라젠드라식델, 세계불교승가재단 사무총장 선재람샬, 네팔체육협회 이사 라쥬 외 많은 불자들이 참석하여 이번 법회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힌두교, 무슬림, 천주교 종교지도자 대표 및 인도대표단 외 8개국 대표단이 참석하였고, 한편 한국의 현각스님, 혜승스님, 법붕스님, 원산스님, 동담스님과 스리랑카의 나르다테로스님, 구나라타테로스님이 대승정으로 추대 받았다.

세계불교승가재단에서 수여하는 룸비니평화대상에는 한국의 마니스님, 해인스님, 보운스님이 선정되었다. 마니스님은 "룸비니평화대상은 저에게 큰 영광입니다. 남북분단이 되어있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세계평화에 한 획을 긋게 될 것입니다. 세계평화가 이루어져 불국토가 꼭 이루어 지길 기원합니다"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세계불교교황 대관식은 개회사에 이어 각 나라 고유의 불교의식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장엄하게 각 나라별 의식이 진행될때마다 대관식에 참석한 스님 및 불자들은 합장하며 세계불교발전을 기원하였다. 이번 행사는 2500년 동안 한번도 한적이 없는 유일한 행사이다.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에서 세계 각국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세계불교교황의 추대는 불교사의 한 획을 그었다. 세계불교 발전과 원융화합의 중심이 될 불교교황 및 불교교황청의 행보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

-세계불교교황 대관식 합동 취재단

戴 冠 辭 (대관사)

World Buddhism Pope Seak ka San



△ 세계불교 교황 석가산 성하

사랑하고 존경하는 地球村의 人類 여러분! 世界佛敎 佛子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국가와 민족이 설사 다르더라도 우리는 다 같은 인류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불자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풍습이 설사 다르더라도 우리는 다 같은 인류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불자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문화와 교육이 설사 다르더라도 우리는 다 같은 인류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불자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종교와 사상이 설사 다르더라도 우리는 다 같은 인류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불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구촌 여러분! 세계불교 불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서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화합합시다. 우리 모두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서로서로 많이 사랑하고 존경합시다. 우리 모두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서로 서로 많이 감사하고 칭찬합시다.

본 세계불교 교황은 사바세계의 갈등과 전쟁이 없는 불국정토를 실현하기 위한 상징적으로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이 곳 네팔과 본 교황이 태어난 대한민국에 교황청을 설립하겠습니다. 본 세계불교 교황은 지금 이 시간부터 평화의 길 그 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평화의 길은 모든 인류의 노력이 없이는 성취 되지는 않으나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시다.

평화의 길은 하루 아침에 성취되지 않으나 지금 이 시간 세계불교 교황 대관식으로 부터 시작합시다. 모든 인류와 세계불교 불자 여러분에게 평화와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세계불교 교황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처님 정법 세계로 널리 펼치고, 세계불교중흥과 원융화합이 되는 기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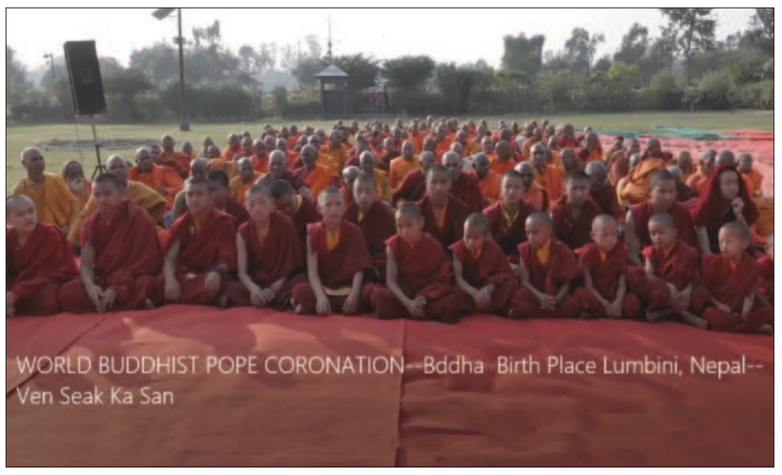


세르파 메인센타 사찰을 방문하여 진신사리 이운법회 후 기념촬영 △

네팔 행사 모습



△ 세계불교교황 대관식 행사장으로 입장하는 석가산 큰스님과 한국 대표단



△ 네팔 불교TV방송 뉴스에 나온 각국 대표단 스님들 모습



△ 한국스님과 각국 스님들이 불공을 드리고 있는 모습

만년설 가로 지른 험준한 구법의 길



길기트에서 훈자로 향하는 카라코람 하이웨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까지 잇는 이 도로는 그 길이가 1200㎞에 달한다. 길기트·훈자에서는 이 길을 이동하며 수많은 설산과 에메랄드빛 강줄기를 감상할 수 있다.

파키스탄 지도



특별기획

동서 문명 교차로 파키스탄을 가다

① 간다라문명 발상지, 페샤와르

② 아소카왕의 고향, 탁실라

③ 목숨 건 전법 여정, 길기트

대한불교조계종은 파키스탄 정부 초청으로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파키스탄 내 불교 유적을 순례했다. 특집기획 마지막 순서는 옛 실크로드가 남아있는 길기트·훈자다.

파키스탄 북부에 자리한 길기트·훈자는 만년설산에 둘러싸인 요새 같은 마을이다. 북서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의 와한, 북동쪽으로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남동쪽으로 인도와 마찰을 빚는 잠무 카슈미르와 맞닿는다. 특히 이곳은 카라코람과 히말라야, 힌두쿠시 3개의 산맥이 만나는 지역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중 하나인 K2와 낭가파르바트 등이 있다. 해발 7000~8000m급 산이 셀 수도 없이 많은 곳, 사람의 발길이 드문 천혜의 자연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파키스탄=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새벽 4시, 호텔 모닝콜이 선잠을 깨운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영어가 무슨 뜻인지 알 필요도, 대답할 이유도 없었지만 반사적으로 "OK"를 외치며 눈을 비볐다. 출장 3일차, 파키스탄에서의 숙박이 두 번째인 11월 18일. 전날 라호르박물관에서 고행상을 친견하고 버스로 5시간을 달려 밤늦게 도착한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선 몇 시간 눈도 못 붙인 채 떠날 채비를 했다. 파키스탄에 오기 전 유일하게 다큐멘터리로 본 '훈자'로 떠나기 위해서다.

훈자는 에콰도르 빌카밤바, 불가리아 스몰랸, 러시아 코카서스와 함께 세계적인 장수마을로 유명하다. 1984년 훈자 출신 160세의 노인 사이드 압둘 모부트가 영국 런던공항에서 심사를 받으면서부터다. 당시 훈자는 평균나이가 120세라고 알려져 세간의 화제가 됐다. 물론 교통이 발달하고 외부와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지금은 더 이상 장수마을이 아니다. 그리고 그해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가 개봉한다. 1982년부터 월간 만화잡지에 연재해온 이 작품에 등장하는 바람계곡이 바로 훈자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옛 실크로드와 KKH

이슬라마바드에서 훈자로 가는 방법은 육로와 국내선 항공 두 가지다. 거리는 600㎞ 남짓밖에 안 되지만 차로 이동하면 20시간은 족히 걸리는 대장정이 펼쳐진다. 순례단은 원활한 일정 소화를 위해 날개에 프로펠러가 달린 40인승 작은 비행기를 택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 빠옥 총림에서 생활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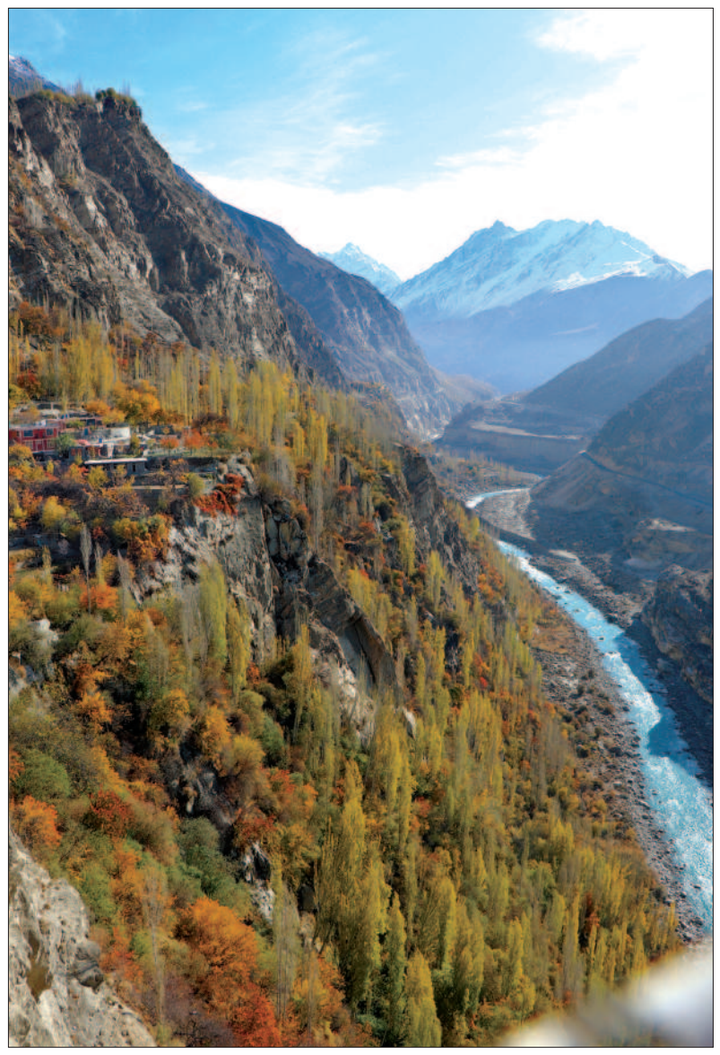
B4 책세상 — 법상 스님 〈사찰에서 만나는 벽화〉

B5 문화 — 김지선 초대전 '부처님오신날'

B6 학술 — 주목! 학술서 – 김성철의 〈역설과 중관논리〉



차로 이동하며 훈자 초입에서 바라본 전경. 사진 왼쪽에 '웰컴 투 훈자' 표지판이 순례단을 반긴다. 훈자는 눈길을 어느 곳에 두어도 설산을 벗어날 수 없다.


훈자 알티트성에서 감상할 수 있는 훈자계곡. 이런 절경은 일본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대표작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배경이 됐다.

바람도 쉬어가는 계곡에 빠지다

'파키스탄 길기트' B1면에서 계속

"운이 정말 좋네요."

항공권을 나눠주던 현지가이드가 기자에게 말을 걸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그는 이슬라마바드에서 길기트공항에 갈 때 비행기 오른쪽 창가가 가장 좋은 자리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 이유는 세계에서 9번째로 높은 '낭가파르바트(8126m)'를 눈앞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친절한 설명에 몰려오던 졸음이 달아났다.

1시간 남짓 짧은 비행, 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눈을 붙이고 잠을 청하며 살아온 기자는 단 한 순간도 창밖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일출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설산의 산맥과 그 사이에서 한숨 쉬어가는 하얀 떼구름. 두 발 아래 펼쳐진 지금껏 본 적 없는 장관은 길기트 · 훈자에 대한 신비감을 한층 높였다.

길기트공항에 도착해 대략 15인승 크기의 미니버스에 몸을 실었다. 이 지역은 거의 모든 도로가 2차선이고, 훈자의 마을에 들어서면 양방향 차량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도로가 좁다.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 덕분에 미니버스 뒷좌석에서 엉덩이가 통통 튀며 자연환경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길기트는 길기트발티스탄주(州)의 주도로 해발 1500m에 자리하고 있다. 길기트발티스탄은 자치주라는 특성 때문에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고, 그로 인해 선거권도 없다. 이 때문에 정부의 재정 투입이 잘 이뤄지지 않아 지역개발은 상당히 더딘 편이다.

인더스강의 지류인 길기트강을 건너 파키스탄과 중국을 잇는 카라코람 하이웨이(Karakoram Highway, KKH)에 올랐다. 카라코람 하이웨이는 고속도로(highway)가 아니라 고지대에 위치한 도로(high-way)다. 또한 '카라'는 '검다'는 뜻으로 나무 한그루 찾아보기 어려운 거뭇한 카라코람산맥의 돌산을 표현한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경 쿤자랍 고개(4693m)를 통과하는 KKH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카슈가르에서 시작해 파키스탄 수도까지 약 1200㎞를 연결한다. 옛 실크로드를 옆에 낀 KKH는 수많은 등산가들의 발길을 길기트 · 훈자로 이끈 파키스탄 효자도로이기도 하다.

길기트에서 북쪽으로 1시간쯤 이동했을까. 도로 왼쪽에 옛 실크로드 표지판이 보였다. 버스에서 내려 실크로드를 보기 위해 강가까지 걸었다. 산 정상의 빙하가 녹아 에메랄드빛으로 흐르는 강 건너 산 중턱, 좁디좁은 길 하나가 구불구불 이어져 있다.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실크로드가 한눈에 들어왔다. 백제에 불교를 전한 마라난타 스님을 비롯해 수많은 구법승들이 오갔을 그 길은 언뜻 보기에도 위험천만했다. 군데군데는 산사태로 인해 끊어지고, 보수작업으로 세운 듯한 나무다리는 낡아 곧 무너질 것 같았다.

옛 구법승들이 실크로드를 통해 불교를 전파했다는 단편적인 역사공부가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실크로드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지만 공부한 건 이 길을 걸은 선대 수행자들에 대한 모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구법승들이 실크로드 덕분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 세계에 전한 것은 맞지만, 거기엔 굉장히 중요한 게 빠져 있다. 바로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다.

고타마 싯다르타가 6년 고행 뒤에 선정에 들어 진리를 체득하고 구법승들이 이 험준한 길을 걸은 것처럼, 법을 구하고 법을 전하는 일은 목숨을 걸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다. 편한 세상에서 쉽게 진리를 찾으려 하는 이 시대의 한 불자로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설산의 비경 간직한 훈자

무거운 마음을 뒤로 하고 발길을 재촉해 훈자에 들어서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설산이 보이기 시작했다. 실크로드에서 가라앉았던 마음이 다시 들떴다. '드디어 훈자구나.'

사람들이 흔히 일컫는 '훈자'는 사실 이 지역 20여개 마을을 통칭한 표현이다. 훈자는 아래쪽부터 로워 훈자(Lower Hunza), 센트럴 훈자(Central Hunza), 어퍼 훈자(Upper Hunza)로 나뉜다. 훈자는 이슬람 수니파가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파키스탄에서 소수인 시아파를 신봉하는 곳이다. 그 중에서도 마호메트 모하메드의 직계자손 '아가 칸'을 따르는 이스마일파에 속한다.

구법승들의 실크로드 간직한
파키스탄 최북단지역 길기트
7~8000m급 고봉이 산재하고
히말라야 · 힌두쿠시 · 카라코람
세계 산맥 만나는 천혜의 비경

바람계곡 훈자, 가슴을 울린다

훈자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표현 '바람계곡'처럼 높은 산봉우리 사이사이로 계곡이 흐르고, 산 중턱에 작은 마을들이 모여 있다. 시간이 멈춘 곳, 바람도 쉬어가는 곳이라는 표현이 틀리진 않았으나 훈자를 다 담아내기엔 역부족인 느낌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할 말도 딱히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비싸지 않은 카메라, 한없이 부족한 사진기술을 탓하며 두 눈에 담은 천혜의 자연은 벅찬 감동을 선사한다.

길을 따라 한참을 이동하다 어느 호수 앞에 멈췄다. 제법 역동적으로 흐르던 강줄기를 바라보다 갑자기 잔잔한 호수를 마주하니 묘한 기분이다. 조금 전까지의 강줄기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

과거 '아따아바드'라는 마을이었던 이곳은 2010년 4월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나 침수되면서 일종의 자연호수처럼 변해버렸다. 당시 주정부는 산사태의 위험성 때문에 대피를 권고했지만 갈 곳 없던 주민들이 끝까지 남아있다 총 19명이 사망했다. 이 산사태로 인해 KKH도 함께 수면 아래로 잠겼다.

중국과 파키스탄을 잇던 KKH가 막히자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들여 침수된 지역 옆으로 5개의 터널을 뚫어 새롭게 KKH를 연결했다. 국가 경제력이 뒤처지는 파키스탄에는 더없이 좋은 원조였다. 강대국으로 성장한 인도를 견제하고 싶은 중국, 그리고 인도와 카슈미르 점유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은 파키스탄은 자연스레 형제애가 싹텄다.

산사태로 많은 주민들이 사망한 아따아바드는 안타깝게도 이제 관광자원이 됐다. 높아진 수면 위로 빼꼼히 보이는 나뭇가지, 그 옆으로 관광호텔이 들어서고 있다.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관광 인프라가 형성되는 걸 보고 있자니 삶과 죽음의 덧없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

늦은 오후, 훈자에서도 위쪽 지역에 해당하는 파수까지 올라갔다. 이 작은 마을은 마을을 상징하는 '악마의 산' 투포단(Tupopdan)과 빙하가 유명해 인기 관광지로 꼽힌다. 하얀 조약돌을 쌓아 'WELCOME TO PASSU'라고 표시한 글자 뒤로 병풍처럼 펼쳐진 삐죽삐죽한 산봉우리와 그 아래 흐르는 강이 인상적이다. 순례단은 이곳에서 마을 이장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저녁 마을축제 초청을 받았지만 정해진 일정을 바꿀 수 없어 정중히 사양했다.

새벽부터 시작된 하루의 여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숙소로 이동, 센트럴 훈자에서도 9000여 명이 거주하는 비교적 큰 마을 알티트에 도착했다. 이곳에는 1994년 지어진 호텔 이글네스트가 마을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 해발 2500m 절벽에 지어진 호텔이다. 마침 해가 뉘엿뉘엿 산을 넘어간다. "일출과 일몰이 세계에서 최고"라는 가이드의 설명과 함께 한동안 멍하니 노을을 바라봤다. 서쪽의 디란 피크(7257m), 남쪽의 라카포시(7788m), 북쪽의 울타르 피크(7388m)에 둘러싸여 동쪽의 러시 피크(5098m)를 바라보니 야트막한 언덕 같다.

난방시설이 없어 겨울에는 문을 닫는 호텔에서 초겨울 날씨를 느끼며 잠을 청했다. 현지가이드가 미리 챙겨온 전기장판이 아니었다면 아마 밤새 추위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을 정도로 11월의 훈자는 기온이 낮다. 대부분의 관광도 4~10월에 이뤄진다고 한다.

조금 이른 새벽, 일출을 보기 위해 눈을 떴다. 일출도 가히 장관이라는 말에 옷깃을 여미고 호텔 옆 언덕에 올랐다. 하지만 주위 산이 워낙 높다보니 일출을 보기까지는 꽤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다.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산 위로 솟아오른 해는 밤새 얼어붙은 대지에 빛을 뿌렸다. 일몰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언덕에서 내려다본 훈자계곡이 무척 신비롭게 느껴졌다.

다시 버스를 타고 하산하며 마을을 바라보니 어제 제대로 보지 못한 살구나무가 빼곡하다. 살구가 특산품인 훈자는 매년 4월이면 살구꽃이 만발해 설산과 함께 온 세상을 하얗게 물들인다고 한다. 꽃피는 봄에 다시 오고 싶은 훈자다.

순례단은 훈자의 마지막 일정으로 1100년 전 지어진 알티트 성을 방문했다. 길기트발티스탄주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인 알티트성은 황폐한 상태로 보존됐으나 노르웨이 정부의 지원으로 복원해 2007년부터 일반에 개방됐다. 파키스탄에서는 이성을 라마승 지도자들이 지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성 내부에 남은 유물에는 연꽃과 만(卍)자가 새겨져 있다. 다만 만자는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좌만 형태를 하고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는 기원전부터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표현한 상징이니 나치로 오해하진 말자.

지역 가이드에 따르면 훈자는 4세기경 중국의 훈족이 정착하면서 불교가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후 라마승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전법활동을 펼쳤다. 훈자는 훈족이 살았던 곳이어서 지역에서는 '훈조'라고도 부르는데 1974년 부토 국무총리가 집권하면서 왕조가 멸망했다. 현재도 훈족의 왕족 일부가 이곳에 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훈자의 특산품이었던 와인은 이슬람의 점령 이후 사라졌다.

불교의 흔적이 많이 남지 않은 훈자를 떠나며 말로 표현하기 힘든 절경에 감동을, 그리고 번성하다 점차 사라져간 불교에 아픔을 느꼈다. 그래도 불교유적을 복원 · 보존하고 이웃나라의 불교계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려는 파키스탄의 노력은 고마울 따름이다.

훈자를 떠나며 어느 산 중턱에 하얀 돌멩이들로 써놓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영어 세 단어를 표현한 짧은 문구에 고개를 끄덕였다. 'LONG LIVE PAKISTAN'


구법승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이용한 옛 실크로드. 산 중턱 Z자 형태로 난 길이 실크로드다.


길기트에서 훈자로 이동하다 잠시 쉬어간 마을에서 한 원로가 원행 스님에게 지역 전통모자 '도비'를 선물하고 있다.



훈자에서도 위쪽에 해당하는 파수. '웰컴 투 파수'라고 새겨진 글자 뒤로 '악마의 산' 투포단(Tupopdan)이 인상적이다.

백골 선지식서 무상함 깨닫다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㉓ 빠옥 총림에서 생활 〈13〉



빠옥선원에 주석했던 선지식의 유해. 선지식은 수행자들의 백골관 수행을 위해 자신의 육신을 화장하지 않게 하고 보시했다.

오늘은 빠옥선원에 도착한지 16번째 날(2012년 2월 6일)이다. 아침 참선을 마치고 긴 계단을 따라 내려왔다. 아침 6시, 사방은 어둑어둑한데 계단 아래 구석의 맨 바닥에 두 여성 불자가 쪼그려 앉아 합장하고 있다. 공부를 마치고 내려오는 스님들에게 공경을 표하려는 것이다. 빠옥총림은 마을에서 먼 산 중턱에 있는데 이른 아침부터 올라 온 것이다.

스님들의 개인처소가 모여 있는 꾸띠 사이로 지나가니 한 스님이 나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제는 무슨 뜻인지 바로 안다. 스님께 다가가 찻잔을 두 손으로 받들어 드렸다. 이전에 이러한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이곳 스님들은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아침 첫 차를 공양함에도 재가자의 보시 형식으로 취한다.

오늘 앞방 한국 스님 두 명이 이곳을 떠났다. 찾아가 환송 인사를 했다. 이후 남은 다른 한국스님 한 명이 내 방에 찾아왔다.

화제는 이곳 수행과 한국불교의 미래였다. 세계 여러 곳을 탐방해 보셨다는 스님은 세계에서 수행에 관해 가장 열의가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했다. 스님에 의하면 미얀마만 하더라도 수행처를 찾는 한국인의 수는 매년 2만이 넘는다고 한다. 수행처에 오려면 '위빠사나 비자'를 미얀마 대사관에서 승인 받아와야 하기에 통계를 잡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나 특정기관에서 왜 한국인이 미얀마에 많이 가는지를 알아보려 파악한 것이라고 한다.

중간에 내 방을 찾아온 또 다른 한국 요기가 이를 듣다가 "스님, 한국불교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스님은 담담하게 "희망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순수하게 대승불교로 발전하여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좌부 불교와의 접촉 속에서 새로운 불교 흐름이 정착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스님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초기경전에 아함경을 어른 스님이나 사찰 교육 제도에서 배제하였는데, 요즘은 꼭 보아야하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됐고, 다시 10년 후면 그동안 외국이나 국내에서 상좌부의 새로운 수행법과 교학체계로 공부한 사람들로 한국불교는 분명히 바뀔 것"이라는 것이다.

스님의 이 같은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나 또한 불교에 입문한 후 10년 전과 20년 전의 우리나라 불교 상황과 변화를 잘 보면서 지내왔기 때문이다. 시내 사찰 부설 불교대학 등에서 만나는 재가자들 또한 불교 인식의 폭과 질이 확연히 달라졌음을 느낀다. 즉 초기불교와 위빠사나를 공부하려는 열의가 느껴진다. 이러한 추세로 나아간다면 10년 후이면 한국불교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오후 1시 수행 점검을 해주는 레와따 스님의 개인 처소를 찾아 위빠사나 수행과 선정 그리고 사마타에 관한 여러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준비해 온 질문을 순서에 따라 하나씩 풀어냈다. 스님은 묻는 사람이 이해를 빨리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잘 답변해줬다. 무엇보다도 실제 수행과 경론의 근거를 넘나들며 설명해 주시는 것이 마음에 든다. 시간을 많이 주시는 것에 미안함을 전하자 스님은 3일 뒤인 2월 9일에 다시 한 번 시간을 내주겠다고 한다.

오늘은 빠옥 선원에 도착한지 17번째 날(2012년 2월 7일)이다. 그리고 마하시부터 미얀마 수행처에 머문지 56번째 날이면서 '대보시회 법회(Mahādāna)'의 날이다. 새벽 좌선 전에 선실 주변에 모여 참회하는 스님들 사진을 몇 장 찍었다. 새벽 좌선이 끝나는 6시 쯤 스위스 요기가 오늘 떠난다고 나에게 좌구를 넘겨주었다. 기념사진 몇 장을 같이 찍었다

아침 공양 후 '대보시 법회'를 위해 스님들과 함께 아랫절로 내려갔다. 파옥선원의 각 분원 스님들까지 약 1500명 이상의 스님들이 한 곳에 집결했다. 남녀노소 재가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뤘고, 스님들이 줄을 맞춰 위의를 갖추고 장엄하게 입장하였다.

이곳 전각 이름은 '자애가 머무는 집(Mettavihari Meditation Hall)'으로 규모는 대단하다. 1층에는 주로 사미니와 스님들이 그리고

선원의 백골관 · 부정관 수행 위해
선지식 "입적 후 시신 기증" 유훈
해부도 보는 수행자들 자주 만나

1500 수행자 운집한 대보시법회
신도들 보시 올리며 공덕을 쌓아

2층에는 법랍 높은 비구 스님들이 입구 쪽을 향해 앉아있었다. 앞과 옆으로는 사미니와 남녀 재가자가 질서정연하게 줄 맞추어 앉아있는 모습이 족히 2000여명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예불이 진행되자 모두 따라서 낭송한다. 그리고 젊은 스님들부터 차례차례 줄을 맞추어 나온다. 밖에는 스님들께 보시할 긴 공양대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족히 400~500m 정도의 길이에 자신들이 준비해 온 공양물을 스님들께 올리는 것이다. 여기서도 스님이 발우로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재가자(정인)를 대동하여 받는다. 정인은 희고 큰 자루로 보시물을 받으면서 지나간다. 보시물 가운데는 모기를 죽이지 않고 생포하여 밖으로 방생하는 모기채를 비롯하여 담요, 하이타이, 비누, 약품류 등이다. 커피 믹스 한 봉지를 보시하고 쌀도 한 숟갈, 한 주걱 보시한다.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공양이다. 어머니는 자식을 시켜 보시한다. 미얀마 재가자들도 많이 모였지만 특히 멀리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지의 중국계 신도들이 많이 왔다. 그들이 가지고 온 각종 외국 제품들을 아낌없이 보시하고 있다. 물론 돈이나 값비싼 물건은 제외다.

스님들에 이어 이곳의 선방에 머물며 수행하는 재가 요기도 보시물을 받는 순서가 되었다. 부담을 느껴 참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아랫절 사무실로 발길을 돌렸다. 이곳에 온 김에 꼭 보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같은 빠옥 총림이지만 거리도 거리이지만 윗절의 하루 일정 때문에 이곳 아랫절까지 내려 올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사무실 근처, 어딘가에 이곳 선원에서 수행한 선지식이 입적 후 화장하지 말고 자신의 시신을 백골관 수행하는데 쓸 수 있도록 유훈을 남겨 전시해 놓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유골을 철사로 연결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물어물어 드디어 유리관에 모셔진 선지식의 유골 전시관을 찾았다. 자세히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유골이 풍화하여 바닥에 흰 뼛가루와 작은 알갱이들이 떨어져 흩어져 있다. 이곳 선원은 부처님 말씀에 따라 백골관과 부정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골도 전시되어 있고, 선원 주변에는 두개골 해골도 보인다. 선원 안에는 그림으로 사람이 죽으면 부패하여 풍화되어가는 단계를 사진으로 전시해놓거나, 인체의 32부분에 대한 해체적인 분석도도 전시되어 있다. 그러고 보니 병원에서나 볼만한 인체에 관한 도상들이 선원 도서관 책상위에도 많이 쌓여있고 스님들이 보고 있는 모습을 왕왕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보니 우리나라 수행처나 사찰에서도 이 같은 시설을 좀 더 실감나게 전시한다면 공부 효과가 나지 않을까하고 생각해 본다.

오늘은 또한 스님들의 포살일이다. 오후 4시부터 상좌부 스님들만 참여한 포살 행사를 갖는 다. 반면에 대승불교 스님들은 열외이다. 그 시간에 선원 가까이 산등성이에 올라 저녁 노을과 보름달을 보았다.

마침 이곳에 오래 전부터 와서 수행하다 다시 이번 기회에 두 달 넘게 머물고 있는 거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곳을 인터넷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미얀마를 내왕하면서 단기출가도 한 적이 있고 시간을 내어 이곳까지 와서 위빠사나 수행을 하고 있다. 선방에서 그 거사와 나는 가까운 거리에서 좌선을 한다. 곁에서 보니 공부를 매우 진지하게 하였고, 매일 일찍 선방에 들어오고 늦게까지 앉아 있다. 공양 때는 음식을 앞에 두고 모은 두 손을 들어 올리고 눈을 감은 채 오랜 시간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이 거사를 보니 한국 스님들이 모인 가운데 나누었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한국의 수행법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못해 결국 밖으로 찾아 나오게 된다고. 근기와 성향의 차이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간화선만을 고집하는 것이 결국 한국불교인들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차원이 다른 수행법을 접해보고자 하는 구도심일 수도 있으나 내가 만나보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가인이든 재가자이든, 이러한 문제를 깊이 절감하고 있었다. 불교 수행법을 통해 '지금 여기서 편안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여러 곳에서 강조하셨다. 빠알리어로 'Dhammadīttthe Sukha Viharati' 로 한문으로는 '현법락주(現法樂住)' 로 번역되었다. 'Dhammadīttthe' 즉 현법이란 '현재 지금 이 곳' 을 의미하고 'Sukha' 의 낙은 행복을 의미한다.

특히 부처님은 선정을 '현법락주의 길' 이라고 하셨고, 실제로 이곳 사람들은 모두 선정을 편안하고 기쁨을 주는 실천법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그것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공부법이 불만족스럽고 고통으로 이해되고 있다면 문제는 문제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날, 몇 달 그리고 몇 년을 의단의 의심으로, 대분심의 대분발심을 강조하면 사람의 근기와 성향 그리고,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는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전이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처님은 '지금 여기' 서 가능해야 미래도 보장된다고 했다. 대보시회 행사를 마치고 윗절로 돌아오는 길에서 한국 상좌부 스님들을 만났는데, 공부를 잘 해서인지 순수하고 투명하게 느껴졌다. 〈끝〉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외래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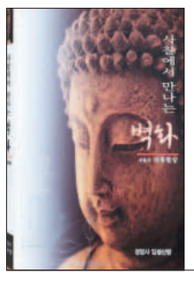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11~12/1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6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대행스님 법어집)	대행스님	한마음선원
2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출판	7	아침이 힘든 당신에게(홍파스님이 보내는 짧은 편지)	홍파스님	모과나무
3	아함전서 (전16권)	김윤수	운주사	8	당신의 마음에 답을 드립니다(목종스님 상담에세이)	목종스님	담앤북스
4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9	스님의 라이프 스타일	원영스님	불광출판사
5	요가 디피카	B.K.S.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10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인도 우화집)	류시화	더숲



〈마하승기율〉에 나오는 달을 건지려는 원숭이 모습. 오온에 집착하는 중생의 모습을 비유한 벽화. 출처 김해 정암사

벽화가 전하는 생생한 감동



사찰에서 만나는 벽화
법상 스님 지음
5만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벽화가 곧 법문이다" 전국 순회
벽화 사진만 간추려도 340여 개
벽화, 경전으로 풀어 가치 재조명

벽화가 말하는 법문을 들어 본적이 있을까? 부처님 일생을 담은 내용부터 시작해 해학적인 옛 이야기 까지 보기만 해도 벽화는 궁금증을 유발한다. 벽화가 주는 궁금증이 공부로 이어지고 문화재 해설사의 짧은 설명이 긴 설법보다 기억에 오래 남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시각적 효과로 관심을 끌고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벽화와 성당의 성화들은 글을 모르는 농민이나 천민에게 경전 혹은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 주로 사용됐다.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으로 가르침을 전하고자 노력한 결과물들은 현재는 오히려 예술 작품으로 가치를 더 인정 받을 정도이다.

하지만 성화와는 달리 벽화는 대접이 부실하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나라 방방곡곡과 해외까지 돌아다닌 스님이 있다. 주인공은 김해 정암사 주지 법상 스님이다. 스님은 "벽화가 곧 법문"이라는 신념으로 전국 곳곳을 누볐다. 길게는 3일, 짧게는 하루 동안 숙소를 잡고 근처 모든 사찰은 빠짐없이 돌며 벽화 사진을 찍고 관련 경전을 찾아 연구했다. 당시 구입했던 차는 벌써 폐차 직전이 됐을 정도로 누볐다. 6년 전 시작 된 이 연구는 340여 벽화 이야기를 담은 책인 〈사찰에서 만나는 벽화〉로 출간됐다.

법상 스님은 "벽화가 일러준 내용은 곧 경전인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가 검증이 안 된 경우가 많아 바로 잡고 싶었다"며 "벽화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사찰을 장엄하는 화석처럼 치부돼 생명력을 잃어 버려 다시 심폐소생 하는 심정으로 책을 기획했다"고 집필 의도를 피력했다.

법상 스님은 또한 벽화를 마주 할 때마다 전각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극락전은 극락에 관한 내용이 없고 대웅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에 관한 스토리를 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게다가 벽화 내용도 경전에 충실히 담은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라고 설명 했다. 지나친 구름 문양과 산수화 등을 엮은 도교풍도 오류라고 지적했다.

벽화는 일반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사찰 문화라 부처님 경전을 전하기 가장 좋은 도구인데, 연구하지 않는 자세가 벽화 문화를 사행길로 이끌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정리하고 내용을 간추려 담아도 책 〈사찰에서 만나는 벽화〉는 총 780페이지에 달하며 담긴 사진만해도 340장이 넘는다. 스님은 처음에 만화로 제작하고 싶을 정도로 쉬운 접근법을 구상했다. 쉬운 언어가 생명이란 의미이다. 책은 그래서 어느 누가 읽어도 쉽다. 특히 스님은 모든 벽화에 담긴 경전 내용의 출처를 명확하게 짚고 밝혔다. 경전 뿐만 아니라 사찰 안내도 돼 있어 책을 보고 사찰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생생한 벽화의 느낌을 담기 위해 컬러로 제작해 제작비도 두 배 이상 들었다. 그래서 시중에는 300권 밖에 내놓지 못했다.

한편 1986년 월정사로 출가한 스님은 현재 경남 김해 정암사서 주지를 맡고 있으며, 네이버카페 '선재선재(善哉善哉)'를 운영중이다.



반야는 반야를 완성하고
송준영 지음
소명출판 펴냄
1만 6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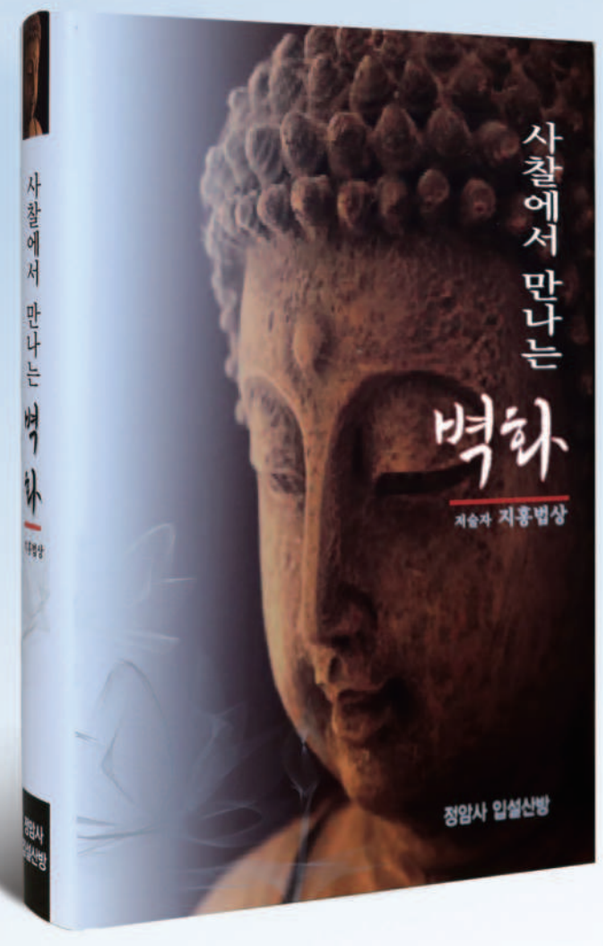
해설에 치우친 〈금강경〉 강해 틀 깨

〈금강경〉은 오늘날 우리나라 대승불교 골수인 무아, 즉 공 사상을 가장 잘 드러낸 경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강반야바라밀' 이란 금강석(다이아몬드)과 같이 견고한 지혜를 얻어 열반에 이르라는 부처님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 책은 반야, 즉 지혜를 이르는 말로 지혜로 지혜를 찾고자 한 저자의 마음을 담았다. 〈금강경〉은 석가모니 부처가 그 제자인 수보리와의 문답으로 이뤄진 경전인데, 석가모니는 이를 통해 공사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금강경〉은 산스크리트어로 쓰여 졌으나, 구라마집에 의해 한역 되었다. 이후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각자의 견해를 붙였고, 그 중 5명의 해(解)가 붙은 〈금강경오가해〉가 함허 득통에 의해 편찬 되었다.

이 책은 함허 득통과 육조 혜능, 야보의 게송, 양나라 부대사(부흡), 예장 종경 등의 게, 송, 설 등을 필요에 따라 옮겨 역해했다. 책의 저자는 〈금강경오가해〉를 현대적 감각으로 축자 및 의역해, 〈금강경〉의 신비를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하게 하고자 했다.

설악 선사로부터 전법게를 받은 저자 송준영은 선시와 선문에 대한 다양한 논저를 통해 불교의 학술적 가치를 높였다. 이 책에서 특히 돋보이는 부분은 월조 강해와 게송으로, 문자의 해석 및 해설론에 치우친 기존의 〈금강경〉 강해의 틀을 깨고자 했다. 이번 책은 〈금강경오가해〉에 녹아 있는 선사들 주석에 저자의 착어와 게송을 붙임으로써, 32분의 〈금강경〉이 지닌 공(空)사상의 신비를 체득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일 기자**



제주에서 되추까지!

사찰에 가면 흔히 만나게 되는 벽화
때로는 그 내용이 궁금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전국 사찰을 순례하면서 발품을 팔아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알기 쉽도록 해설하여 놓았습니다.
이 한 권의 책으로 340여 개의 벽화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단숨에 그만큼 공부할 수 있는 가이드와 같은 책입니다.

벽화는 부처님 말씀을 축약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또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올컬러 / 양장본 / 780쪽 / 값 50,000원 / 문의 010-4037-3539
농협 정암사 817101-51-067379

佛法 담은 현대미술로 마음 닦는다

김지선 화가 초대전 '부처님 오신날'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갤러리 까루나

불교 바탕한 현대미술 구현
전통기법 활용한 추상적 회화
한국적 차분함 · 세련미 공존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우수상


김지선_부처님오신날 #5_acrylic on canvas 77×33 2019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오늘날에서 '불화(佛畫)'의 범위를 설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 내용과 형식 모두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미술에서도 불화는 새롭게 시도되는 작품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대미술의 불화 전시가 열린다.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 내 갤러리 까루나는 화가 김지선 초대전 '부처님 오신날'을 개최한다. 불교를 바탕으로 한 현대미술을 추구하고 있는 김 작가의 그림은 전통적인 색과 기법을 활용해 한국적인 차분함과 세련미가 공존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17점의 그림들은 작가 자신과 관객들에게 성찰의 시간을 선사한다.

불화는 불교회화의 줄임말이다.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또 그 안에서 주제와 소재 등 여러 가지로 나뉜다. 분명한 것은 그림 속에 '불교'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지선 화가의 그림은 분명 불화라고 할 수 있다.

김 작가의 그림 속엔 길이 있고, 그 끝에는 일주문이 있다. 그 길과 일주문은 형식이면서 내용이다. 길이라는 시각 속에는 시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과정'이 숨어있다. 그 과정을 달리 부르면 사유와 성찰, 수행, 질문 등이다. 김 작가의 그림을 불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그림 속에 불교가 있기 때문이다. 길과 일주문을 비롯해 모든 사물은 추상화되어 있다.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 역시 '불교'다. 그리고 그것이 김지선이 그림 속에 불교를 풀어놓는 방식이다. 부처의 법을 그림으로 옮기는 언어다. 언어를 끊어내는 공안의 무궁무진한 길처럼 그의 그림 속 길에는 천 가지 만 가지의 과정이 지나간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예술은 평범한 것에 가치를 두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가치의 방향은 인간을 향하고 있다. 과거의 작품들이 거대한 사회담론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그려냈다면 현대의 작품들은 외롭고 소외된, 그리고 사소하지만 소중한 인간의 감정을 그려낸다. 이런 변화는 소재의 다양성을 가져왔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에 대한 더 넓은 소통의 장을 열어주었다. 누구나 재미있고 특이한 상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재로 만들어 내는 이는 예술가들이다. 김 작가가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그림들은 작품 속에서 부처님과 한바탕 신나게 노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린 그림들이라고 한다. 그림 속에는 각자에게 던지는 질문 같은 '길'이 그려져 있다. 작가가 시작한 길이지만 그 길은 관객 모두의 길이다. 그 길 끝에는 일주문이 있다. 일주문 역시 각자의 것이다. 그림을 그린 작가를 표현한 것이고 그림을 바라보는 관객을 그렸다. 일주문은 한마음을 상징한다. 세속의 번뇌를 말끔히 씻고 한마음 속에 머물고자 함이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길의 표현은 불도(佛道)다. 불도는 부처님의 말씀이면서 수행자의 길이다. 현대는 개인의 감정이 중요해지고 자아의 표현이 적극적인 시대이다. 작가는 그림을 통해 마음을 닦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한다. 작가는 그림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대중이 부처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각자의 삶을 깊게 성찰해보기를 바란다.

"어릴 적부터 불가적인 환경에서 자란 것이 지금의 그림이 된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그림을 통해 부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졌어요. 기왕 그림을 그린다면 그림 속에 부처님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재가 그린 그림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불교가 친숙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불교를 접했던 김 작가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늘 안타까워했다. 김 작가의 그림은 또 다른 경전 해설서인지도 모르겠다.

김지선(34) 화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 졸업, 동국대 일반대학원 불교미술과 과정 중에 있다. 2017년 527창작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개인전 3회,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2019년 경인미술대전에서 수상했으며, 갤러리 이즈 신진작가 창작지원 프로그램 선정작가로 선정됐다. 2019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 BAF청년작가공모전에서 청년작가 공모전 부분 '우수상'을 수상했다. 현재 불교철학을 현대미술과 접목시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02)6012-1731.

공감의 대상 반려식물이 주는 위로

서울노인복지센터 '초록으로~'展
12월 20일까지 탑골미술관


갖가지 식물과 소품을 활용해 각자가 꿈꿔오던 정원을 '미니 정원'으로 구현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12월 20일까지 탑골미술관에서 반려식물과 함께하는 특별한 전시 '초록으로 물들다 나도 당신도'를 개최한다.

2019 서울농부 회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각기 다른 삶을 살아온 어르신 25명이 지난 2개월간 함께한 반려식물과 반려식물을 기르며 쓴 글들을 선보인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도시농업공동체 활성화 기관으로 지난 10월부터 2019 서울농부회원 지원사업 '서울선배시민, 반려식물과 함께 춤을'을 진행해왔다.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반려식물에 대한 이해와 공감글쓰기 강연을 통해 기르고 관리하는 대상이었던 식물을, 공감의 대상으로서의 식물인 '반려식물'로 의미를 전환했다. 또한 큰 화분에 갖가지 식물과 소품을 활용해 각자가 꿈꿔오던 정원을 '미니 정원'으로 구현했다. 어르신들은 "얘들이 손짓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도 거기에 화답해서 뭐라고 화답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매일 들여다보고 만져가면서 돌보다보니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는 것부터 시작해서 잘 기르는 법을 배우고 정성을 들여 키우니 애틋한 정이 생겼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전시는 미니정원, 반려식물, 공감일기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반려식물이 가진 긍정적 효과와 의미를 전할 뿐 아니라 식물을 활용해 실내를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구현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은 "무언가에 관심을 갖는 군간 애정과 공감이 형성되고, 그런 존재 자체가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기도 한다"며 "어르신이 직접 가꾼 반려식물과 이를 바라보며 작성한 공감일기를 통해 그 특별함을 엿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재완 기자

찬불가 · 캐럴 함께하는 송년 콘서트

12월 23일 홍대 에반스 라운지서
비뮤티 · 김창기 등 찬불가 · 캐럴 공연

BTN불교라디오 '울림'(대표이사 구본일)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특별한 콘서트를 마련했다.

BTN불교라디오 대표프로그램 '송봉주의 음악풍경'은 12월 23일 홍대 에반스 라운지에서 '부디스트 온 크리스마스(Buddhist on Christmas)'라는 주제로 특집콘서트를 개최한다.

음악을 통해 종교와 세대 등의 분별을 없애는 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콘서트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대중가수인 김창기(동물원), 송봉주(자전거 탄 풍경)와 찬불가수로도 알려진 비뮤티(클래시컬 팝 아티스트)가 무대에 선다.

이들은 아름다운 찬불가와 크리스마스 캐럴, 자신들의 주요 히트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별손님으로 초대된 진명 스님(BTN라디오 '아름다운세상, 진명입니다' 진행자)의 깜짝 스페셜 무대도 진행된다.

찬불가와 캐롤을 동시에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콘서트 BTN불교라디오 송년특집 '부디스트 온 크리스마스' 공연은 하나티켓에서 예매가능하다. 가격은 3만원. 문의 1577-1233, (02)3270-3465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립중앙박물관이 e뮤지엄을 통해 공개한 일제강점기 유리건판 사진. 사진은 보은 법주사 팔상전으로 당시 모습을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다. **사진제공= 국립중앙박물관**

일제강점기 사찰 어떤 모습일까

국립중앙博 소장 유리건판 사진 고화질 공개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사찰과 문화재에 대한 유리건판 사찰 사진이 전면 공개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유리건판 약 3만 8천여 점의 고화질 사진을 'e뮤지엄(emuseum.go.kr)' 에서 전면 공개한다"고 12월 11일 밝혔다.

사찰 · 민속 담은 3만 8천 점

600만 화소 고화질로 제공

유리건판은 감광유제를 유리판에 발라 건조시킨 일종의 필름으로 20세기 초 널리 이용되던 사진기술이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이 기술을 이용하여 당시의 문화재, 민속, 건축물 등을 기록하고 조사하였다.

특히 유리건판 사진은 지금은 확인하기 어렵거나 모습이 바뀐 당시 문화재, 발굴조사 모습, 민속자료, 북한의 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았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은 유리건판 사진의 디지털 이미지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 2017년에는 소장품 사진과 기본정보를 e뮤지엄과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데 이어 이번에는 소장 유리건판 사진 3만 8천여 건을 600만화소의 고화질로 e뮤지엄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유리건판 고화질 이미지는 기존의 소장품 사진 공개와 마찬가지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목적만 선택하면 즉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소장품사진 사용에 관한 복잡한 허가절차가 없어지면서 편의성이 극대화됐다. 또한 모든 이미지는 공공누리 1유형으로 공개되어 출처표시만 하면 상업적 활용, 내용변경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가능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앞으로도 학술연구, 문화콘텐츠의 활발한 상업적 활용을 위해 소장품 정보공개와 자료의 고화질 · 고품질화를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해탈 · 열반의 논리'를 설하다

주목! 학술서 - 김성철의 〈역설과 중관논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중관학(中觀學)' 은 〈반야경〉의 공(空)사상에 토대를 두고 용수의 〈중론〉에서 제시하는 중도의 실천을 강조하는 대승불교의 사상체계다. 〈반야경〉의 공사상과 용수의 중관논리에는 특유의 '역설 논법' 이 있다. 용수는 특이한 구조의 논법을 통해 논적(論敵)들을 논파해왔다.

중관학 특유 논리 체계인 '중관논리' 를 다룬 연구논문서가 나왔다.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의 〈역설과 중관논리- 반논리학의 탄생〉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불교 중관학을 대표하는 학자인 김성철 교수는 '용수의 중관논리의 기원' 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래 '회쟁론 범문 · 장문 문법해설집' , '중론, 논리로부터의 해탈 논리에 의한 해탈' 등 중관사상 관련 논문과 저술을 꾸준히 발표해왔다.

이번에 발간된 연구서 〈역설과 중관논리〉는 그가 발표한 중관학 관련 논문 중 논리적이고 문헌학적인 논문 8편과 원전 번역 1편이 수록됐다. 게재된 논문들은 모두 중관학 분야에서 연구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역작들이다.

가장 처음 게재된 연구논문 '역설과 중관논리' 는 1996년 제6회 가산학술상 수상 후 작성한 것으로, 수학자 버트란트 러셀이 발견한 집합론의 역설과 중관논리의 유사성을 밝혀낸 최초의 논문이다. 저자는 러셀의 계형이론의 '자의성(恣意性)' 을 비판하면서, '논리적 정당방위' 이론을 통해 역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Sambandhaparīkṣāvṛtti〉와 〈중론〉' 은 불교논리가인 다르마끼르띠(법칭)가 저술한 〈Sambandhaparīkṣāvṛtti(觀關係品註)〉에서 구사되는 논법을 분석함으로써, 다르마끼르띠에게 용수의 중관논리가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증명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다르마끼르띠에게서 중관학의 영향을 볼 수 없다는 비엔나 대학 슈타인켈러



중관학 논문 · 원전 번역 수록

수학 · 중관논리 비교 고찰부터

중관 · 불교논리학 접점 모색도

"논리적 사유 비판하는 反논리

훈련통해 철학적 의문서 해방"

(Ernst Steinkellner, 1937~)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중론〉 귀경게 팔불의 배열과 번역' 에서는 〈중론〉 귀경게의 범어 원문과 한역문 · 티베트어 번역문에서 팔불(八不)의 배열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추적했다. 이를 통해 각 언어권의 시(詩)형식에 맞춰 배열을 조작한 것을 저자는 증명한다.

김성철 교수는 연구서를 통해 중관논리가 논리적 사유를 비판하고 이를 넘어서는 '반논리(反論理, Counter Logic)' 임을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중관논리는 용수에 의해 창안됐지만 그 연원은 〈반야경〉의 공사상과 초기불전의 연기설에 사상적 연원이 있다. 이에 따라 중관논리는 '공의 논리' 이자 '연기의 논리' 이면서 흑백논리를 비판하는 '중도의 논리' 라고 김성철 교수는 주장한다. 또한 종교적, 철학적 번민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얻기에 '열반의 논리' 라고 부를 수도 있으며, 온갖 이론과 망상을 만들어내는 생각의 속박에서 해방되기에 '해탈의 논리' 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성철 교수는 "중관논리는 우리의 논리적 사유를 비판하는 '반논리' "라며 "우리는 중관학의 반논리학을 훈련함으로써 종교 · 철학적 의문에서 해방되며, 그동안 자신이 견지하던 인생관 · 가치관 · 세계관의 상대성을 자각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석탑 수리기술 모든 것 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서 〈석조문화재 수리〉 발간

석탑 수리 기법 · 과정 담아

"수리 품질 향상에 노력"

석탑 수리기술 전반을 연구한 전문연구서가 발간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는 "석탑의 보존관리에 대한 기본서로 석탑 수리공사의 기초조사 · 공사과정과 기법 · 보존기술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석조문화재 수리기술 연구(석탑)〉을 발간했다"고 12월 9일 밝혔다.

연구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석조문화재를 수리하며 축적한 기술연구 성과를 정리해 석탑수리 전 과정을 흐름에 따라 그림과 사진 등 시각자료를 통해 상세히 서술했다.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는 석탑 수리공사의 변천과 수리공사 유형별 사례를 수록하였으며, 2장에는 석탑 실측조사의 상세한 방법을 기술했다.

3장에는 석탑의 훼손유형과 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방법, 균열 · 파손의 원인조사, 해체조사, 지반조사, 석재 산지조사, 구조해석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특히, 4장의 구조보강 · 접합 · 색맞춤 등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자료와 함께 석탑 수리공사 현장의 자료를 협조 받아 수록해 다양한 사례를 게재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간한 〈석조문화재 수리기술 연구(석탑)〉

이번에 발간한 〈석조문화재 수리기술 연구(석탑)〉은 국공립 도서관과 국내외 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담당부서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이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nrich.go.kr)에도 공개된다.

최종덕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이번에 발간된 책이 문화재실측설계와 수리공사분야에 종사하거나 연구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석조문화재 수리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대한불교진흥원 제10회 원효학술상 공모

내년 2월 3~28일 접수… 학자 · 학생 부문으로 나눠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주도할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원효학술상 대상자를 공모한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내년 제10회 원효학술상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12월 10일 밝혔다.

대상자 접수 기간은 내년 2월 3일부터 28일까지이며 모집 부문은 △현대 사회, 문화에 대한 불교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불교사상 연구 △서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과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서양사상 연구 △동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등이다. 대상자는 모집 부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1편만 응모가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지원서 1부와 저서 2부, 논문 별쇄본 3부를 제출해야 한다. 학생 논문의 경우 5년 이내 발표된 것으로 조교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지원서는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심사결과는 내년 4월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학자와 석 · 박사 과정 학생부문으로 시상을 단순화한 대신 상금을 상향 조정했다. 학자부문 논저의 경우 2000만원, 석박사 과정 학생 부문 논저는 300~500만원이 수여된다.

문의(02)719-2606 신성민 기자







대안 스님의
24절기 사찰밥상

㉓ 대설(大雪) · 동지(冬至)
동지팥죽 · 연잎밥 · 김장아찌

연잎 장복하면 혈관질환 개선 효과

시간을 따라 흐른 절기는 어느새 대설과 동지다. 과거에 비해 눈 내리는 날이 적어졌어도 대설은 더러 폭설을 내려주기도 한다. 지리산에 처음 온 몇 해는 눈을 쓸다가 잠을 못잔 적도 있다. 사찰 진입로가 응달이라 내리 사흘간 쏟아진 눈을 치우지 않으면 겨우내 얼음판을 걸어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밖으로 나가야 한다. 한번 치우려면 2시간은 족히 걸리니 며칠마다 눈 치우는 일은 성가시게 되었다.

눈밭에 묻은 항아리에 동치미가 잘 익고 있다. 산죽을 베어 와서 무가 뜨지 않도록 틈을 채워주고 단도리를 해놓았으니 별탈이 없을 것이다. 동지가 되면 동치미도 한몫 단단히 한다. 중국의 공공씨 악귀에서 비롯한 동지팥죽 전설은 전래된 만큼 오래도록 사찰의 '작은 설'이 되어 신도들과 팥죽을 통해 교감하는 문화가 됐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동짓날을 '아세(亞歲)'라 했는데 동지부터 태양의 황도가 새로 바뀌는 터라 작은 설이라고 대접하였다 한다. 국일암 노스님은 팥죽을 잘 쑤셔서 양푼에 그릇마다 여러 개 담아서 장독대 위에 올려놓으셨다. 식은 팥죽을 각단에 올리고 동짓날 방문하는 이들에게 먹이고 싸주시기까지 하면서 큰 가마솥에 한 솥 끓여낸 팥죽은 늘 불 담당하는 새내기 출가자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어느 해 단도리를 잘못해서 죽에 누린내가 난 적이 있었다. 심하지 않더라도 그 많은 팥죽이 누린내를 풍겨선 안 될 일이었다. 고만고만한 출가 1년생 새내기 셋은 앞뒤 분간도 못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노스님은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아이고, 이놈 자슥들아. 죽이 눌렸으니 이를 어째꼬,,,"하시며 "됐다. 담부터 조심하래이"라는 짧은 말로 아무 일 없는 듯 넘기셨다.


동지팥죽


연잎밥


김장아찌

야단을 크게 맞았으면 차라리 덜 죄송할 텐데 일머리가 부족하니 이해해주시던 너그러운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사제스님은 팥죽의 굳은 부분을 좋아해서 어느 해 죽그릇마다 윗부분을 모두 걷어서 먹어 치운 후 시치미를 떼다가 대중 참회를 크게 한 일이 있었다. 그 일조차도 30년 훌쩍 세월이 지나가니 지금도 금수암 윗동네 사는 사제를 만나면 팥죽이야기는 잊기 어려운 추억거리가 되었다.

욕심껏 사놓은 김을 다 먹지 못하는 시기에 김장아찌는 매우 유용하다. 장물을 달여서 김 두어 장 위에 밤채를 얹어내는 김장아찌는 사실 장절임이다. 이 시기 수분이 적당히 빠진 더덕 역시 좋은 식재료다. 목 넘김을 편하게 하기 위해 양배추를 곁들어 먹으면 맛도 낫다. 잣에 배를 넣고 갈아서 더덕채를 무치면 굳이 익히지 않아도 상큼한 맛의 더덕샐러드가 된다.

겨울철 미리 만들어놓은 연잎밥 또한 유용하다. 밥이 쉽게 상하지 않기 때문에 두고 먹을 수 있는 별미이기도 하다. 연잎의 효능은 셀 수 없이 많지만 혈관질환을 개선하는데 탁월하고 항산화 물질인 퀼세틴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압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 오래도록 장복할 경우 자양강장의 효과도 대단하다.

조금 있으면 눈 푸른 납자들의 용맹정진의 고삐가 더 단단해 지는 시기이다. 출가 전 굴뚝 신심덕에 한 달에 한 번 수선회에서 1박2일 용맹정진을 하곤 했다. 출가인구도 가장 활발한 시기였던지라 이십대 초반 출가자도 흔했다. 정일 스님께 가르침을 받던 시절이고 법련사나 칠보사 아니면 정일 스님이 주석하신 보광사에 찾아가서 밤새 정진하던 시절이었다. 교리도 채 익히기 전에 선바람에 부대꼈던 시절, 여름정진보다 겨울정진이 날씨 덕에 더 매섭게 느껴졌던 때다.

지금처럼 패딩이 흔한 것도 아니고 속인으로 출가를 꿈꾸던 그 풋풋함에 추위도 잘 참았던 것 같다. 사찰의 음식 맛이 짜게 느껴졌던 것은 봉정암이고 갓바위고 모두 짠무 하나에 공양을 했던 까닭이기도 하다. 점차 식품관련 공부를 하다 보니 겨울철에는 조금 짜게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무래도 운동력이 떨어지고 체온이 추위에 잘 떨어지기 때문에 짠 성분이 체액조절을 해주고 겨울철은 오행중 수의 기운인지라 적절하게 간이 좀 더 필요한 시기다. 〈끝〉

동지팥죽

재료: 팥 2컵, 찹쌀가루 1컵, 멥쌀가루 1컵, 대추 1개, 잣 약간, 소금 1큰술

1. 팥은 물에 삶는데 한 번 끓으면 그 물을 버리고 다시 물을 붓고 뭉근하게 끓인다. 이때 팥이 완전히 퍼져서 체에 내릴 수 있어야 한다.
2. 쌀가루 두 가지에 소금간을 하고 섞어서 동그랗게 새알심을 만든다.
3. 거른 팥물을 끓이다가 새알심을 넣고 중불에서 끓인다.
4. 고명으로 대추와 잣을 얹어낸다.

연잎밥

재료: 연잎(¼) 4장, 찹쌀 2컵, 대추 4개, 잣 1T, 은행 12개, 밤 4개, 검은깨 약간, 소금

1. 찹쌀은 씻어 2시간정도 불린 후 채반에 받쳐 물기를 빼고 김이 오른 찜기에 찐다.
2. 은행은 프라이팬에 굴리면서 구워 속껍질을 벗기고, 대추도 씨를 발라내 모양을 살려 썰어준다. 밤은 4등분한다.
3. 찰밥이 지어지면 연잎을 펼쳐서 한 공기씩 담고 대추, 잣, 은행, 밤, 검은깨를 넣고 연잎에 싼다. 이 때 소금물을 뿌리며 연밥을 만든다.
4. 김이 오른 찜기에 연밥을 다시 30~40분정도 찐다.

김장아찌

재료: 김밥용김 8장, 밤 3개, 생강 1쪽(80g), 간장 3T, 조청 3T, 매실청 1T, 통깨 1T, 실고추 약간

1. 김은 먹기 좋게 5~6㎝ 크기로 자른다.
2. 밤은 곱게 채 썰고 생강은 강판에 갈아 즙만 준비한다.
3. 냄비에 물 ½컵, 집간장, 조청, 매실청, 생강즙을 넣고 끓여 식힌 후 밤채, 실고추, 통깨를 넣어 양념장을 만든다.
4. 양념장에 김을 4~5장씩 잡고 적신 후 용기에 담는다.



류재환의 건강 100세
⑨ 건강한 삶을 위한 암질환 예방

흡연·음주, '암' 발생 주 원인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암 유병자수는 173만 여명으로 남자 76만, 여자 97만(2017.1.1. 기준)으로 나타났다.

암 종별 암 유병률을 보면 남녀 전체에서 갑상선암이 21.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순이었다. 최근 2018년 12월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는 암 발생률, 생존율, 유병률 현황을 발표했다. 새로 발생한 암 환자수는 21만 4701명(남자 113,335명, 여자 108,954명), 2018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이다. 남자의 경우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여자의 경우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순으로 발생률이 높았다. 최근 5년간 암 상대 생존율은 5년 전에 비해 5.5% 상승했다. 상대 생존율이란 암 환자의 생존율과 동일한 연도, 성별, 연령을 가진 일반인의 생존율을 비교한 것이다. 단, 상대 생존율이 100%가 넘는다고 해서 해당 암으로 죽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남녀 전체에서 갑상선암은 가장 높은 생존율을 보였고 전립선암 94.1%, 유방암 92.3%로 높은 생존율을 보인 것에 비해, 간암 33.6%, 폐암 26.7%, 췌장암 10.8%로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암 발생, 환경 영향이 가장 크다

암의 발생 기전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노화 등으로, 그 중에서 환경적 영향이 가장 중요하다. 암의 원인 중 한 예로 흡연이 있다. 폐암의 90% 이상, 인후암의 80~90%가 흡연 때문에 발생한다. 그 외 식도암, 구강암, 췌장암, 방광암, 신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난소암도 흡연자에게 호발한다. 전체적으로 약 30~40% 암은 흡연 때문에 생긴다. 술도 여러 가지 암 발생에 관여하는데 알코올 중독자들은 정상인에 비해 약 10배 암에 잘 걸리고 특히 과도한 음주자에 호발되는 암은 두경부암, 식도암, 위암, 간암, 췌장암, 유방암이다.

음식도 암 발생과 관련이 있어 질산염이나 아질산염이 첨가된 방부제로 처리한 음식, 불에 탄 고기나 생선, 소금에 절인 저장 음식, 과량의 자극적인 음식은 위암을 잘 일으키며, 고기를 많이 섭취하고 채소나 곡류를 적게 섭취하면 대장암이나 유방암에 잘 걸리게 된다. 또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암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했던 간암은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잘 생기게 된다. 기타 방사선, 자외선 등도 암 유발 요인이 된다.

위암-탄고기 · 자극적 음식 원인
나이에 맞는 정기적인 검진 필수

암을 예방하는 방법

우선 암을 예방하려면 암의 원인을 차단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흡연자의 금연이 되겠고, 두 번째로 금주하거나 조절 가능하다면 인체에 나쁜 영향을 안 주도록 술을 소량 마셔야 한다. 암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음주량은 소주 2잔 정도 일주일에 2회 정도이다. 세 번째로 소금에 절인 음식, 너무 태운 음식, 훈제음식, 곰팡이가 핀 음식 등을 피하고 신선한 야채, 과일을 섭취하며 여러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네 번째로 B형 간염 예방주사 등 주기에 맞는 예방 접종을 한다. 그 외 자외선이 풍부한 직사광선을 과도하게 쬐지(조사) 않도록 조심하며,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게 일반적인 예방법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활동 즉 운동이 되겠다. 상기와 같은 운동과 식사습관 개선만으로도 50% 이상의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암을 조기 발견하려면

암 예방은 쉽지 않지만 증상이 없는 단계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암도 있다. 예를 들면 자궁경부암은 매년 1~2회 자궁암 검사 시험 시 암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다.

유방암은 자가진단으로 이상을 발견하여 정밀검진으로 암이 확진된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위암의 경우는 매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 조기 위암 진단율과 5년 생존율에서 95%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간암 발생 위험이 높은 B형 간염 보균자나 만성 B형 간염 환자는 3개월 간격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 및 병원 진단을 통해 간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 대장암의 경우도 용종이나 기타 질환 병력이 없었다면 매 3~4년 주기로 대장 내시경을 통해 대장암의 조기 발견율을 높일 수 있다. 끝으로 다음과 같은 증상 시에는 암 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꼭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요한다.

1) 몸에서 어느 부위에서라도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 2) 소변, 대변, 가래에 피가 묻어나오는 경우 3) 음식을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계속 빠지는 경우 4) 소화불량이나 속이 쓰려서 약을 복용하는데도 잘 낫지 않는 경우 5) 목소리가 저절로 쉬고 마른기침이 계속되는 경우 6) 40대 이후 갑자기 변비가 생기거나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 7) 여성의 경우 비정기적인 자궁 출혈이 있거나 성교 후 출혈이 있는 경우 8) 유방이나 겨드랑이에 멍울이 만져지거나 점점 커지는 경우

항상 암 조기 발견을 위해 나이에 맞는 정기적인 암 검진이 필수적일 것이다. 〈끝〉

전국병원불자연합회장(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주임교수)

붓다의 가르침을 가장 원형에 가깝게 전하는 아함경!
한역 4부 아함의 온전하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번역과 주석!
500질 한정판매
가까이 두고 하루에 단 한 줄만이라도 읽고 새겨야 할 소중한 가르침!
한산 김윤수 역주 『아함전서』 1~16 ★ 전집 구입시 별도 제작된 『전체 색인집』을 드립니다.

잡아함경(전5권)

1권~5권 3,270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150,000원

증일아함경(전4권)

1권~4권 2,252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120,000원

중아함경(전5권)

1권~5권 2,912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140,000원

장아함경(전2권)

1권, 2권 1,228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6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1mm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1년의 결실인 소백한 용두리 호두는
농부의 정성과 청정자연을 머금은 하늘의 선물입니다.

소백산 고랭지의 정북 예천 용두리는
품질과 맛 좋은 호두가 나기로 유명하여 옛부터 호두골 이라 불렀습니다.

소백산 용두리 신품종 호두는 알이 크고 속살이 실하며 깨기가 쉽습니다.
토종호두보다 인기 많고 가격이 높은 이유입니다.
간혹 거뭇한 호두알은 겉껍질 색이 착색된 것입니다. 안심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향긋한 소백산 용두리 햇호두, 맛있게 드시고 늘 건강하세요!

"
**수차례의 선별작업으로 속이 비거나 기준보다 작은 호두알은 걸러냈습니다.
그래도 기준 이하의 호두가 있을까봐 조금 더 넉넉히 담았습니다.**

호두 이야기



100% 국산 무농약

무농약 (NON PESTICIDE) 농림축산식품부
인증번호 제16300039호

소백산 호두골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제초제를 쓰지않은 청정호두

1kg 33,000원 (택배비포함)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